

IV

마을 사람들의 삶

1. 땅과 함께 살아온 삶

김 명 우(경기도사편찬위원회 상임위원)

(1) 머리말

화성지역은 예로부터 농업이 주를 이루던 곳이었다. 특히 정조가 수원의 읍치를 이전하고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화성지역의 농업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정조는 수원을 자급자족의 신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만석거(萬石渠)·만년제(萬年堤)·축만제(祝萬堤) 등을 축조함으로써 미곡농업의 생산기반을 더욱 확충하였다.

이후 한말과 일제강점기를 통해서도 화성지역은 미곡 중심의 농업이 주축이 되는 가운데 한편으로 잠업시험소와 권업모범장 등이 설치·운영되면서 잠업중심 농업도 성행하게 되었다. 해방 이후 경제개발계획의 추진과 함께 화성지역의 농업은 ‘비닐하우스’로 대변되는 도시근교농업의 형태로 급격히 변화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미곡농업이 위축되는 대신 과일·채소 등 특용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유형이 발달하기도 하였다.

한편 화성의 농가인구를 보면 1966년 167,000여 명에 달하던 농가인구가 2001년에는 57,000여 명으로 대폭 감소하고 있고, 농경지 면적이나 미곡 생산량도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렇듯 최근 들어 화성지역 농업형태의 전반적인 양상과 변화는 화산동에 있어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현재 화산동은 총 면적 11.634km² 중 농경지가 4.636km²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중 밭은 1.482km²인 데 비해 논이 3.154km²로 7:3 정도로 논의 비중이 높다. 2000년 현재 화성의 각 읍면동별 토지 지목별 이용현황에서도 논의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태안읍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화산동을 가로지르는 황구지천(黃口池川)을 중심으로 발달한 넓은 충적지가 논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화산동 지역은 외관상으로 경작지가 많이 분포하고 있다. 따라서 경작민도 많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2006년 초 현재 총 6,800여 가구 중 농가는 420여 가구로 전체의 6%에 불과하다. 게다가 계속되는 비농가인구의 유입으로 인해 농가가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놓여있다. 화산동의 주요 경작지로는 안녕동의 넓은 들판을 비롯하여 송산동과 황구지천 사이, 황계동 앞으로 황구지천과 철로 사이의 논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밭의 경우는 태안3지구 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된 지역과 황계동 주변에 소규모로 분포하며, 주택단

지 주변으로는 텃밭을 경작하는 정도이다.



안녕동 들판



송산동 들판



황계동 들판

화산동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재배된 작물은 매우 단조로운 편이다. 논에서는 벼농사만 짓는 일모작 형태이고, 밭에서는 보리·콩을 이모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근래에 와서 보리농사가 거의 없어졌다. 이밖에 고추·파·마늘·깨·배추·무 등 채소류가 재배되기도 하지만, 각 가정에서 필요한 만큼만 재배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들어 느타리버섯 재배나 과실수 식재 등 특용작물에 관심을 가지는 농가도 생겨났지만 화산동 지역은 넓은 들판을 바탕으로 하여 벼농사가 주축을 이루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아직도 자연마을 형태로 남아있는 황계동을 중심으로 논농사·밭농사의 전통적인 모습과 변화양상, 그리고 사라져가는 농기구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2) 논농사

우리민족의 주식이 되어온 쌀은 지구상 거의 모든 지역에 걸쳐 생산되며 밀·보리와 더불어 세계 3대 곡물로 일컬어진다. 쌀을 의미하는 한자 미(米)는 벼이삭을 본떠서 만든 상형문자인데, 혹 ‘八十八’로 풀어서 여든여덟 번 손이 가는 곡식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이 말에는 쌀이 많은 정성을 들여 생산해 내는 만큼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뜻도 내포되어 있다. 그런데 정작 전통적인 방식에 따라 쌀 한 톨을 생산하는 데 드는 사람의 손길은 88회를 훨씬 넘는다는 게 농사를 지어본 사람들의 지배적인 견해이다.

한 해 농사의 시작은 논둑태우기에서 비롯된다. 이는 정월 대보름에 즈음하여 논둑의 풀을 태우는 풍습으로 첫 쥐의 날[上子日]을 택하여 불을 놓는다고 해서 ‘쥐불놀이’라고도 한다. 쥐불놀이는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쥐는 물론 풀에 붙어있는 해충의 알을 태워 없앨 뿐만 아니라 타고 남은 재를 거름으로 사용하는 등 여러 가지 효과를 동시에 노릴 수 있다. 현재는 논둑은 물론 논바닥에 흩뿌려진 볏짚을 태우는 경우도 쉽게 볼 수 있

다. 과거에는 수확 후 벼짚을 거두어 지붕을 이거나 소여물, 새끼 꼬기, 가마니 치기, 명석 찌기 등에 사용하였으나, 지금은 버베기를 하면서 곧바로 벼짚을 잘라버림으로써 퇴비로 쓰기 때문이다.

논둑을 태우고 나서는 거름을 내다 논에 퍼는 작업이 뒤를 잇는다. 예전에는 대부분의 농가에서 소·돼지 등 가축을 기르면서 거름을 만들었고, 재[灰]와 사람의 분뇨 등도 거름으로 사용하였다. 각 가정에서의 거름 생산은 1년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리하여 외양간에서 나오는 거름을 마당 한켠에 쌓아놓는 집도 많았고, 수시로 논으로 내가는 모습도 흔하였다고 한다. 또한 별도로 잿간을 마련해 두고 아궁이에서 나오는 재와 온갖 음식물쓰레기, 오줌 등을 섞어 거름을 장만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요즘은 가축을 기르는 집이 거의 없는데다 아궁이도 사라진 지 오래되어 가정에서 스스로 거름을 장만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으며, 퇴비공장에서 거름을 사다가 넣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다음에는 논갈이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논갈이는 추수가 끝난 즉시 가을에 가는 갈갈이와, 땅이 풀리는 음력 2월경에 가는 봄갈이가 있다. 갈갈이를 하면 겨우내 햇볕을 쬔 통풍이 되어 지력(地力)에 좋다고 여겼으며, 갈갈이하는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으로 인정받기도 하였다. 소를 이용하여 쟁기로



논갈이

논을 갈 때는 흙이 한 쪽으로만 넘어가기 때문에 왕복을 해야만 양쪽의 흙이 쌓여서 둔덕을 이루게 된다. 이때 둔덕 밑은 갈리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2차 논갈이할 때 이곳에 쟁기를 대어 갈아야만 전체적으로 논이 갈리게 된다. 따라서 논갈이는 통상 두 번 하게 되는데 갈갈이를 해 놓았다가 이듬해 봄갈이를 하기도 하고, 봄에만 두 번 갈기도 하였다. 그러나 경운기와 트랙터가 보급되면서 쟁기의 날을 조절하는 기능을 활용함으로써 논 전체를 한 번에 가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화산동에서는 지극히 일부분의 논에서 갈갈이를 하고, 대부분의 논은 봄갈이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논갈이는 물이 없는 상태에서 하게 되는데, 이를 마른갈이라고 한다.

겨울을 지나는 동안 땅은 얼었다가 녹기를 반복하게 된다. 그리하여 봄에는 얼었던 땅이 풀리면서 논둑이 무너지거나 들쥐들이 서식하던 구멍을 통하여 물이 새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 따라서 물을 가두고 못자리를 만들기 전에 논둑을 다지고 수리하는 작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미 무너져 내린 논둑은 군데군데 말뚝을 박은 다음 가로

로 나뭇가지 등을 걸쳐놓고 흘러내린 흙을 쳐 올린다. 다음에 논둑 가래질을 하게 되는데, 가래질이란 가래를 세워서 논둑의 표면을 깎아내는 것을 말한다. 깎아낸 논둑에는 새로운 흙을 떠서 다지고, 그 위에 물을 끼얹어 가래나 삼·넉가래 등을 이용하여 매끈하게 바른다. 이러한 가래질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자루를 잡는 사람과 줄을 잡는 두 사람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대가족이던 시절에는 한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가래질을 할 수 있었는데, 아버지가 자루를 잡고 자식들이 줄을 잡거나 장남이 자루를 잡고 2남·3남이 줄을 잡아 일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핵가족화의 진행과 이혼향도 현상의 급속화로 인해 과거처럼 이웃과 품앗이를 하기도 어려워진 상황에서 가래 사용도 자취를 감추게 되었고, 지금은 대개 혼자서 삼을 가지고 논둑을 수리한다.

논둑을 수리하고 나면 본격적으로 논에 물을 가두고 못자리 준비를 하게 되는데, 시기는 4월 중순경으로 절기상 곡우(穀雨) 무렵이 된다. 못자리는 대체로 물꼬에서 가까운 곳으로 정하는데, 이는 쉽게 물을 대거나 뺄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논의 한쪽에 모판 자리를 정하고 주위에 독을 만든 다음 물을 대고 써레질을 한다. 이때 못자리가 협소할 경우에는 굳이 써레를 대지 않고 가래나 팽이를 사용하여 논을 삶기도 한다. 모판은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주위보다 약간 높게 만들며, 삼이나 넉가래·넉뻘지 등으로 논바닥을 매끈하게 문지른다. 넓이는 대략 1m 정도로 하고, 모판과 모판 사이는 30cm의 간격을 둔다. 물을 빼고 2~3일 정도 건조시킨 후 다시 물을 대고 준비해둔 법씨를 치는데, 아침 일찍 바람이 적은 시간을 택하여 친다.



비닐못자리용 대쪽

그러나 이같은 물못자리는 1980년대 이전에 이미 사라지고, 이후에는 비닐못자리를 하였다. 비닐못자리는 모판이 물에 잠기지 않을 정도로 물을 대며 법씨를 치고 나서 대나무를 꽃아 터널처럼 만들고 비닐을 덮어씌움으로써 높은 온도를 유지시켜 준다. 3주일쯤 지나 모가 어느 정도 자라면 비닐을

벗겨낸다.

근래에는 이앙기를 사용하여 모내기할 때 따라 모판에 직접 법씨를 뿌리는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즉 30×60cm 크기의 육묘상자에 흙을 깔고 법씨를 뿌린 다음 다시 흙을 덮어서 상자째 모판에 갖다 놓기 때문이다. 이후 비닐을 덮어씌우고 관리하는 것은 비닐못자리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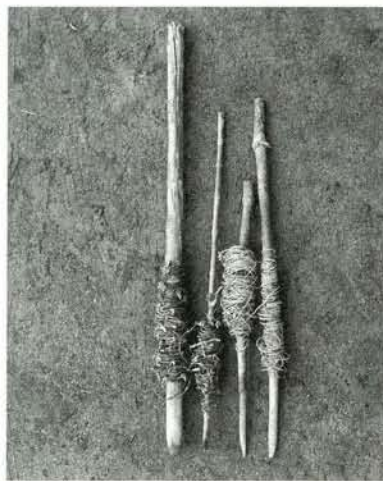
모가 모판에서 논으로 옮겨심을 만큼 자라려면 35~40일 정도 걸린다. 예전에 물못자

리 하던 시절에는 45~50일 걸리던 것이 비닐로 모판을 덮어주게 되면서 성장기간이 짧아진 것이다. 농부는 못자리를 끝낸 후 모가 자라는 동안 논을 한 번 더 갈고 썬레질과 번지질을 하여 모내기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모내기는 양력 5월 중순부터 시작하여 6월 초순이면 대체로 끝나는데, 화산동에서는 논에 벼와 보리를 이모작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모내기하는 시기가 약간 빠른 편에 속하였다.

전에 모내기를 하는 날이면 많은 일꾼들이 모판에서 모를 찌는 일부터 시작하였다. 양손으로 모포기를 서너 개씩 뽑아서 뿌리에 묻은 흙을 씻어내기를 반복하여 어느 정도 포기가 모이면 짚으로 모의 허리를 묶어 모춤을 만든다. 모춤을 모내기할 논으로 운반하는 데에는 바지계가 이용되었는데, 논바닥은 질퍽거리기 때문에 지계를 논둑에 세워둔 채 모춤을 논둑까지 가져다 실어야 했다. 모를 찌는 곳과 모내기할 논이 인접해 있는 경우에는 지계를 쓰지 않고 양손에 모춤 몇 타래씩 쥐고 나르기도 한다. 모춤을 논에 골고루 옮겨놓는 일은 대개 논 주인이 하였다. 적당한 곳에 지계를 세워놓고 논바닥의 군데군데에 모춤을 던지는데, 사방 20m 이내로는 한 곳에서 던질 수 있다. 모춤을 알맞게 흠뜨려놓지 않거나 혹은 어떤 사람이 모포기를 많이 잡고 심는 등의 이유로 모가 모자라는 곳에는 그때그때 모를 더 공급해 준다. 이때에는 모를 심다가 뒤에서 던져주는 모춤에 물벼락을 맞는 경우도 있다.

시간적으로 보면 아침 일찍부터 모찌기를 시작하여 오전 새참 때까지 끝내고, 참을 먹은 뒤에는 본격적인 모내기에 돌입한다. 모내기는 한꺼번에 일손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마을 단위로 공동모내기를 하거나 이웃과 품앗이를 통해 해결하였다. 논이 경지정리가 되어있지 않거나 가족 단위로 모를 심을 때에는 막모(별모 또는 허튼모)를 심었는데, 다수의 인원이 모를 심을 때에는 줄모심기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줄모심기는 일제강점기 때 도입되어 성행하였으며, 줄모심기를 하면 벼포기와 포기 사이에 통풍이 잘 되어 성장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김매기를 하거나 약을 칠 때에도 편리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농사일 중에서 모내기가 가장 힘든 일이라고 회상하는 것은 모내기하는 과정이 허리를 폈다 구부렸다 하는 동작을 기계적으로 되풀이해야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는 이앙기로 모를 심기 때문에 모심는 시기도 5월 초순으로 앞당겨졌을 뿐 아니라 모를 찌거나 모춤을 저나르는 일, 다수가 동원되어 줄모를 심는 일 등은 볼 수 없게 되었다.



줄모심기에 사용된 못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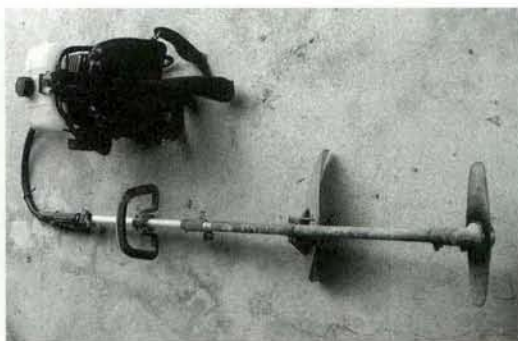
화산동에서는 1980년대 중반까지 줄모심기를 하였으며, 그 이후 이앙기가 보급됨으로써 비로소 모내기의 기계화가 이루어졌다.

모를 심고 2~3주일 지나면 논매기를 한다. 논매기는 통상 두 차례 하는데, 처음 논매기를 초벌논매기 또는 애벌논매기라 하고, 이후 10일 정도 뒤에 하는 두 번째 논매기를 두벌논매기 혹은 재벌논매기라 한다. 논매기는 피와 잡초를 제거하는 과정이다. 호미로 벼포기 사이의 바닥을 찍어 뒤집으면서 피와 잡초를 땅에 묻고 벼포기는 북돋아준다. 초벌논매기 때는 호미를 사용하고, 재벌논매기 때는 보통 손으로 훑치기만 한다. 논매기에 제초기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힘이 덜 들 뿐이지 벼포기 사이의 잡초를 제거하는 데는 호미로 하는 것만 못하다고 한다.

이러한 논매기도 제초제를 사용하면서부터 점점 볼 수 없게 되었다. 요즘은 모내기를 하고 1주일 이내에 제초제를 뿌린다. 이때 약효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2~3일간 물이 들어오거나 나가지 못하게 한다.



낫



전동식 제초기

논매기를 하고 나서도 제거되지 않은 피는 수시로 뽑아야 하고, 때맞춰 논둑의 풀도 깎아야 한다. 논둑에 풀이 우거지면 통행에도 불편할 뿐 아니라 통풍이 잘 되지 않아 벼가 성장하는 데에도 지장을 준다. 논둑은 풀이 자라나는 대로 수시로 깎아주어야 했기 때문에 농부가 부지런한지 또는 게으른지의 여부는 논둑을 보고 평가하기도 하였다. 이때 깎은 논둑의 풀은 소가 있는 집에서는 소의 먹이로 주거나 말려서 퇴비로 사용하였다. 낮으로 논둑을 깎을 때에는 두 사람이 논의 양쪽에서 시작하여 가운데서 끝내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한 사람은 왼손잡이어야 가능하였다. 그렇지 않으면 한 사람은 논둑의 끝에서 시작하고, 다른 한 사람은 논둑의 중간쯤에서 시작해야 한다. 요즘에는 낮으로 논둑을 깎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고, 전동식 제초기를 사용하거나 제초제를 뿌려서 풀이 말라 죽게 하는 방법을 이용한다.

벼이삭은 8월 중에 패기 시작하여 달포 가량 지나면 추수기가 된다. 모를 심고 가꾸어



1인용 수압식 분무기

서 만족할 만한 수확량을 거두기까지 최대의 관건은 병충해(病蟲害)를 줄이는 문제일 것이다.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의 자료에 따르면 곡물의 경우 병충해로 인해 가능생산량의 4분의 1이 소실된다고 하니 병충해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 알 수 있다. 벼 병충해로는 도열병, 문고병(잎집무늬마름병), 흰잎마름병(백엽고병), 세균성 벼알마름병, 벼멸구, 이화명충, 흑명나방, 멸강나방, 먹노린재에 의한 피해 등이 있다. 이러한 병충해는 모를 배게 심거나 혹은 화학비료를 많이 주거나 기온이 높고 습도가 많을 때, 집중 호우로 논이 침수되거나 태풍이 올 경우, 외

국으로부터 날아오는 해충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 따라서 모판에 모가 올라올 때부터 농약을 치기 시작하여 모내기를 하고 난 뒤에도 여러 차례 농약을 뿌리는 것을 볼 수 있다. 농약은 약통을 등에 메고 혼자서 치는 수압식 분무기를 사용하였으나 점차 동력 분무기로 발전하였다. 못자리에 약을 칠 때에는 면적이 그다지 넓지 않기 때문에 요즘도 1인용 분무기를 사용하지만 모내기를 한 후에는 경운기나 농약살포용 모터를 이용한 동력 분무기를 쓴다. 약을 칠 때 한 사람은 분무기를 잡고 약을 치고, 한두 사람이 줄을 늘이거나 당겨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보통이다.

벼의 알맹이가 여물고 고개를 숙이기 시작하면 도랑을 쳐서 물을 빼내고 수확할 준비를 한다. 벼를 베는 시기는 품종에 따라 약간씩 다르지만 대체로 양력 10월 중순경에 이루어진다. 예전에는 모두 낫을 사용하여 벼를 베었다. 한 손으로 낫자루를 쥐고 다른 손으로는 벼포기를 잡고 베는데, 낫질을 잘 하는 사람은 한꺼번에 서너 포기를 잡고 베기도 한다. 벼베기는 모내기와 마찬가지로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대개 이웃과 품앗이를 하거나 일꾼을 사서 작업을 하였다. 벼베기를 하는 날 아침은 각자의 집에서 먹고 나오고 오전 참과 점심, 오후 참은 벼를 베는 집에서 마련한다. 작업을 끝내고 나면 저녁은 일한 집으로 가서 먹기도 하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 먹기도 하였다.

벼는 논 상태에 따라 바닥에 퍼서 널거나 곧바로 벧단을 묶기도 한다. 논바닥이 말랐으면 벼를 베어 논바닥에 깔아 놓았다가 며칠 말린 뒤에 벧단을 묶지만, 논에 물이 있는 경우에는 벼를 베는 즉시 벧단을 묶어 세워놓거나 논둑으로 내다 놓는다.

한편 1970년대에는 바인더(binder)가 등장하여 벼베기에 이용되었다. 바인더는 벼를 베어 바닥에 가지런히 깔아놓거나 일정량씩 모아놓기도 하고, 또는 베는 동시에 일정한 크기로 묶는 등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바인더는 벼를 베어 깔아놓기만 할 경우

30분에 300평의 벼베기를 할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바인더의 보급과 활용은 극히 짧은 기간 동안 진행되었을 뿐 더 이상 확산되지 못하였다. 즉 바인더가 등장한지 얼마 되지 않아 콤바인이 출현한 것이다. 콤바인은 벼를 베는 동시에 탈곡까지 마침으로써 곧바로 자루에 담을 수 있기 때문에 낫이나 바인더로 벼를 베는 모습은 이제 볼 수 없게 되었다. 단 아직도 낫을 사용하는 경우는 콤바인이 논에 들어가거나 구석에서 회전할 수 있도록 논에 네 귀퉁이 일정부분의 벼를 베는 정도이다. 콤바인은 3천만 원 이상의 비싼 농기구이므로 농가마다 마련하여 사용하기란 어려운 일이고, 대부분 일정한 품삯을 주고 벼베기를 하고 있다. 2006년 황계동의 경우에는 150평당 65,000원의 가격이 형성되었다.

논바닥이나 논둑에서 말린 벼는 타작하기 위해 집으로 운반해 왔다. 가장 재래적인 타작 방식은 벼단을 쥐고 넓적한 자연석에 내리침으로써 낱알을 떨어내는 것이다. 이와 같이 벼단을 내리치는 행위를 태질이라 하고, 자연석을 태돌이라고 부른다. 태돌 대신 통나무나 절구통을 뉘어놓고 사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벼훅(그네)을 이용하여 벼이삭을 훑는 방법도 있는데, 이는 소량의 벼를 탈곡하는 경우에 사용하였다. 이후 탈곡기가 보급되면서 타작이 훨씬 쉬워졌다. 탈곡기는 사람이 직접 발판을 이용하여 회전통을 돌리고 벼이삭을 회전통에 대어 낱알을 떨어내는 족답식 탈곡기에 이어서 경운기에 연결하여 기계를 돌리는 동력식 탈곡기로 발전하였다. 동력 탈곡기는 탈곡과 동시에 쪼정이거나 검불을 골라내고 알맹이만 한쪽으로 나오게 되어있어 이를 받기만 하면 되었다. 동력탈곡기의 등장은 종래 벼단을 집으로 옮겨 타작하는 방식을 들에서 타작하는 방식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앞서 기술한 대로 콤바인이 출현하여 벼베기에서 타작하는 과정을 한꺼번에 수행함으로써 벼단을 묶어 말리고, 운반하여 타작하는 일련의 작업이 필요 없게 되었다.

타작한 벼는 쪼정이나 검불 등 불순물을 골라낸 다음 햇볕에 널어서 말려야 한다. 제대로 마르지 않아 습기가 많은 벼를 그대로 저장하면 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타작을 하고 난 뒤에는 마당에 멍석을 깔고 벼 말리는 것이 농가의 주된 일이었다. 벼 말리기는 기계화로 인해 벼를 벨과 동시에 탈곡이 되어 나오는 근래의 경우에 있어서도 절대 필요한 과정이다. 이렇듯 벼를 말리는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변한 것이 없지만 전에는 멍석을 쓴 대신 요즘에는 천막같은 것을 깔고 말린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또한 점점 마당이 없어지는 주택 구조상 도로변을 이용하여 벼를 말리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 일부 농가에서는 건조기를 갖추고 벼를 말리기도 하지만 보편화되지는 않았다.

말린 벼는 보통 가마니에 넣어 공간이나 마루, 처마 밑에 쌓아두었다. 가마니는 1900년대 초에 일본에서 도입된 이래 1980년대 초반까지 사용된 저장용기로 한 가마의 용량

은 10말(180리터)이며, 쌀의 경우는 80kg이다. 그러다가 1980년대 들어 합성수지로 만든 마대(麻袋)가 등장하였는데, 지퍼가 있어 사용에 편리한데다 용량이 40kg들이여서 운반하기에도 간편하여 널리 보급되었다. 이에 따라 1980년대 후반 이후 가마니는 모습을 감추게 되었다.

그해 수확한 벼는 이듬해 햇곡이 나올 때까지 식량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시장에 내다 팔기도 하였다. 특히 식량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방아를 짚어야 했다. 방아짚기는 주로 부녀자의 몫이어서 여간 고충이 아니었다. 화산동에서 사용한 방아기구로는 절구·디딜방아·연자방아 등이었다. 절구는 집집마다 소량의 방아를 짚을 때 사용하였으며, 디딜방아는 많은 양의 벼를 짚는 데 이용되었다. 디딜방아는 일제강점기에 사용되었고, 이어 연자방아가 등장하였으나 한국전쟁 때 방앗간이 파괴되고 지금은 연자매만 남아있다.



디딜방아 확대



연자매

한편 농가에서는 수확이 끝난 후에도 한가로이 쉴 틈이 없었다. 겨우내 새끼를 꼬아 가마나 명석을 만들고, 논에 객토(客土)·거름 등을 넣는 등 이듬해 농사를 미리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3) 밭농사

화성지역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밭작물은 보리와 콩이다. 보리를 수확하고 나서 콩을 심고, 콩을 수확한 다음에 보리를 가는 식으로 이모작을 짓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였다. 특히 보리는 1960년대까지만 하여도 쌀 다음으로 중요한 곡물이었다. 그러나 쌀 생산은 획기적으로 증가한 반면 상대적으로 보리가격은 떨어지자 보리 재배를 기피하는 현상이 팽배해졌고, 이에 따라 1970년대 초반 이래 보리 재배면적이 급격히 감소

하게 되었다. 화산동에서도 보리농사는 자취를 감춘 지 오래 되어 농사를 짓는 방법 자체가 잊혀지고 있는 실정이다.

보리는 씨를 뿌리는 시기에 따라 겨울보리와 봄보리로 나뉜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겨울보리를 재배하며, 겨울에 보리가 얼어죽을 정도로 추운 지역에서는 봄보리를 재배한다. 대체로 보리는 10월 상순경에 씨를 뿌린다. 먼저 밭을 갈아 골을 탄 다음 밭고무래나 갈퀴 등으로 흙을 고르고, 퇴비를 뿌려서 편다. 그 위로 보리씨를 파종하고 다시 둔덕의 흙을 긁어서 덮어주면 된다. 파종한 보리는 입동(立冬) 전에 싹이 세 개 나와야 겨우내 얼어죽지 않는다고 믿었다.

겨울이 지나고 날이 풀리면 밭에 나가 보리밭기를 하였다. 이는 보리의 싹에 상처를 내어 웃자람을 억제하고 분얼(分蘖; 땅 속에 있는 마디에서 포기가 갈라져 나옴)을 촉진시키는 것은 물론 서릿발에 의해 흙과 보리가 솟아오르는 것을 막아 내한성(耐寒性)을 높여주는 효과를 얻기 위함이다. 따라서 이때는 아이들이 보리밭에서 뛰어놀아도 야단치지 않았다. 절기상으로는 입춘(立春)과 우수(雨水) 무렵이 된다. 또한 경칩(驚蟄)에 즈음해서는 보리의 뿌리 수를 헤아려 보리농사의 풍흉을 점치기도 하였다. 즉 보리를 뽑아 뿌리가 셋 이상이면 풍년, 둘은 평년작이며, 하나밖에 없으면 흉년이라고 내다보는 식이다.

보리 재배는 그다지 손이 많이 가지 않는 편이다. 싹이 어느 정도 자란 후 잡초를 제거하고 복토를 해주는 정도의 밭매기를 한 번 하면 수확 때까지 일거리가 거의 없다.

보리이삭이 누렇게 익으면 보리베기를 하는데, 시기상으로는 음력 5월 초순이 된다. 보리는 베는 즉시 묶어서 쌓아두었다가 모내기를 끝낸 후 타작한다. 보리를 타작하는 방식이나 흙·검불 등 불순물을 골라내는 일은 벼 탈곡하는 것과 거의 비슷하다. 콤바인 등장 이후에는 보리를 베고 타작하는 작업까지 기계로 수행하게 되었다.

콩은 보리와 더불어 대표적인 밭작물로서 보리농사가 거의 사라진 것과는 달리 콩 농사는 줄어드는 추세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재배되고 있다. 콩은 보리를 수확한 뒤 음력 5월 중순경에 심고, 보리를 심지 않는 밭에는 그보다 한 달여 앞서 심는다. 밭을 갈고 고른 다음에 콩 한 가지만 심는 경우도 있지만, 고추·옥수수·고구마·깨 등이 심어진 상태에서 사이사이에 심기도 한다. 또한 콩은 논둑·밭둑이나 비탈진 곳 등 어떤 곳에 심어도 잘 자랄 정도로 생명력이 강하다. 따라서 심어놓은 콩씨를 새가 파먹지 않도록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였다. 콩의 수확 시기는 대개 벼를 수확하는 시기와 맞물리거나 그 이후가 된다. 뿌리째 뽑으면 흙을 떨어내야 하기 때문에 대개 낫으로 콩대의 밑부분을 벤다. 벤 콩은 묶어서 집으로 옮긴 다음 한나절이나 하루쯤 마당에 널어 말린 후에 타작을 한다. 도리깨질을 하거나 부지깽이 정도의 막대기로 콩대를 두드려서 콩을 떨어내는데, 타작을 다하여 콩과 콩깍지·검불 등이 섞인 상태가 되면 한 군데로 쓸어

모은다. 이때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미리 멍석이나 포장을 깔고 그 위에서 타작을 하기도 한다. 불순물을 골라내기 위해서는 주로 키질을 하며, 최근에는 선풍기 바람을 이용하여 드리기도 한다. 현재 콩타작 기계가 시중에 보급되어 있기는 하지만 콩을 대량으로 재배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재래식으로 타작을 한다.



콩밭



타작을 하고 난 콩대

고추는 대부분의 농가에서 조금씩이라도 재배하고 있는 작물이다. 이는 고추가 양념의 주요한 품목으로서 식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예전에는 고추씨를 직접 밭에 뿌려서 재배하였지만 지금은 온실에서 싹을 내고 어느 정도 자라면 이식하는 방식을 쓴다. 고추는 고온성 채소이기 때문에 싹을 틔우기 위해서는 고온을 유지할 수 있는 비닐하우스를 이용한다. 1월 하순경에 고온 흙과 재 등을 섞어서 깔고 고추씨를 뿌린 다음 흙을 덮고 물을 준다. 요즘은 종묘가게에서 종자를 구입하면 싹을 틔우는 과정까지 처리해주기 때문에 훨씬 수월하다고 한다. 이때 온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비닐하우스 내에 못자리 만드는 것처럼 터널을 마련하고 비닐을 씌운다. 뿐만 아니라 기온이 내려가는 밤 동안에는 그 안에 전등을 켜고 두꺼운 거직으로 덮어두기도 한다. 싹이 트고 잎이 2~3개 나오면 한 그루씩 포트에 옮겨 심었다가 4월 하순에서 5월 초에 걸쳐 밭으로 아주 옮겨 심는다. 밭은 70cm 정도의 두둑을 만들고 비닐로 덮은 다음 30~40cm 간격으로 비닐을 뚫고 고추모종을 이식한다. 고추가 점점 자라면 일정하게 말뚝을 박고 줄을 매어 고추가 쓰러지지 않도록 해준다.

고추는 이식을 하고 한 달 가량 지나면 수확하기 시작한다. 화산동 지역에서는 경작면적이 그다지 넓지 않기 때문에 고추를 팔 때 품앗이를 하거나 일꾼을 사지는 않으며 각 가정 단위로 해결한다. 또한 수확한 고추는 스스로 소비하며, 시장에 내다 파는 경우는 드물다.



고추밭



수확 후 고추밭

이 밖의 밭작물로는 참깨 · 들깨 · 옥수수 · 팥 · 감자 · 고구마 · 오이 · 파 · 무 · 배추 등이 있으며, 이 또한 판매할 정도로 대량 재배하는 것은 찾아 볼 수 없고, 각 가정에서 소비하기 위해 소규모로 경작하는 정도이다. 반면 밀 · 수수 · 녹두 등은 1970년대 이후 재배면적이 급격히 감소하다가 1980년대 들어서는 거의 재배하지 않는 품목이며, 조 · 기장 · 메밀 등은 전통적으로 이 지역에서는 재배하지 않았다.

이상 화산동 지역의 밭농사 및 앞에서 살펴본 논농사를 포함하여 월별(양력) 농사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월 : 새끼 꼬기, 명석 찌기, 가마니 치기, 농기구 손질, 보리밭 오줌주기
- 2월 : 농기구 손질, 보리밭 오줌주기, 거름 장만, 논둑태우기, 객토하기
- 3월 : 논둑 가래질, 논갈이(봄갈이), 거름 내기, 벼씨 담그기, 못자리 준비,
보리밭 매기
- 4월 : 못자리 만들기, 보리밭 매기, 콩 · 고추 · 파 · 깨 · 호박 등 파종하기
- 5월 : 모내기, 거름 주기, 보리베기, 밭매기
- 6월 : 모내기, 농약 치기, 논둑 깎기, 피뽑기, 보리베기, 콩 심기
- 7월 : 논둑 깎기, 피뽑기, 논매기, 농약치기, 보리타작, 밭매기, 배추 · 무 씨뿌리기,
풀베기(퇴비)
- 8월 : 논둑 깎기, 피뽑기, 고추따기, 풀베기
- 9월 : 논둑 깎기, 피뽑기, 고추따기
- 10월 : 벼베기, 고추따기, 콩뽑기, 벼 · 콩 타작, 보리심기
- 11월 : 논갈이(갈갈이), 벼짚 태우기, 무 · 배추 뽑아 저장하기
- 12월 : 새끼 꼬기, 명석 찌기, 가마니 치기

(4) 농기구의 소멸

농기계의 발달에 따라 재래식 농기구가 점차 사라져 가고 있는 실정은 화산동 지역에 서도 마찬가지이다. 1980년대 이전에 풍구·씨레 등은 이미 자취를 감추었고, 지게·쟁기·가래·고무래·체·키·삼태기·갈퀴 등도 점차 사용빈도가 떨어지면서 창고 한 쪽에 틀어박혀 먼지를 뒤집어쓰고 있거나 아예 소멸해 가고 있다. 현재에도 사용되고 있는 농구로는 삽·괭이·호미·낫 정도이다. 또한 맷돌이나 절구 같은 생활사 자료도 거의 남아있지 않다. 이는 생활상의 급격한 변화에 가장 큰 요인이 있겠지만, 우리의 전통문화에 대한 애착이나 보존의 필요성 결여 때문에 초래된 결과로 보인다.

1) 쟁기

논이나 밭을 가는 데 쓰는 기구이다. 쟁기는 16세기에 잠기라는 이름으로 불렸고, 19세기 초에는 장기로 바뀌었으며, 쟁기로 불린 것은 20세기 들어와서이다. 쟁기는 소 한 마리로 끄는 호리와 두 마리로 끄는 겨리가 있는데, 호리쟁기가 일반적이다. 쟁기는 원래 말이나 소 등 가축이 끌기 마련이지만 마소가 없는 경우 또는 경사가 몹시 심한 비탈진 곳에서는 사람이 끌기도 한다. 최근 경운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쟁기로 발달한 데 이어 트랙터용 쟁기가 보급됨으로써 재래식 쟁기 사용은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재래식 쟁기



경운기용 쟁기

2) 가래

가래는 흙이나 거름 등을 떠서 던지는 우리나라 고유의 연장으로 통일신라시대부터 사용되어 왔으며, 『훈민정음해례(訓民正音解例)』에서는 ‘가래[鍬]’로, 『천일록(天一錄)』에서는 가내(可乃)로, 『해동농서(海東農書)』에서는 험(杓)으로 표기하고 있다. 가래는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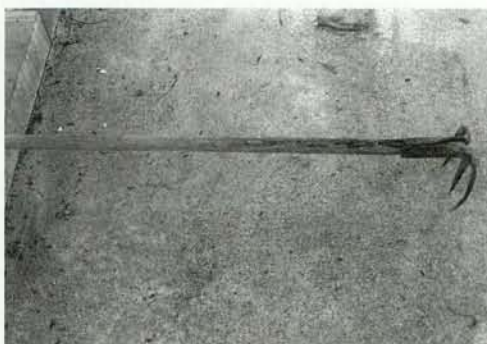


가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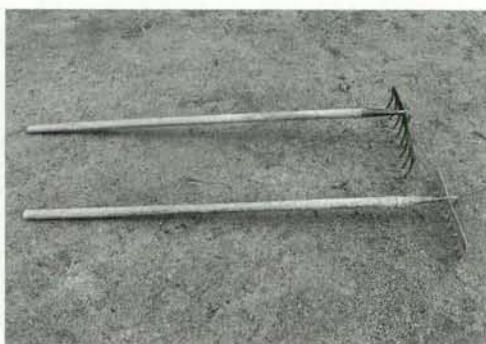
루와 몸이 하나가 되도록 나무를 깎고 넓적한 몸 끝에 말굽쇠 모양의 날을 끼운 형태로 날 양쪽에 구멍을 뚫거나 고리를 달아서 줄을 매도록 하였다. 도랑을 치거나 논둑을 수리하고, 흙을 떠서 던지는 데 주로 쓰이는데 흙을 떠서 던지는 일을 가래질이라 한다. 가래질을 하려면 자루잡이 한 사람과 좌우에서 줄을 당기는 줄꾼 두 사람으로 최소한 세 사람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처럼 가래질에는 3명·5명·7명 등 홀수의 사람이 필요하다. 가래는 여러 사람이 협동하여 장기간 일을 하는 데 유용한 기구로 세 사람이 하루에 600여 평의 땅을 고를 수 있었다.

3) 쇠스랑

땅을 파거나 흙덩이를 잘게 부수어 고르는 데 사용하며, 두엄을 쳐내고 퇴비를 긁어올리는 데에도 사용한다. 지역에 따라 쇠시랑·소시랑·소스랑·소스랑이·쇠서랑 등으로 불리며, 생김새는 팽이와 비슷하지만 끝에 날 대신 뾰족한 2~5개의 발이 달려있다. 따라서 팽이보다 날이 땅에 잘 박히기 때문에 굳은 땅을 파기에 효과적이다. 예전에는 땅을 파고 고르거나 씨앗을 뿌리고 나서 흙을 긁어 덮는 데 대부분 쇠스랑을 사용하였으나, 근래에는 서양에서 들어온 레이크(rake)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후 쇠스랑은 주로 외양간의 두엄을 쳐내는 데 쓰여왔다.



쇠스랑



레이크

레이크는 갈퀴나 쇠스랑, 고무래를 합쳐놓은 형태로 흙을 긁어서 고르는 것과 동시에 흙덩이도 부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쇠스랑보다 가볍고, 갈퀴에 비하여 튼튼하다는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어 종래 이들이 수행하던 작업을 대신하는 농기구로 정착되었다.

4) 거름대

삽과 쇠스랑을 합친 형태이다. 쇠스랑처럼 날이 3~4개로 갈라졌는데, 쇠스랑은 기억자 모양으로 굽었지만 거름대는 곧바로 뻗어있다. 생김새가 포크(fork)와 같아서 그냥 '포크'라고도 불린다. 예전에는 셋으로 갈라진 나무를 베어다가 말려서 사용했으나, 현재는 쇠날에 자르는 나무를 박은 형태로



거름대

공장에서 대량생산된다. 말이나 소를 기르는 집에서 외양간을 치울 때 쇠스랑과 더불어 반드시 필요한 연장이며, 퇴비나 두엄을 떠서 던지는 데는 쇠스랑보다 거름대가 훨씬 효과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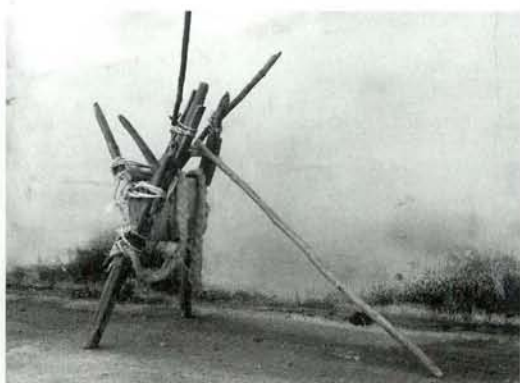
5) 지게

우리 민족이 발명한 가장 우수한 연장으로 평가되는 지게는 양 어깨에 멜빵을 걸어서 등에 지고 짐을 나르는 운반용구이다. 지게는 곡식을 나르는 것을 비롯하여 풀을 베어 오거나 땔나무를 해오는 등 크고 작은 온갖 짐을 운반하는 등 용도가 다양하다. 특히 수레나 소를 이용하기 곤란한 지대에서도 지게는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편리성 또한 뛰어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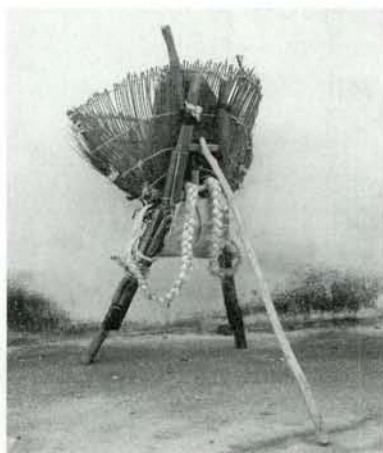
지게는 쓰는 사람의 키에 따라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아이지게 · 어른지게 등 한 집에도 여러 개의 지게가 있었다. 또한 지역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는데, 산간지역에서는 비탈에서 지기 쉽도록 목발이 짧고, 들에서 쓰는 지게는 목발이 긴 편이다. 그림에서처럼 지게뿔이 위로 길게 올라간 것은 뱃단이나 보릿단, 나뭇짐과 같이 부피가 큰 것을 나를 때 위로 많이 싣기 위해서 임시로 댄 것이다.

지게에 발채 또는 바소쿠리를 얹은 것을 바지게라고 부른다. 바소쿠리는 싸리나무나 대쪽을 엮어서 조개 모양으로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지게가지와 새고자리

에 고리를 걸어서 접혀지지 않도록 하여 사용한다. 바지게는 주로 흠어지기 쉬운 두엄이나 흙을 나를 때 또는 감자·고구마·무·배추 등 지계가지에 직접 걸치지 못하는 농산물을 운반할 때 사용한다.



지계



바지계

6) 거름지계와 거름통

거름지계는 물이나 분뇨를 운반하는 기구로 물지계 또는 똥지계라고도 불린다. 물을 운반하는 경우보다는 주로 분뇨를 운반하는데 사용한다. 긴 나무의 중간에 뿔뿔구조를 마련하고 양 끝에 거름통을 거는 갈고리를 매단 형태이며, 일반 지계와 달리 지겟가지나 목발이 없다. 분뇨를 거름통에 담은 다음 거름지계를 진 채 몸을 낮추어 양쪽 고리에 거름통을 걸고 일어서면 통이 들린다. 그리고 운반할 때는 양손으로 고리를 잡음으로써 거름통이 흔들거려 분뇨가 넘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지역에 따라서는 이때 거름통에 바가지를 얹는 경우도 있고, 지푸라기로 단을 만들어 담근 채 운반하기도 한다.



거름지계와 거름통

거름통은 분뇨를 담는 그릇으로 '똥통'이라고 한다. 과거에는 굵은 통나무를 속을 파내거나, 판자를 세워서 틈새가 없이 이어붙인 다음 칠이나 철사로 동여매고 밑은 막아서 썼다. 통의 크기는 20~30ℓ 정도가 보통이다. 근래에는 대체로 플라스틱이나 고무로 된 통을 쓰고 있다.

7) 삼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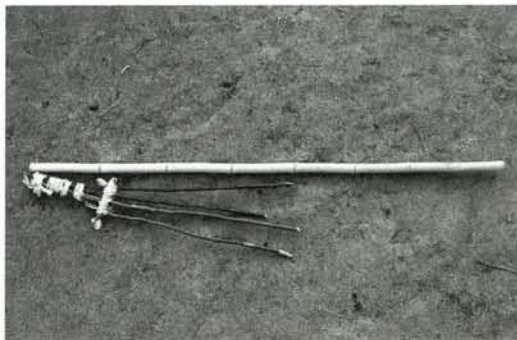
곡식이나 흙·여물 등 흠여지기 쉬운 물건을 담아 나르는 연장으로 두엄이나 재와 같은 거름을 담아 허리에 끼고 논밭에 뿌릴 때에도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짚을 엮어서 만들지만 싸리나무나 대쪽 혹은 시누대를 엮어 만들기도 한다. 삼태기의 구조는 바닥은 평평하고 앞은 넓고 낮으며 안쪽은 좁고 깊게 함으로써 물건을 담고 쓸기에 편리하도록 되어있다. 삼태기는 지방에 따라 삼태·삼태미·짚소쿠리라고도 불린다.



삼태기

요즘에도 삼태기는 농가에서 사용되고 있다. 다만 예전에는 짚이나 싸리로 삼태기를 직접 만들어 사용하였으나, 지금은 공장에서 생산되는 플라스틱 삼태기나 양철로 된 삼태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8) 도리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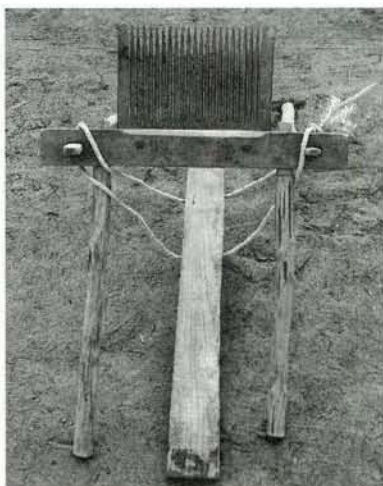
도리깨

보리·콩·깨·조 등의 이삭을 두드려 속에 있는 알곡을 떨어내는 데 사용하는 연장이다. 긴 손잡이자루 끝에 구멍을 뚫어서 도리깨꼭지를 끼우고, 그 꼭지에 도리깨아들을 매단 형태이다. 도리깨아들은 단단한 나무 회초리 3~4개를 끝이 벌어지도록 묶어서 만든다. 타작하는 방법은 마당에 곡식

을 널어놓고 도리깨자루를 양손으로 잡은 다음 높이 들어서 도리깨아들을 돌려 내리치는 과정을 반복하면 된다. 도리깨질은 힘든 작업이기 때문에 한 사람은 도리깨질을 하고 한 사람은 곡식을 메기는 작업을 하면서 서로 역할을 바꾸어가며 하기도 한다. 도리깨질로 한 사람이 하루에 2~3가마의 보리나 콩을 탈곡할 수 있다. 요즘에는 보리농사가 거의 없어진데다 농기계의 발달로 인해 도리깨로 타작하는 모습을 좀처럼 볼 수가 없는 데, 간혹 콩 타작에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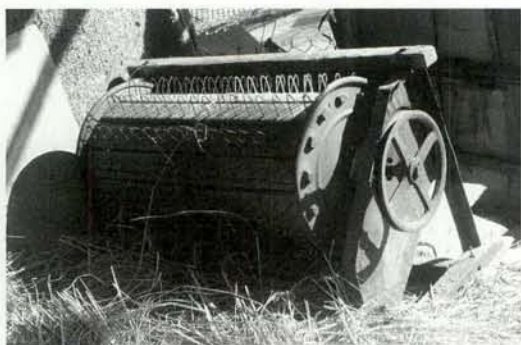
9) 그네

곡식의 알곡을 훑어내는 데 사용하는 용구로 벼훑이·홀태·침치·호리깨·베훑개·천치(千齒) 등으로도 불린다. 홀태는 손바닥만한 나무판자를 빗처럼 깎아서 만든 손홀태와, 집게 모양으로 된 가락홀태가 있어 그 사이에 이삭을 넣고 알곡을 훑어내는 방식인데, 그네는 손홀태에서 한층 발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진에서와 같이 길이 15~20cm 정도의 쇠로 된 빗살 20여 개를 박은 몸체를 다리 4개를 이용하여 고정시킨다. 그리고 작업 중에 틀이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양쪽에 줄을 매고 나무를 걸쳐 작업하는 사람이 한 발로 이것을 디디도록 한다. ‘그네’라는 이름은 그네와 같이 줄을 매어 쓰기 때문에 붙여진 것으로 추측된다. 이때 그네의 높이는 50cm 정도로 하여 사람이 허리를 숙여서 이삭을 빗살 사이에 끼우고 잡아당기는 데 알맞게 조정한다. 주로 여자들이 사용하며, 하루에 벼 5~6가마를 훑어낼 수 있다. 그네는 기존의 손홀태로 수확하는 양의 다섯 배에 달하는 작업능률을 가졌다고 하여 오인급(五人扱)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기도 하였다.



그네(벼훑이)

10) 족답식 탈곡기



족답식 탈곡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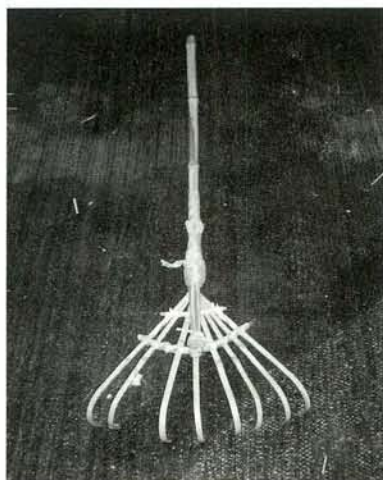
벼를 타작하는 기계로 1970년대에 주로 사용되었다. 나무로 된 몸체에 철사를 구부려 촘촘히 박은 회전통, 통을 돌려주는 발판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람이 발판을 밟아 회전통을 돌리면서 벼단을 잡고 회전통에 대면 통에 붙어있는 철사에 낱알이 부딪쳐서 탈곡이 된다. 태질을 하거나 홀태를 이용

하여 탈곡을 하던 방식에 비하면 획기적으로 발전한 형태지만, 검불이 많이 나오는 게 흠이었다. 대체로 2인용이 많이 보급되었는데, 타작을 할 때에는 탈곡기를 돌리며 벼를 떠는 두 사람을 비롯하여 양쪽에서 일정량의 벼단을 떼어 건네주는 사람, 짚다발을 묶

는 사람, 앞에서 갈퀴질을 하는 사람 등으로 분업을 하였다. 현재 황계동에 남아있는 탈곡기는 사람이 직접 발판을 돌리는 대신 모터를 이용하여 동력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개조한 것이다. 죽담식 탈곡기는 일명 ‘호룽기’로 불리는 게 일반적인데, 황계동에서는 ‘궁글통’이라 부른다. 원래는 벼 타작 전용으로 만들어졌으나, 지금은 콩을 타작하는 데 사용하며 서로 돌려가면서 쓰고 있다.

11) 갈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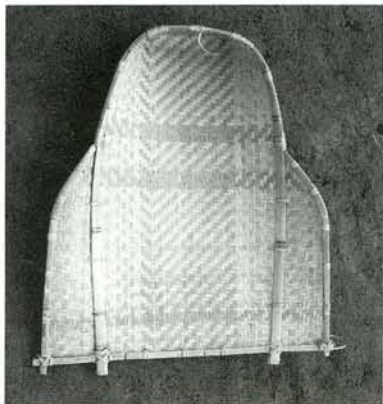
갈퀴는 타작할 때 검불을 긁어모으고, 보리를 파종할 때 이랑의 흙을 긁어 씨앗을 덮는 데 주로 사용하는 연장이다. 이밖에 겨울에 땔감을 하기 위해 산에서 솔잎을 모을 때에도 사용하며, 평소에는 마당과 집주변을 청소하는 데에도 필요한 도구이다. 갈퀴는 10개 내외의 갈퀴발을 만들어 부챗살처럼 펴서 1.5m 가량 되는 자루에 고정시키면 된다. 갈퀴의 발은 대나무로 만든 것이 일반적이고, 대나무가 없으면 물푸레 나무나 싸리나무로 만들기도 한다. 갈퀴는 지금도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대나무로 만든 갈퀴가 사라지는 대신 근래에는 플라스틱이나 철사로 만든 갈퀴가 생산되어 유통된다는 점에서 변화가 있을 뿐이다.



갈퀴(대나무)

12) 키

곡식 등을 까불러서 쪽정이나 검불을 걷어내는 데 사용하는 연장이다. 주로 대나무로 엮어 만들며, 고리버들이나 싸리로 만들기도 한다. 키의 구조에서 핵심은 양쪽에 붙은 날개이다. 키에 곡식을 담고 까부르면 양 옆 날개가 바람을 일으켜 가벼운 검불은 밖으로 날려보내고 곡식만 키에 떨어지도록 한다. 키질은 주로 여자들이 하는데 콩이나 팥 등을 수확할 때는 물론 방아를 찧을 때에도 키질이 필요하다. 또한 타



키

작을 한 후 키를 좌우로 휘둘러 바람을 일으킴으로써 검불이나 쪽정이를 날려보내기도 하는데, 이것을 나비질이라고 하며 이때는 남자 일꾼들이 키를 사용한다. 요즘에도 콩이나 팥, 깨 등 주로 밭작물을 수확하는 데 키를 사용하는 것을 간간히 볼 수 있다.

13) 명석

곡식을 널어서 말리는 데 사용하는 일종의 자리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장방형으로 만들며 원형으로 만든 것은 별도로 도래방석이라고 한다. 장방형의 경우 길이가 3.5~4m에 넓이 2m 내외인 것이 보통이며, 벼 한 가마니 정도를 널어 말릴 수 있다. 명석을 만드는 방법은 새끼로 여러 개의 날을 세우고 그



명석

사이를 짚으로 엮어나가는데, 명석 하나를 완성하려면 보통 일주일 정도 걸린다. 명석은 곡식을 널어서 말리는 것 외에 집안에 큰일이 있을 때에는 마당에 펴고 손님을 받는 자리로도 쓰였다. 그리고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돌돌 말아서 공간 한 쪽에 쌓아놓거나 처마에 매달아 놓았다. 현재 농가에서 명석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더러 볼 수 있지만 거의 사용하지는 않는다. 지금도 수확한 벼를 말리는 데는 건조기를 사용하는 것보다 햇볕에 말리는 경우가 많아 명석의 필요성은 여전하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가볍고 편리한 천막형태의 자리가 보급됨으로써 짚으로 만든 명석은 점차 사라져 가고 있다.

14) 고무래

곡식을 말리는 데 있어 퍼서 널거나 모으고 뒤적일 때 사용하는 기구이다. 대개 직사각형이나 반달형의 널빤지에 자루를 박아 만드는데 고무래 정(丁)자의 형태를 이룬다. 규모가 작은 것은 '고래당 그래'라 하여 아궁이의 재를 긁어내는 데 사용하기도 한다. 지금도



고무래

수확이 끝나면 마당이나 도로에 곡식을 널고 고무래로 뒤적이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다만 재래식 고무래 대신 합판조각으로 만든 고무래가 쓰이고 있다. 지역에 따라서는 고무래에 여러 개의 발을 달아 논밭의 흙을 고르거나 씨를 뿌리고 흙을 덮는 데에도 사용하는데, 이를 발고무래라 한다.

15) 맷돌



맷돌

곡식을 압착하여 껍질을 까거나 빵을 데 사용하는 연장이다. 바닥이 평평한 두 개의 둥글넓적한 돌을 포개어 만드는데, 윗돌 가운데에 있는 암쇠를 아랫돌 가운데의 중쇠에 끼워서 맷돌을 돌릴 때 벗어나지 않게 한다. 윗돌에는 곡식이 들어가는 구멍과, 손잡이(어치구니)를 박는 홈이 있다. 윗돌과 아

랫돌이 접하는 면을 쪼아내어 곡식이 잘 갈리도록 하는데, 현무암으로 만들면 표면이 거칠어서 쪼아낼 필요가 없다. 맷돌의 크기는 다양하여 작은 것은 지름이 20cm인 것도 있고, 대규모 사찰에서 사용한 것은 1m가 넘는 것도 있지만 일반 가정에서 사용한 것은 보통 지름이 30cm 내외이다. 마른 곡식을 갈 때는 맷돌을 맷방석에 올려놓고 사용하며, 젖은 곡식을 갈 때는 함지 위에 맷다리를 걸치고 그 위에 맷돌을 놓는다. 작은 맷돌은 혼자 돌리기도 하지만 큰 맷돌은 둘이 마주앉아 손잡이를 같이 잡고 돌린다. 보통의 맷돌로 한 시간에 5리터의 콩을 갈 수 있다.

16) 절구

곡식을 찧거나 빵을 데 사용하는 이른바 1~2인용 방아이다. 절구는 만드는 재료에 따라 나무절구·돌절구·쇠절구가 있다. 나무절구의 경우 주로 소나무를 사용하며, 곡식이 잘 찧어지도록 바닥 움푹한 곳에 쇠판을 박아 사용하기도 한다. 쇠절구는 나무절구나 돌절구에 비해 규모가 작으며 주로 양념을 다지는 데 쓴다.



돌절구

절구의 크기는 대략 60cm~1m이며, 지름은 작은 것은 30cm에서 큰 것은 1m에 이르는 것도 있다. 절구질은 주로 한 사람이 하는데, 일감이 많을 때는 두 사람이 마주 서서 하기도 한다. 한 사람이 하루에 쌀 한 가마니를 찧을 수 있다고 한다. 절구는 곡식을 찧거나 찧는 것 외에도 때를 빼기 위해 빨래를 절구에 넣고 찧기도 하였다. 또 타작하는 데에도 사용되었는데, 절구통을 뉘어놓고 그 위에 태질을 하는 방식으로 곡식을 털기도 하였다.

17) 체

곡식의 가루를 곱게 치거나 액체를 걸러내는 데 쓰는 기구로서 쳇바퀴·아들바퀴·쳇불로 이루어진다. 쳇바퀴는 체의 몸이 되는 부분으로 얇게 켜 나무를 둥글게 말아서 만든 원통형을 말하고, 아들바퀴는 쳇바퀴 안쪽으로 들어가는 바퀴이며, 쳇불은 쳇바퀴에 매어 있는 그물망을 가리킨다. 체는 쳇



체

불의 구멍 크기에 따라 어레미·도드미·중거리·가루체·고운체 등으로 나뉜다. 어레미는 구멍의 길이가 3mm정도 되어 콩이나 팥처럼 낱알이 큰 곡식을 선별할 때 사용하고, 중거리는 구멍이 1~2mm로서 깨를 선별할 때 쓰며, 고운체는 구멍이 0.5mm 이하로서 액체를 내릴 때 주로 사용한다. 쳇불의 재료도 달라서 어레미는 철사로 만들고, 중거리나 가루체는 말총·모시를 쓰며 고운체에는 삼베나 명주 등 포백(布帛)을 사용한다.

18) 손수레

리어카(rear car)라고도 하며, 사람이 끌도록 만든 수레이다. 구조는 짐을 싣는 직육면체의 몸체에 바퀴를 양쪽에 달고, 앞에는 'ㄷ'자 모양의 손잡이를 붙인 형태이다. 온갖 곡식의 운반은 물론 두엄을 치거나 딸나무를 해울 때 등



손수레

다양하게 이용되었다. 손수레는 지게보다 많은 짐을 실을 수 있는데다 소가 끄는 달구지에 비해 훨씬 간편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점차 그들의 기능을 대신하게 되었다. 수레가 다닐 만한 길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 점과 브레이크 기능이 없는 게 흠이지만 기동성이 탁월하여 1970년대 이후에는 대부분의 농가에서 사용하게 된 것이다. 최근에는 경운기의 등장으로 인해 예전처럼 많이 사용하지는 않지만 간단한 짐을 옮길 때에는 여전히 손수레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5) 맷음말

이상 황계동을 중심으로 하여 전통적으로 농사짓는 방식 및 변화하는 모습과 사라져가는 농기구에 대해 살펴보았다.

앞에서 본 대로 농기구의 발달 등에 기인한 농사기술의 변화는 재래식 농기구의 소멸뿐 아니라 사람들의 생활양식이나 의식구조, 세시풍속, 노동형태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다.

예전에는 모내기·김매기·벼베기·탈곡 등을 두레나 품앗이를 통한 공동작업으로 해결하였다. 그러나 요즘은 논갈이에서부터 모내기, 풀베기, 물대기, 거름주기, 병충해방제, 탈곡, 건조에 이르기까지 기계를 이용하여 수행하고 있다. 즉 오늘날의 농사는 한 가구를 단위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두레나 품앗이 형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에 따라 마을 사람들의 공동체의식이 와해되고, 농약대의 풍물이나 두레싸움, 호미씻기와 같은 풍속이 맥을 잊지 못하게 된 것은 아쉬운 일이다.

반면 편리해진 면도 있다. 뭐니뭐니 해도 과거에 비해 농사짓기가 힘이 덜 든다는 점이다. 노동력을 계량화하여 정확한 수치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어떤 사람은 예전보다 5분의 1은 줄어들었다고 느끼기도 하고, 심지어는 “전에 농사짓던 걸 생각하면 지금은 누워 떡먹기다.”라고 말하기도 한다. 과거에는 농사를 짓는 동안 하루도 쉴 틈이 없었다. 씨를 뿌리고 수확을 하기까지는 말할 것도 없고, 겨울철에도 새끼를 꼬거나 가마니를 짜며 다음해 농사를 준비해야 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은 기계를 이용함으로써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다. 특히 수확을 하고 나면 두세 달 동안의 여유로움이 주어진다. 이처럼 농사기술의 발달로 인해 여가시간이 많아지고 경제적으로 윤택해지면서 한결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편 현재 화산동(주로 황계동)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들은 평생을 땅과 같이하였고, 또 앞으로도 같이할 사람들이다. 산업화·도시화에 따라 농지가 감소하고 젊은 층이 농촌을 떠나는

중에도, 이어 우루과이라운드(Uruguay Round) 협상과 세계무역기구(WTO)의 협정에 따른 농산물 개방의 위기 속에서도 땅을 굳건히 지켜왔다. '평생 농사를 지어왔고, 다른 건 할 게 없으니까……'라는 자조 섞인 농담을 내뱉지만, 거꾸로 보면 태어나고 자란 땅에 대한 애착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사람은 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의식 또한 변함이 없다. 적어도 이들에게는 여전히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인 것이다.

〈도움주신 분들〉

최재만(황계동 159-17)

장병태(황계동 183)

최종익(황계동 183-25)

〈참고문헌〉

『삼국사기(三國史記)』

『고려사(高麗史)』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경기도지편찬위원회, 『경기도지』, 1957.

김광언, 『한국 농기구고』, 백산자료원, 1986.

한국무속박물관, 『조선의 재래농구』, 이가책, 1995.

화성문화원, 『화성 남양마을지』, 1999.

경기도박물관, 『경기민속지 I -개관편-』, 1998.

박호석·안승모, 『한국의 농기구』, 어문각, 2001.

경기도박물관, 『경기민속지 VI -생업기술·공예-』, 2003.

경기도박물관, 『경기도 3대 하천유역 종합학술조사 3 -안성천-』, 2003.

김재호, 『우리네 농사연장』, 소나무, 2004.

화성시사편찬위원회, 『화성시사』, 2005.

화성시·한국토지공사토지박물관, 『화성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2006.

2. 터줏대감의 하루와 평생

이 상 열(경기지역사연구소 연구원)

국어사전에서 ‘터줏대감’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대체로 이렇게 적혀 있다. “한 집단의 구성원 가운데 가장 오래된 사람.” 한 집단이란 특정 지연공동체가 될 수도 있고, 특정 단체나 학교, 회사가 될 수도 있다. 여기서 다루어야 할 집단은 당연히 화산동의 여러 마을에 거주하는 지연공동체이다. 그렇다면 그러한 지연공동체의 터줏대감을 선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은 ‘가장 오래된’이어야 한다. 이것이 ‘가장 나이가 많은’이라는 뜻인지, 아니면 ‘가장 오랫동안 살아 온’이라는 뜻인지는 다소 모호하지만, 그 마을에서 대대로 뿌리를 내리고 살아온 토박이 가운데 가장 연장자를 터줏대감이라고 규정하면 무리는 없을 듯하다.

이 글에서는 각 마을의 노인정에서 좌장 역할을 담당하는 주민 가운데 그 마을에서 몇 대, 최소한 3대 100여 년은 살아왔다고 하는 분을 터줏대감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특별한 인생을 살았거나 지역에서 유지로 통하는 주민보다는 그냥 묵묵히 고향을 지키며 살아온 분들을 선정하고자 했다.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터줏대감이 아닐까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준 하에 송산동·안녕동·황계동에서 각 한 분을 선정하여 면담하며 그들이 살아온 이야기를 듣고자 했으나 조사과정에서 한 분이 “나는 내세울 게 없다.”며 지면에 자신의 인생이 실리는 것을 극구 사양하여, 최종적으로 안녕동에서 유경호翁을, 황계동에서 박영철翁을 터줏대감으로 선정하여 그들이 살아온 일생을 정리하게 되었다. 두 분을 비롯한 가족의 이름은 제보자들의 요청에 의해 가명으로 처리하였음을 밝혀둔다.

유경호翁은 2007년 현재 84세로, 안녕동 새터말에서 나고 자라서 현재도 그곳에 살고 있는 토박이며, 박영철翁은 80세로, 황계동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이다. 두 분 모두 아직은 정정한 편이지만, 지난 수십 년간 뒤돌아 볼 여유 없이 살아왔기에 잘 기억하지 못하는 기간도 많았고, 기억을 하더라도 체계적이지는 못했다. 그래서 몇 차례 동일한 이야기를 거듭하면서 대략적인 시기를 확인하였다. 이 글에서는 그렇게 확인한 두 분의 일생을 연대기적으로 기술하였다. 다만, 80년 넘는 삶을 짧은 지면에 담기란 한계가 있기에 살아오면서 중요하게 기억하는 일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1) 안녕동 새터말 터줏대감 유경호 옹의 삶

1) 새터말에서 5남매의 넷째로 태어나다

유경호 옹, 그는 거창 유씨로 안녕리 새터말에서 나고 자라서 지금껏 살고 있는 토박이이다. 새터말의 지명은 일본인이 정착하면서 새로 형성된 마을이라고 해서 붙여졌다. 안녕리 1통 노인정에서 그를 처음 만나 살아온 삶에 대해 들려달라고 부탁하자 그가 꺼낸 말은 “손주들이 학교 땀길 적에 ‘할아버지 그전에 어떻게 어떻게 살았고 군대 어떻게 갔다 오고 (이야기)해 달라.’ 그런데 죄 깜깜해서 잊어버렸어. 안나와요, 생각이 안나와요.”였다. 오랜 세월 뒤돌아 볼 새 없이 살아왔으니 어찌면 당연한 일인 듯싶다. 그리고 그는 조금씩 자신이 살아온 삶을 들려주기 시작했다.



노인회원들과 함께한 유경호 옹(맨 우측)

그는 자신의 집안이 언제 안녕리에 입향했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한다. 다만 늦어도 자신의 할아버지대부터는 이곳에 살았다는 정도로만 알고 있을 뿐이다. 일제강점기에는 안녕리 일대에 이씨·최씨·안씨 등의 성씨가 다른 성씨에 비해서는 많은 편이었다. 자신의 일가도 열댓 호 정도 되었기에 적은 편은 아니었다고 한다. 그의 아버지 형제들도 일찍 작고하였고, 집안의 젊은 층도 외지로 나가서 현재는 몇 집 남지 않았다. 같은 파에 속하는 일가와와는 자주 만나지 못하지만, 오산시 내삼미동 소재 유엔군초전비 밑에 그로부터 8대조의 묘를 비롯한 선조들의 묘가 있어 매년 음력 시월 보름에 시향을 지내는데, 그때면 다 만날 수 있다고 한다.

그는 1924년에 아버지 유정록과 어머니 한정숙 사이에서 넷째로 태어났다. 그의 어머니

나는 동탄면 창기리에서 이곳으로 시집와서 5남매를 낳았다. 그의 형제 중에서 셋은 일찍 작고했는데, 바로 위의 형은 한국전쟁 때 국민방위군으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부황이 들어 젊은 나이에 유명을 달리하였다. 당시에는 국민방위군으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부황으로 인해 죽는 이들이 부지기수였다. 워낙 혹독하게 고생하고 굶주렸기 때문이다. 그의 여동생도 그 무렵 작고하였다. 그의 형제 중 만이도 그가 기억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일찍 작고했는데, 당시는 아이들이 어린 나이에 죽은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때였다. 그래서 실제보다 늦게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그도 역시 실제보다 3개월 늦게 출생신고가 되었다.

그전에 옛날에는 지금은 약이 좋으니깐 예방도 하고, 뭐 병이 나면 주사도 맞고 저거 하지만, 그때는 주사고 뭐고 거시기가 없거든. 그때는 출생신고를 늦게 해요 출산을 하면은, 그래 홍역 같은 거 심하거든. 그러니까 출산이 그땐 십여 년 차이 되는 사람도 있는 걸.

그의 아버지는 새터말에 살면서 농사를 지었다. 농토가 넓지는 않았지만, 열댓 마지기 정도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 당시 화산동에는 천석지기 주민도 있었다고 한다. 그런 예와 비교할 수 없는 노릇이지만, 자신의 농토를 가진 주민도 별로 없고, 용주사나 동양척식회사 소유의 땅을 소작하던 주민이 태반이었던 시절이니 그의 집은 부자라는 소리는 듣지 못해도 먹고살만하다는 소리는 듣는 정도였다. 또한 다른 집들과 마찬가지로 그의 집에서도 동양척식회사 소유의 논도 일부 소작하였는데, 거기서 소작한 벼는 매년 추수 후에 잘 말려서 공판장에 가져가야 했다. 그런데 그 일이 여간 번거롭지 않았다. 말린 벼의 근량을 재어서 등급을 매기고,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다시 가져다가 말리기를 반복해야 했다고 한다.

또한 당시 그의 집에서는 소도 한 마리 소유하고 있었다. 소를 키우던 집이 많지 않던 시절이니 농사철이면 다른 집에 소를 빌려주는 일도 자주 있었다. 농기계가 보급되기 전에는 소를 빌려간 사람은 하루를 빌리면 소 주인에게 하루 동안 일을 해주었고, 소와 사람이 같이 일을 도와주면 두 사람이 와서 일을 하거나 이를 동안 일을 했다. 또한 당시에는 쌀 한 말을 빌리고 이를 갚으려면 사흘 동안 일을 해주었다고 한다.

쌀 한 말 갖다 먹는다 하면 일을 세 개씩 했어. 삼일을 갖다 했어 쌀 한 말에. 그래 지금은 일당을 품을 팔면은 쌀 두 말 서 말은 팔어. 그러니 그땐 일이 얼마나 억울해. 그래도 배는 고프고 먹어야 할 테니 어떡해. 셋 아니라 넷, 다섯을 해 달래도 가서 해줘야지. 우리네 젊을 때가 고생이 제일 많았어.

2) 소년 시절 안녕리에 대한 기억의 편린들

일제강점기 안녕리는 일본인이 정착하여 살았기 때문에 일찍부터 전기가 가설되었다. 당시 이곳에 정착한 일본인의 대부분은 농사꾼이었는데, 논농사를 중심으로 하면서 좀더 여유가 있는 이들은 밭에 뽕나무를 심었다. 유경호 옹의 기억으로는 이곳에 둥지를 틀었던 일본인도 그다지 부유한 편은 아니었다. 그러나 한국인들에 비해서는 기름지고 넓은 농토를 소유했다. 그들은 새로운 벼 품종을 도입하고 진일보한 농사기술을 선보였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줄모였다. 줄모는 못줄을 대고 줄을 맞춰 반듯이 심는 모를 말한다. 당시 한국인들은 주로 허튼모심기를 하였는데, 일본인들이 줄모심기를 하면서 이것이 널리 보급되었다.

줄도 띠고 그냥두 꽃고 그냥. 줄 띠는 거는 왜놈들이 와가지고는 줄 띠기 시작한 거죠. 그전에는 그냥 막 쪽 늘어서서 그냥 심귀 나오는 거죠. 뒤로 나가며 심귀나가지는 거지 뭐. 줄도 안맞추고 그냥 칸 거리만 대충 맞춰가지고 꽃고 그랬어요. 그래서 줄은 안맞쥬. 여기서도 꽃히고 여기서도 꽃히고 사방 꽃히니까, 간격만 맞추는 거야.

유경호 옹이 어린 시절에는 안녕리에서 매년 줄다리기도 벌어졌다. 그는 줄다리기를 한 시기가 정확히 언제쯤인지는 기억하지 못했지만, 농사를 끝내고 해를 넘기기 전에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지금의 동사무소 앞 도로가 당시에는 주도로였기에 그곳에서 옷말과 아랫말로 나뉘어 줄을 당겼다. 마을사람들이 모여 암줄과 숫줄을 만든 후 숫줄을 암줄에 넣고 비녀장목을 끼워서 빠지지 않게 하여 다리는 양줄다리기였다. 줄의 굵기는 아이들 팔로 한 아름 정도였는데, 결줄은 없었다고 한다. 그렇게 줄을 다리는 날이면 마을의 모든 주민이 한데 모여서 밤새워 풍물로 흥을 돋우며 마을잔치를 벌였다. 이렇듯 공동체문화의 소산인 줄다리기도 일제강점기의 어느 땐가부터 단절되었다고 한다.

또한 지금은 사라진 두레노동도 그 시절에는 매우 활발했다. 안녕리의 두레는 광복 후부터 한국전쟁기를 거치면서 흐지부지해지다가 이내 사라지게 되었다. 사회적으로 혼란하고 좌우익간 다툼도 심해서 공동노동으로서 두레를 유지하기 어려웠고, 뒤를 이어서 두레를 계승해갈 사람들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일제강점기에는 인근 동리에서 안녕1리의 두레가 가장 크고 셤었다고 기억한다. 그리고 여름철 김매기를 할 때면 다른 마을의 두레와 깃대싸움을 하는 일도 종종 벌어졌다.

두레는 동네마다 다 있었어요. 그리고선 여름이면 들일을 하러 가는데, 논 매고 뭐 하

고 그럴 적에는 두레 꾸들기고 땡기고 이렇게 했었죠……. 논 땡 적에 가령 여기가 안녕리 아니에요. 저 들 건너가 양산동이거든요. 그 사람들허구 인제 싸움을 하려면은 양쪽에서 북을 쳐요. 신호를 보낸다구. 그래 저기서 신호를 안받구 무시하면 쫓아가서 장대, 저 땡틸 이렇게 긴 거 있잖아요. 그걸 뽑아들고 이리고, 그러면 이기는 거구.

한편 일제강점기 말기로 오면서 전쟁물자 보급을 위한 공출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다. 특히 안녕리 일대에서는 “하여간 좋은 나무는 그놈들이 다 베어 먹었어.”라는 유경호 옹의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름답리나무들이 배에 쓰일 재목으로 잘려나갔다. 당시에는 용주사 뒤편, 현 남수원골프장이 들어선 골짜기를 용이 나서 올라갔다고 하여 ‘용난굴’이라고 불렀는데, 그 일대의 소나무 숲이 매우 좋았으나 그렇게 나무가 잘려나가면서 울창하던 숲이 파괴되었다. 그곳은 또한 보릿고개 때 송기를 벗겨내기 위해서 마을 주민들이 즐겨 찾던 곳이기도 했다. 그렇게 보릿고개를 어렵게 넘기고, 일년 내내 농사라고 지어 봐야 한 마지기에 벼로 서너 가마, 쌀로 따지면 많아야 두 가마 정도밖에 생산하지 못했는데, 그것마저 공출로 빼앗겼으니 일년 나기의 어려움이 이루 말할 수 없었던 때가 그 시절이었다.

또 쌀 나오면 인제 그걸 공출 바치믄은 남는 거 이제 먹구. 그래 떨어지는 게 별로 없죠. 갠실히 먹는 사람은 먹고 모자라는 사람은 모자라고. 남아서 내 논도 있고 그런 사람은 넉넉하고.

백오십 평 한 마지기에 몇 근이다 이렇게 기별을 해. 그러면 그거 내가고 남으면 별로 떨어지는 게 없어요. 일 년 농사지으면 많이 짓는 사람이나 일 년 농사 겨우 대먹고 그랬거든.

3) 공부 체질이 아닌가 봐요

유경호 옹 연배의 노년층이 대체로 그렇듯 그도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다. 그가 교육을 받은 것이라고는 강습소에서 3년 정도 배운 것이 전부이다. 그것도 학교 갈 나이를 꽤 지난 열서너 살 무렵의 일이다. 그는 용주사에 있던 강습소에도 잠시 다닌 적이 있으나, 그가 3년을 다닌 강습소는 세마대 밑에 있었고, 같은 마을에 사는 친구 두 명과 함께 다녔다. 그곳에서는 교사 한 명이 주변 마을에서 찾아든 청소년들을 가르쳤고, 교실이라고 해야 다섯 평 남짓한 규모였다고 한다. 당시에는 일제가 창씨개명을 강요하던 시기였는데, 당시 그의 성도 요시모토로 바꾸었다. 또한 우리말을 쓰지 못하게 하고, 학

교에서도 우리말을 쓰다가 들키면 별점을 매겨서 벌을 주었다. 그도 그런 일로 꽤나 벌을 받았다고 한다.

강습 땀길 적에도 일본놈덜이 순행을 돌아요. 몰래 인제 암행어사 모냥. 근데 왜 도느냐 하면, 그때 당시엔 학교에서 카드를 했었어요. 일본말 쓰라고. 그거 없시면은 순찰당기다가, 별안간 오니깐 몰르잖아. 조선말 쓰다가 걸리면은 선생들 꾸지람 맞구, “왜 일본말 거시기하고 안 쓰느냐.”고. 둘이 조선말 쓰면 카드 하나 뺏고, 선생한테 기합도 받구. 근데 그게 쉬워요 아무케도 조선말 쓰지.

그러나 그는 3년을 넘기지 못하고 강습소를 그만두고 말았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은 부끄러운 듯 웃음지으며 “공부 체질이 아닌가 봐요.”라고 말한 후 “위낙 살기 어려워서”라는 말을 덧붙였다. 그의 말처럼 당시는 위낙 살기 어려웠고, 교육에 대한 관심도 지금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적었던 시절이었다. 그러니 많이 배우지 못하는 것이 당연할 법도 한데, 그것을 부끄러운 듯 말하는 그의 모습에서 어려운 시절을 견뎌온 분들의 애환을 느끼게 된다.

유경호 옹은 강습소를 그만둔 후 취직을 하자는 친구의 권유로 용산철도국에 시험을 쳐서 합격했다. 그는 그곳에서 기차 화통을 닦는 일을 담당했다. 당시에는 철도국에 근무하다가 시험을 쳐서 기관사가 되는 길도 있었는데, 그는 많이 배우지도 못했기에 그런 꿈은 꾸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기도 그만두고 말았다.

친구가 “우리 저 어디 시험이나 치러가자.”고 왜정 때. 그때도 왜정 때예요. 가니까 어떻게 철도국에, 용산철도국에 거기서 시험을 쳐서. 일본말을 제대로 해요. 뭐 배운 거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합격이 됐어요. 여간 뺏 가지고는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그런데 사람이 딸리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래도 합격했어요 두 놈 다. 아, 이랬는데, 저녁에 시마이 끝나구서, 일 끝나구서는 우리 씻는 데, 처음이니까는 몰르지 뭐야. 그래니깐 사람들 쫓아가서 찬물에 얼굴 조금 씻구. 집에 와서 보면 그냥 솟점정이 얼굴에 이런 데 새까매서 지워지질 않아.

철도국을 그만 둔 그는 잠시 집에서 농사를 짓다가 다시 안양에 있던 조선직물주식회사에 취직을 하였다. 이 회사에서는 2~3년 정도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근무했는데, 그만 사고를 당하고 말았다. 직물기계에 오른쪽 바지가 물려 들어가면서 정강이 부위의 살점이 크게 떨어져 나간 것이다. 지금도 그 상처는 지워지지 않고 남아 있다. 그는 다리에 입은 부상으로 회사를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와 요양을 하다가 징병을 당했다.

4) 기차 타고 배 타고 제주도로 징병을 가다

유경호 옹은 일제강점기 말부터 한국전쟁기까지 청년기를 보냈다. 그 당시 그의 포레에서는 일제강점기에 징병에 끌려가고 한국전쟁 때 다시 군대에 끌려간 사람이 적지 않았는데, 그도 그렇게 두 번이나 군대에 갔다. 그가 징병을 간 해는 1944년도였다. 안녕리에 살던 동갑내기 친구 한 사람과 함께였다. 두 사람은 대항교리에 있던 안룡국민학교로 가서 그곳에 모인 안룡면 지역 징병자들과 합류했고, 그들과 함께 다시 수원으로 이동해서 그곳에 모인 수원 일대 징병자들과 함께 기차를 타고 여수로 이동했다. 그 과정에서 도망치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그들은 여수에서 다시 배를 탔는데, 그렇게 해서 최종 도착한 곳이 제주도였다.

그러니까 징병하면 학교로 모이죠 면단위로, 면이루. 지금 비행장, 황계리에서 수원으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뭐인가 둘다리라고 있어요. 냇가, 냇가. 냇가 고 옆에 가서 면이 있었어. 고 건너서 왜정 때. 그때 이 동네에서 둘이 갔었죠. 뭐 계속 나가는 거니까……. 수원 가서 일단 또 피니게. 거기서 쪽 여수까지 갔었어요. 여수까지 가서 내려서 배 타고 제주도로 들어갔지.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일제는 미군에 계속 패퇴하게 되자 제주도를 일본 본토를 사수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 설정하고 만주의 관동군을 비롯해서 한반도 각지에서 징병한 병사들을 제주도에 배치했다. 그는 제주도에 도착하여 항구에 배치를 받고 그곳에서 화물 하역을 담당하게 되었다. 제주도에 있던 기간에는 직접적인 전투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미군 전투기가 기관총을 난사하던 모습은 지금도 뇌리에서 잊히지 않는다고 한다.

그때 우리 있을 적에, 우리가 한번 저 빼이십구, 빼이십구한테 습격 한번 당했어. 왜 그러냐면 우리가 거기서 인저 항구가 가서 배 군수물자 이걸 실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날은, 날씨는 인제 잊어버렸어, 며칠날 그랬는지. 하루는 쉬는 날인데, 왜놈들이 살바 매고 서는 왜 이렇게 쥐고서는 씨름 있잖아요. 그거 쉬는 날 했었어요 학교 마당에서. 그런데 그냥 별안간에 난데없이 그냥, 비행기 소리도 안 났어요. 근데 빼이십구래니께 알지, 뭐 우리네가 빼이십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그러고선 소리도 없이 이렇게 날아가면서 뺨 둘러서 높은 녀들 의자들을 갖다 놓고 뺨 둘러 앉았구, 병정들 씨름하고 그러는데, 별안간에 기관단총을 그냥 '따라라라라' 쏘면서 올라가잖어. 그래 핵교 운동장에 담이 이렇게 있시면은 거기에 말을 몇 필 놔뒀는데, 말 하나가 맞아서 죽구, 그리고 사람 다친 거는 없거든요, 사람은 안 다쳤어.

제주도에서 부두 하역 작업에 동원되던 그는 광복이 되면서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 돌아올 때는 갈 때와는 달리 배를 타고 목포로 와서 그곳에서 기차를 타고 돌아왔다. 다행히 그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지만, 만주나 일본 쪽으로 징용이나 징병을 갔던 친구 중에는 생사를 알길 없는 이들도 있다고 한다.

그는 광복 후에는 고향에서 아버지를 도와 농사를 지으며 살다가 1947년 추수가 끝나고 그해 겨울에 안녕리 출신의 정정혜 씨를 천생배필로 맞았다. 그는 나이 스물네 살이었고, 아내는 그보다 여섯 살이 적었다. 그 전부터 두 사람은 한 동네에 살았기에 서로 얼굴은 알고 있던 사이였는데, 그녀의 작은어머니가 중매하여 혼례를 치르게 된 것이다. 혼례식은 전통혼례로 치렀는데, 가마와 혼례복은 마을에서 공동으로 마련했던 것을 사용했다. 그는 혼례 날에 현 태안농협 안녕지점 부근에 잘 아는 집이 하나 있어서 그 집 사랑방에서 혼례복으로 갈아 입고 가마를 타고 신부집으로 갔다. 하지만 처가도 안녕리에 있었기에 100여 미터 정도 가마를 탔을 뿐이다. 그리고 신부집에서 대례상을 차리고 격식을 갖춰서 혼례를 치른 후 당일에 본가로 돌아왔다.

그 당시에는 장남이 아니더라도 결혼을 하면 일단 본가에서 살다가 분가하는 것이 예사였는데, 그들 부부도 본가에서 부모님·형·형수·동생들·조카 등과 함께 대가족을 이루며 살았다. 본가는 안방과 건넌방이 있는 안채, 방 하나와 외양간이 있던 사랑채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는 안채의 건넌방에서 얼마간 살다가 분가했다. 분가라고 해도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니라 본가와 접해 있었다. 그렇게 분가한 집이라고 해야 쪽마루가 딸린 방 둘에 부엌이 하나 있는 초가삼간이었다. 그래도 좁은 집에 대가족이 몰려 살던 것보다야 나았고, 분가 후에 아들까지 얻었으니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던 시절이었다.



용주사에서 큰아들과 함께

1950년대 후반경에 6촌 형제들 및 큰아들과 함께 용주사 구경을 가서 찍은 사진이다(맨 우측).

쪼그만 집 하나. 방 두 개, 부엌 하나 있던 집이에요. 쪼그만 마루하고, 방 한 칸, 지금은 방들이 크지만, 고 뒤로다 인제 방이 한 칸 반이니 이랬었죠. 그때는 딱 한 칸 그냥. 인제 간반으로 짓는 사람이, 좀 나은 사람은 안방 간반, 사랑방도 두어 칸씩 이렇게 해서 짓고. 어려운 사람털은 방 두 칸에 마루 있고 부엌 있고 그거죠.

유경호 옹의 이야기를 듣다가 ‘젊어서 객지생활을 해보았으니, 결혼 후에 외지로 나가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으셨냐’고 질문해 보았다. 그는 “그때 당시에는 나가기가 지치고, 나가서 뭘 해 먹어요.”라면서 그런 생각할 겨를조차 없던 시절이었다고 회상했다. 그리고 “그때 서울로다만 발을 뻗었으면 괜찮은 건데, 그냥 도루 집에 들어와서 농사를 지니께 그냥 주저앉은 거죠.”라고 덧붙였는데, 이런 그의 말 속에는 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풍족한 삶을 물려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며 아쉬워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5) 낙동강 전선에서 한쪽 눈을 잃고

광복부터 한국전쟁기까지는 좌우의 간에 대립이 극에 달하던 시절이었다. 그러한 대립은 안녕리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어서 이곳에서도 좌익과 우익 청년들 사이에 긴장감이 형성되고 서로 충돌하는 일이 발생했다. 친구들 간에도 심할 경우에는 서로 아는 체조차 하지 않던 때가 그 시절이었다. 그는 그러한 대립에서 한발 물러서 있으려 했으나 대부분의 청년이 어느 한 쪽에는 가입하다보니 그는 모든 이들과 등을 지게 될 처지에 놓였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숫자가 가장 많고 세력도 가장 컸던 대한청년단에 가입했다. 대한청년단에 가입한 지 이삼일이 지났을까. 그는 다시 한 번 군대에 가게 되었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것이다. 그는 전쟁이 났는지 어떤지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눈에 물대기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옷에 묻은 흙조차 털지 못한 채 그대로 군에 끌려갔다.

육이오사변 나던 날, 선포하던 날. 그날도 인제 들에 가서 일해구, 그때 인제 모를 아직 안 심었어. 근데 모심을라구 눈에 돌아서 고래두레박이라는 거 있어요. 고래두레박이라고 함석을 이만하게 해가지고 거기다 양쪽에다 새끼를 박아가지고 퍼 올리는 거야. 그거를 돌이서, 친구들 돌이서 하루 정일 물을 퍼 올리는 거야. 그래 해가져서 집으루 오니께, 집에 오니께 사이렌을 막 불어요. 회의실에 일났나 허구선, 그때 회의실이 요기 지금 사무실 고기 있었는데, 가보니까 헌병들이 그냥 문 앞에 죄 서가지고서는 오는 사람은 그냥 사무실로 집어 쳐넣어가지고서는. 지금 수원 행복예식장 있는 데, 거기가 삼거리 아니에요. 거기 가서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거기 있다가 밤중으라다 저기 북중핵교루다가 갖지 뭐야. 그래서 한 사나흘인가 며칠 훈련받다가 그냥 후퇴 내려간 거지. 후퇴 내려

가면서 왜관 이쪽으루 쫓겨 내려가는 거죠.

그가 속한 부대는 후퇴를 거듭하다가 왜관과 포항 사이에 있는 낙동강 전선의 한 고지에 진지를 구축했다. 낙동강 전선에서는 매일 치열한 공방전이 계속되었고, 그렇게 서로가 쏘아 대는 포탄과 총탄에 수많은 젊은이가 죽어갔다. 그 전쟁터 한가운데 그도 있었다. 그는 싸우다 굴러 떨어져 허리를 다치기도 했지만, 총탄에 맞아서 사경을 헤매는 이들이 수없이 많은 상황에서 웬만한 부상이 아니면 병원으로 후송되는 일은 꿈도 꿀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북한군의 이른바 '9월 공세'가 극에 달할 즈음, 그는 손가락 마디만한 수류탄 파편을 눈에 맞고 후송됨으로써 전장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리고 마산에서 치료를 받고 나서 부산의 용두산 부근에 주둔한 부대에서 보조 근무를 서다가 제대를 했다. 전쟁이 발발하던 날에 입대하여 이듬해 4월에 제대하여 집으로 돌아왔으니 약 10개월만의 귀향이었다.

파편에, 수류탄파편. 포항에서. 왜관에서 포항으로 들어가는 기차가 있어요. 고기가 좁은 강이 있거든요. 그 강 건너 가문은 아주 산 고지야. 근데 그 산에 기차 터널이 있어 가지고서는 그리루 기차 땡기고 그랬었는데, 그 우로 전투해러 올라가서 수류탄 맞아서 그냥 병원에서 실려간 거지. 군대생활두 마치고 보면 얼마, 몇 개월 하지도 못하고, 쫓겨 내려간 거니까. 이제 그렇게 했다가 다쳐가지고 병원에 있고, 그러면은 얼마 하지도 못한 거야.

당시에 그의 아내는 몇 마지기 농사를 지으며 아들과 함께 남편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원하고 있었다. 그러다 한쪽 눈을 잃은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암만 고생을 하고 그런 내용을 듣고 했지만, 사람 마음이 어디 그래, 젊은 사람이 (눈을 다쳐서 돌아왔으니). 그때 첫째 하나 낳고.”라며 지금은 별다른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말하였지만, 자신과 아들 하나를 남겨 두고 전쟁터로 끌려갔던 남편이 한쪽 눈을 잃고 돌아왔을 때 느꼈을 놀라움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만하다.

그렇게 전쟁터에 나가서 다친 사람들 중에는 보훈대상자로 제때 지정받지 못한 채 치료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도 적지 않은데, 다행히 그는 재빨리 검사를 받고 보훈대상자로 지정될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비리가 적지 않게 발생하여 돈을 주거나 뒷 배경을 동원해서 실제 부상 정도보다 등급을 높게 받으려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그런데 그는 오히려 처음에는 3등급을 받았으나 점차 그런 이들로 인해 등급이 낮아지게 되었다.

6) 여덟 마지기 농사를 지어 5남매를 키우다

그렇게 혼란한 시기를 지난 후 유경호 옹은 큰 굴곡 없는 인생을 살아왔다. 그는 장년기부터 황혼기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나서거나 하는 성격도 아니고, 배운 것도 없어서 마을 내에서 이장을 맡거나 모임을 운영해 본 적도 없어 내세울 게 없다.'며, "그냥 조용히 살았다."고 말한다. 하지만 반드시 그랬던 것만은 아니다. 30대 시절에는 주도적으로 쌀계를 조직하여 계장을 맡기도 했다. 그는 자신과 비슷한 연배거나 조금 더 나이가 많은 주민과 더불어 쌀계를 조직했다. 다른 계원들은 그가 나이도 젊고 쌀계 결성을 주도했기에 "처음에 계장은 자네가 보게."라고 계장을 맡아보기를 권유했다. 쌀계는 초상이나 결혼식 등에 계원 1인당 쌀 한 말씩 걷어서 그 집에 부조하는 형태의 계모임이었다. 젊은 층에서 쌀계를 조직하자 그 후 노년층에서도 이를 모방하여 노인계라는 계를 조직했고, 점차 마을 내에 다양한 형태의 계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또한 그가 쌀계를 결성하던 무렵인 1950년대 후반과 1960년대에는 안령리농업협동조합(속칭 '이동조합')이 결성되고, 안령리 일대에서 경지정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화산동 일대에서 네모반듯하게 구획된 논들이 모두 그 시절에 경지정리된 것들이며, 면적은 논 한 배미에 600평이었다고 한다. 한편 1960년대는 급격히 산업화로 접어들던 시기였지만, 아직까지는 많은 집이 초가였다. 그의 집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1960년대까지도 건조하고 불을 많이 때는 겨울철이 되면, 주민들이 순번을 정하여 야경을 돌았다. 야경을 도는 목적은 도난을 방지하고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였다.

지금으로 말하면 방법대원이나 마찬가지야. 야경이라 그랬어요, 북 두들기고……. 가령 오늘 저녁에 교대로다가 두 명씩 이렇게 땡기거든요. 북치고 하나는 쫓아댕기구. 그래 인제 동네에서도 한참 걸려요 한 바퀴 돌려면. 골목골목 돌아댕기니까. 그럼 쉬구, 또 우리가 들어가면 인제 그 사람들 교대로 허구.

그렇게 야경을 돌다가 쉬는 동안에는 동네 사랑방에 모인 다른 주민들과 화투를 치면서 보내는 일이 많았다. 지금이야 농촌에서도 겨울철에도 농사가 끊이지 않고, 다른 품이라도 팔 수 있지만, 그때는 겨울이 되면 딱히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렇게 시간을 보냈다. 그 시절 농촌의 일반적 풍경이었다.

그는 분가할 때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네 마지기 논과 열심히 농사지어 마련한 네 마지기 논을 합하여 총 여덟 마지기에 농사를 지으며 장년기와 황혼기의 삶을 농부로서 살아왔다. 가장 크게 지을 때는 논 10여 마지기까지 경작했는데, 두 마지기는 수리조합(저수지)이 생기면서 수용되었다. 이 일대에서는 150평을 한 마지기로 치니 여덟 마지기로

고 해야 1,200평 정도에 불과하다. 그리고 1960년대까지만 해도 한 마지기에서 나오는 소출이 얼마 되지 않았으니 생활하기에 그리 넉넉한 편이 아니었을 듯싶다. 더욱이 날이 가물어 흉년이라도 들라치면 생활은 더욱 곤궁해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도 심한 가뭄으로 인해 모를 제대로 못 내었던 적이 종종 있었다.

흉년이 자주 들어서 몇 해를 모를 못심어서 모심을 적에 논에다 하여간 호미모. 모를 이렇게 길러가지고서는, 물이 있어야 이거를 갈거나 뭐 해가고서는 손으로 이렇게 콧어서 심는데 물 위에서. 근데 물이 없으니깐 인제 씨래라는 것이 갈아가지고 그 늪으로 해가고, 호미로다 파구서는 논에다 모를 심구는 거지. 그렇게 몇 해를 가물구 농사를 못짓구. 그렇지 않으면 부드러운 데다가 콩두 심구, 서숙도 심구, 수수두 심구, 메물도 심구구. 다 이렇게 해서 먹구 살았지. 그거 안 심으면 먹고 살고 없는데. 한 일이 년 그렇게 했지.

논 이렇게 봐서 축축한 기가 있는 데는 파는 거야 그냥. 못자리도 항상 물이 없고 말랐다 그랬다 해서. 그때 당시에는 황구지두 한 길반씩. 사람이 가래라는 거 있잖아요. 셋이 이렇게 하는 거. 지금은 포크레인이니 이런 게 있지만, 그땐 그런 게 어딴어. 가래루 파구 삽으로 파구 그냥 길반씩 팠어 물 찾으려구.

그는 그렇게 힘들던 시절이었어도 자기 땅 한 평 갖지 못한 채 집도 절도 없던 이도 있었을 때이니 그나마 자신은 먹고살만한 편이었다고 말한다. 그렇게 여덟 마지기 농사를 지으며 그와 아내는 5남매를 키워 냈다. 결혼 이듬해에 첫째를 낳은 이후로 내리 딸 셋을 낳고, 1959년에 막내아들을 낳았다. 5남매는 무탈하게 자라서 각자 사회생활을 하다가 결혼을 하여 가정을 꾸렸다. 자녀 중 넷은 송산동과 수원에 살고 있다. 셋째는 충청남도 강경에서 사는데, 그래도 전화도 자주하고 종종 찾아온다고 한다. 큰아들은 자신과 함께 살았으나 직장과 자녀 교육 문제로 인해 수원에 거처를 마련하고 안녕동과 수원을 오가며 생활하고 있다.

그와 아내는 그렇게 자녀들을 키우고, 자녀들이 짝을 만나 가정을 꾸리는 동안에 환갑과 고희를 넘겼다. 그리고 1997년에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새로 지어서 이사를 하게 되었고, 2007년 겨울이면 결혼한 지 60주년을 맞는다. 천생배필이란 이럴 때 쓰는 말일 것이다. 이들 부부는 60여 년을 큰 탈 없이 살아왔고, 자녀들도 일가를 이루어 행복하게 살고 있기에 달리 바라는 바 없이 족하다고 말한다.

7) 내 생전에는 지어야지

유경호 옹은 외부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편은 아니지만, 한국전쟁 참전유공자들과는 주기적으로 만난다. 화산동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들은 매월 초하루에 안용중학교 좌측 존슨동산에 있는 현충탑에 모여서 순국선열에게 참배를 드리고 주변을 청소하면서 친목을 다진다. 그리고 매년 현충일에는 화성시 전체에서 참전유공자들이 모인다. 이것이 요즘에 그가 하는 가장 중요한 외부 활동이다.



현충탑에서 기념식을 마치고

한국전쟁 참전유공자회 회원 및 참석자들과 함께 찍은 사진으로 앞줄 우측에서 두 번째가 유경호 옹이다.

그밖에는 노인회 활동이 그의 주요 일과가 되고 있다. 노인회원들은 봄·여름에 관광을 가기도 하지만, 주로 노인정에서 술내기나 점심내기로 고스톱이나 뽕을 치거나 환담을 나누며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다. 그도 화투 내기판에 종종 어울렸는데, 본래부터 노름에는 소질도 없고 흥미도 없어서 그다지 재미있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한다. 젊은 시절에도 겨울철이면 사랑방에 모여 화투를 쳤지만, 별다른 흥미를 느끼지 못하기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는 이곳 노인정에 나오는 주민 중에서 가장 연배가 높다. 그러다 보니 요즘 신경이 많이 쓰이는 것이 건강인데, 장가들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피우기 시작한 담배도 건강을 생각해서 2년 전에 끊었다. 담배를 피워도 한 갑을 사면 사나흘을 피웠는데도 “술은 그렇게 생각이 안 나는데, 이 담배는 참 끊기가 힘들대요.”라며 담배 끊기의 어려움을 말한다. 술은 젊을 때에는 꽤 많이 먹었지만, 요즘은 굳이 찾아서 마시지도 않고 술자리에서도 두세 잔 정도만 마실 뿐이다.

이렇게 노년을 보내고 있지만, 그는 누가 뭐래도 천생 농부다. 그의 아버지가 그랬듯이 80대 중반에 이른 그는 땅의 중요함과 소중함을 잊지 않고 여덟 마지기 땅에 농사를

지으며 농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여덟 마지기 농토는 불지도 줄지도 않은 채 변함 없다. 물론 변화가 전혀 없지는 않다. 주로 인력에 매달렸던 과거와 달리, 그리고 경운기 등의 농기계를 직접 몰고 농사짓던 시절과 달리, 요즘은 기계와 인력을 사서 하기 때문에 직접 하는 일은 많이 줄었다는 점이 크게 달라진 모습이다. 하지만 그것이 그리 좋은 일만은 아니다.



노인회원들의 청와대 나들이

기계 사서 다해요. 그러니까 논은 두 배이지만 한 배미는 다 그 기구값으로 다 나가는 거죠. 한 배미 가지고 농사 저가지고서는 돈이 안 돼요. 내가 손으로다 많이 짓구, 내 기구 가지고선 해야 남지. 내버리는 게 다지. 그래서 지금 젊은 사람덜은 농사 안헬라 그러죠. 그래 우리네는 내 거니까 붙들고 있지, 남는 게 하나 없어요. 한 가지 (쌀이나) 얻어 먹는 거지.

그전에는 약 많이 했어요. 도열병 걸리지요, 뭐 잎마름병이니 뭐 많이 걸렸는데, 옛날에는 왜 그런 병이 많냐면은 손으로 심굴 때는 유월 달, 오월 달 넘어서 유월 달 가까이 모를 심구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또 비가 많이 와요. 유월 무렵에는, 그래 인제 벼에다가 비료 같은 거를 많이 끼었으면 벼가 썩까맣게 올르죠. 그래 장마 지면 그냥 도열병이 그냥 다.

거의 대부분 일당을 주고 기계와 사람을 쓴다. 그러다 보니 농사를 지어봐야 수입의 반은 비용으로 나가고 남는 것이라곤 쌀 열두 가마 정도에 불과하다. 다만 기계로 모를 심고 수확도 기계로 하고, 예전에는 벼가 병에 자주 걸려 농약도 자주 뿌려야 했으나 지금은 제초제만 뿌리면 되니까 힘이 들지 않아서 편하다고 느낀다. 끝으로 “언제까지 농사를 지을 생각이시냐”는 질문에 보았다. 그의 대답은 이랬다. “뭐, 내 생전에는 지어야지.”

(2) 황계동 통미 터줏대감 박영철 옹의 삶

1) 황구지천에서 물장구치며 자라다

박영철, 그는 황계동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이다. 밀양 박씨 경력공파의 후손이다. 그의 집안은 본래 황계동 인근의 진안동에서 오랫동안 세거하였는데, 그곳에 거주하던 그의 5대조가 황계리로 이주하여 뿌리를 내리면서 그의 대에 이르렀다. 5대를 살아왔다면 적지 않은 일가친척이 황계동에 살고 있을 법하나, 대부분의 농촌마을이 그러하듯 젊은 층이 외지로 빠져나가면서 현재 황계동에는 그의 집을 포함해서 두 집만 살고 있다.

그는 1928년에 황계리의 중심마을인 통미에서 6남매 중 셋째로 태어났다. 그의 형제는 위로 형 둘, 아래로 여동생 둘과 남동생 하나였다. 그는 어린 시절 형들과 함께, 혹은 또래 친구들과 함께 황구지천에서 물장구치며 놀기를 즐겼다. 지금은 황구지천에서 물장구를 치며 논다는 것은 꿈에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당시는 워낙 ‘물 좋은’ 개울이었다. 그렇게 함께 뛰어놀던 두 형은 모두 작고하였고, 또래 친구들도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하나둘씩 유명을 달리하여 몇 명 남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어린 시절 엄격하신 조부를 무척 무서워했다고 한다. 반면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자상한 편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당시로서는 꽤 부농에 속했다. 상당히 넓은 농토에 농사를 지었는데, 소작을 주지 않고 자작을 했다. 그 시절에는 농번기가 되면 마을 주민들은 두레를 조직하여 서로 도왔고, 살림이 어려운 일가친척들도 새경을 받고 부족한 일손을 메웠기에 일손이 부족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오히려 힘들었던 것은 어렵사리 농사지어 수확의 기쁨도 맛보기 전에 적지 않은 양의 벼를 공출로 빼앗긴 일이었다.

공출, 저 왜놈한테 뺏겨가는 거, 우리가 수십 가마씩 뺏겨 갔다구, 일 년에, 우리가 그때 농사 많이 졌거든……. 일본인들이 와 가지고, 이민 와가지고 농사들 좋은 건 그놈들이 죄 가졌거든. 옛날 이런 데 골안, 논 좋았거든. 좋은 거는 게들이 전부 헐 거야.

당시는 농업기술이 크게 발달하지 못했기에 한 마지기에서 나는 소출이라고 해야 얼마 되지도 않던 시절이었다. 더욱이 소출이 많은 논은 전부 일본인의 차지였다. 그러니 수십 가마를 공출당하는 일은 적지 않은 타격을 주었다. 그래서 공출을 피하기 위해 땅에 큰 독을 묻고 그 안에 벼를 숨겨두고 필요할 때 꺼내서 먹었다. 이는 그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이 흔히 겪었던 모습 중 하나이기도 한데, 그의 집이 이러했으니 변변한 농토도 없이 소작을 하던 주민들의 살림살이는 매우 궁핍했음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어려운 시절이긴 했지만, 그래도 그의 집은 넓은 농토를 소유하고 있었기에 다른 집들에 비해서는 경제적으로 윤택하여 둘째 형을 서울로 유학 보낼 수 있을 정도였다. 그의 형은 키도 훤칠한 멋쟁이 인텔리였고, 친구를 좋아하는 성격이었다. 서울에서 직장생활도 하고 사업도 했었기에 결혼 후에도 서울과 고향을 오가며 생활했는데, 사업이란 것이 실패를 동반하기 쉬운 일이다 보니 집안의 가산이 조금씩 줄어들게 되었다. 그가 결혼할 무렵에는 농토가 40마지기로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다른 집들에 비해서는 적지 않은 농토를 소유하였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은 없었다고 한다. 그렇게 그는 일찍이 작고한 큰형과 생전에 주로 서울에서 거주했던 작은형을 대신하여 젊은 시절부터 집안의 맏이 노릇을 해 왔다.

2) 6년제로 바뀐 안룡국민학교 첫 회 졸업

박영철 옹은 아홉 살이던 1936년에 현 안룡초등학교의 전신인 안룡국민학교에 입학했다. 그는 학제가 6년제 국민학교로 바뀐 뒤 첫 회 졸업생이다. 안룡초등학교는 1924년 4월에 4년제 안룡공립보통학교로 설립 인가를 받은 후 그해 9월 11일에 2학급으로 개교하였다. 이 학교는 당시 안룡면사무소가 있던 대항교리(현 수원비행장 내)에 있었는데, 수원비행장이 확장하면서 1951년 10월에 곡반정리로 이전하였다. 곡반정리가 수원시로 편입됨에 따라 현재 안룡초등학교는 수원시에 속해 있다.

그와 비슷한 또래의 주민들은 일제강점기 후반에 대부분 안룡국민학교를 다녔다. 그 당시 화산동 일대에 거주하던 학생들은 안룡국민학교 외에 송산리에 있던 심상소학교를 다니기도 했다. 심상소학교는 본래 일본인의 자녀를 위해 설립된 학교였는데, 나중에는 한국인의 자녀 중에도 이 학교에 다니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 외에 형편이 어려워 학교를 다닐 수 없거나 박영철 옹보다 연배가 위인 주민들 중에는 강습소나 야학을 다닌 이도 적지 않았다. 그에 따르면 황계리에도 야학이 있어서 면에서 지도원이 나와서 가르쳤다고 한다.

그 시절은 일제가 한국인의 민족의식을 말살하기 위해서 가혹한 탄압을 자행하던 시절이었는데, 강제로 창씨개명을 시키고 청년들을 훈련소에 수용하여 교육시켰다. 당시 안룡국민학교 안에도 청년훈련소가 설치되었는데, 그 훈련소에서 졸업생들에게 강제 군사훈련을 시켰다. 또한 근로보국대라는 명목으로 각종 강제노동에 동원하기도 했다. 그도 성이 마사끼로 바뀌게 되었고, 학교를 졸업하고 2년간 훈련소에서 강제로 교육을 받았다. 또한 저수지 축조나 비행장 건설 등에 보국단으로 한 달씩 끌려가기도 했다.

아유, 말도 못했지. 부역 가구 뭐 보국단, 비행장도 갔었고, 저기 반월 가는 데 방죽 막은 거 있잖아, 그거 막을 때두 갔었다구.

그렇게 시간은 흘러 박영철 옹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지 3년이 지나서 일제는 패망하였고, 광복을 맞게 되었다. 이 무렵, 그의 가족은 통미에 있던 집을 떠나 새로 가옥을 지어 이주하게 되었다. 당시 황계2리 주민들은 중심마을인 통미에 몰려 살았고, 현 마을회관 주변으로는 가옥이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 동네 장마가 자꾸 껴가지고 비만 오면, 한 백미리만 오면 여기까지 들어오는 거야.”라는 그의 기억이 아니더라도, 통미는 황구지천보다 지대가 낮아서 비가 많이 오면 침수되는 일이 잦았다. 그래서 주민 대부분이 지대가 조금 더 높은 곳으로 이주했는데, 그의 가족도 그렇게 한 것이다. 그의 가족이 새로 이주한 집은 마을 내에서 가장 큰 규모였는데, 대지가 400여 평에 건물이 27칸 규모였다. 이 집은 주변에서 솟씨 좋기로 이름난 대목이 와서 지었는데, 그 대목은 둘째 형과 동서지간이었다. 그래서 근동에서는 매우 잘 지은 집으로 소문이 나서 나중에 집을 헐 때 행랑채의 목재를 가져가서 그것으로 집은 지은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집터의 기운이 상당히 세었던 듯하다. 그 집에서는 도깨비의 장난 같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어디선가 흙덩어리가 날아와 사람을 치거나 문이 저절로 열리는 일이 생겼다는 것이다.

이상현 것이 우리 큰집이 저긴데, 여기 보면 우리 큰집 있었어. 뭐 행랑이 큰 거 있었잖아. 그 집이가 일 년에 한 번씩 곳을 해야 돼. 거기서 우리 어머니 살았을 적에 저녁에 주무시는데, 불들 켜놓고 주무시는데도 별안간에 돌, 저 뭐야 흙덩어리가 이런 데(이마)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여기도 다치시구 그랬다구. 불이 환한데 뭐 어디 떨어진 데도 없거든. 그래 어디 가서 물어보면 “귀신이 그런다” 이거야 도깨비가.

지금이야 과학적으로 설명하며 웃어넘길 수 있는 일이지만, 당시는 이상하게 생각되는 일이 생기면 도깨비나 귀신의 장난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 또한 매년 곳을 하고 가족의 안녕을 비는 집도 많던 시절이었는데, 그의 본가에서도 매년 경사곳을 했었다고 한다.

3) 거지 중의 상거지 국민방위군에 편성되어

박영철 옹은 해방 후에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서울에 있던 동흥실업학교에 진학했다. 그의 외삼촌이 조선신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었는데, 외삼촌에게 의탁해서 1년 정



학창시절 서호 소풍 기념사진

1950년 3월 수원 소재 서호로 소풍가서 담임 및 동급생들과 찍은 기념사진이다. 좌측에서 6번째, 안경을 쓴 이가 박영철 웅이다.

도 학교를 다녔다. 그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수원에 있던 개화 학교로 옮겼다. 이 학교에서는 중등과정을 2학년부터 다녔고, 중등과정을 졸업하고 수원중학교 4학년으로 옮겨 고등과정을 밟게 되었다. 수원중학교는 본래 1909년 2월에 수원상업강습소로 출발하여 1916년 4월에 화성학원으로 개칭하였고, 1941년 3월에 수원상업학교로 승격하였다. 그리고 1946년

8월에 현재의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을 포괄하는 6년제 수원중학교로 인가받았다.

그러나 그는 학업을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가 수원중학교로 옮긴 그해에 한국전쟁이 발발한 것이다. 전쟁이 나자 그의 가족은 향남면에 있던 외가로 잠시 피난을 갔다가 돌아왔는데, 그 동안 피난민들이 집에 들이닥쳐 세간을 가져가거나 못쓰게 파손하였다고 한다. 그로 인해 그가 학창 시절 찍은 사진이나 그때 간직하고 있던 물품도 모두 잃어버리고 말았다.

한편 광복 후부터 한국전쟁을 겪는 기간은 전국적으로 좌우익 단체들 간에 충돌이 잦았고, 젊은 층이면 그중 하나에는 대부분 몸을 담고 있던 시절이었다. 그도 1949년 12월에 결성된 대한청년단에 몸담았다. 그는 황계리의 대한청년단 총무부장 직을 맡았는데, 한강 도강에 필요한 도강증을 만들어 주거나 1950년에 도민증 제도가 실시되었을 때 경찰서에서 확인 도장을 맡아서 나눠주는 일 등을 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 무렵에 그는 잠시 이장을 맡기도 했다.

그러던 중 그는 제2국민병에 편입되었다. 제2국민병은 1950년 12월에 제정된 「국민방위군설치법」에 의해 조직되었다. 만 17세 이상 40세 미만의 남성이 징발되어 군사훈련을 받았는데, 그중 학생이 아닌 이들은 다시 국민방위군에 편성되었다. 이들 국민방위군은 중국군이 참전하면서 후방인 대구·경남지역으로 이송되었고, 그 과정에서 국민방위군본부가 식량과 피복을 착복하고 제때 공급하지 않아서 수많은 아사자가 발생하였다. 그렇지 않고 다행히 고향으로 돌아왔어도 병으로 죽은 이들이 부지기수였다.

그도 수원 인근 지역에서 소집된 국민방위군과 함께 북풍이 몰아치는 엄동설한에 연무대에서 경상북도 청도군까지 16일을 걸어서 이동했다. 그가 속한 부대는 청도군 매전면의 매전국민학교에 주둔했다. 그들은 춥고 배고픈 것도 모자라 거지소굴과 다를 바 없는 거처에서 생활하였다.

지금 공설운동장에 집합해가지고, 시방 연무동. 거기서 집합해 가지고 청도까지 십육 일을 걸어갔어, 걸어서……. 짚을 깔고 거기서 다 누워 자는데, 자꾸 일어나면 그냥 이가 하예요. 전부 짚 깔구서 쪽 누워 자는 거야.

또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어느 부대원이 자신이 속한 소대에 주먹밥을 배급하다가 어찌나 배가 고팠던지 주먹밥 한 개를 사타구니에 몰래 감추었다. 그러나 정해진 곳에서 주먹밥 하나가 모자랐으니 주먹밥을 숨긴 일은 곧 들통이 나버렸고, 그 부대원은 운신을 못할 만큼 못매를 맞았다. 사역을 나갈 때마다 민가에 걸려 있는 메주를 몰래 훔쳐 먹는 일 따위는 부대원들 사이에서는 예사로 벌어졌다. 이 모두가 너무나 배가 고파서 벌어진 일이었다. 그러나 그는 같이 간 마을 사람 중 하나가 부대원의 급식을 담당하고 있었기에 종종 누렁지라도 얻어먹을 수 있어서 그나마 나았다. 그는 다행히 실제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고, 반년 남짓한 시간이 지나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러나 황계리에서 그와 함께 국민방위군에 편성되었던 10여 명 중 한 명도 집으로 돌아와서 부황으로 인해 죽게 되었다. 국민방위군으로 복무하면서 너무나 배를 곯았던 것이 원인이었다. 그만큼 국민방위군들의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 그도 자신의 인생에서 이 무렵이 가장 힘들었다고 회상한다.

4) 천생배필을 만나 한 가정의 가장이 되다

박영철 옹은 집으로 돌아올 때도 갈 때와 마찬가지로 걸어서 왔다. 그가 집으로 돌아오니 이미 피난 갔던 가족도 모두 돌아와 있었다. 이 무렵에는 피난을 왔다가 황계리 일대에 정착하는 외지인도 적지 않았는데, 이로 인해서 황계리 인구가 적지 않게 늘어났다고 한다. 그는 집으로 돌아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수원에 살던 이영희 씨와 혼인하게 되었다. 그녀는 그와 한 살 차이인 1929년생으로, 매향여자정보고등학교와 매향중학교의 전신인 매향여학교를 졸업한 후 수원군청에서 근무하였다. 그녀 역시 전쟁을 피해 부산으로 피난 갔다가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서둘러 결혼하게 되었다. 피난 갔다 돌아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전쟁도 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결혼한 이유는 '군인들이 여자를 납치해 간다'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당시엔 그러한 이유로 황급히 결혼한 이들이 적지 않았는데, 일제강점기에 정신대로 끌려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서둘러 결혼하는 여성이 많았던 것과 마찬가지로였다.

두 사람은 형제들의 소개로 결혼 전부터 서로 안면을 익히고 있던 처지였고, 그녀가 그의 집에 놀러온 적도 있었다. 그렇다고 두 사람이 연애결혼을 한 것은 아니다. 안면은 있었더라도 드러내놓고 사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여자들이 남자에게 먼저 말을

하거나 좋아하는 내색을 할 수 있던 시절은 더더욱 아니었다.

지금은 여자들이 좋아하지만, 그전에는 남자들이 먼저. 여자들은 좋아해도 말 못하잖아. 옛날에는 정말 남자들이 쫓아댕겨도 뭐 도망을 댕기지 지금처럼 만대기를 해.

서로 얼굴을 익히고 있던 두 사람은 이영희 씨 언니의 주선으로 1951년 5월 26일에 백년가약을 맺었다. 그러나 아직 전쟁이 채 끝나지 않았을 때이기에 신부집에서 대례를 올리지는 못하고 신부가 신랑의 집으로 와서 혼례를 올리게 되었다. 그래도 대례상을 차리는 등 격식을 갖춰 혼례를 치렀다. 그녀는 소반에 물 한 그릇 떠놓고 결혼한 친구도 있었다며, 자신은 그래도 성대하게 혼례를 치렀다고 회고한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결혼식 당일에 택시를 타고 황계리로 와서 마을 입구에서부터 가마를 타고 그의 집에 가서 혼례를 올렸다. 뜻하지 않게 그 시절 일반적으로 행해지던 반친영이 아니라 친영을 한 셈이다.



안마당에서 아내와 함께 다정하게

1989년 여름에 찍은 사진이다. 그는 마당에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을 즐겨 했는데, 사진 속에도 잘 가꾸어진 정원의 모습이 보인다.

두 사람은 결혼 후 본가에서 1년 정도 살았다. 그의 아내는 자신 또래의 다른 여성들에 비해서는 큰 고생은 안 했다고 하면서도 “내 땀에는 고생한 거지.”라는 말로 그 시절의 어려움을 말하였다. 그때까지 크게 어려운 것 없이 곱게 자라며 살림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하다가 형을 대신하여 집안 경제를 책임지던 남편에게 시집와서 시조부모와 시부모를 함께 모셔야

했으니 그녀로서는 여간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듯싶다.

그들은 결혼한 이듬해에 첫째를 낳고 분가한 후 넷을 더 낳아 슬하에 5남매를 두었다. 둘째까지 낳고 아들 하나만 더 낳자고 한 것이 내리 딸을 낳으면서 다섯 남매를 두게 되었다. 그리고 셋째를 낳고 돌을 치르기 직전에 새로 집을 지어서 이사하였는데, 그것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이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은 8년 전쯤 골조는 그대로 유지한 채 외벽에 벽돌을 쌓아서 지금처럼 개축하였다. 이 집을 지을 당시는 한 마을에서 기와집은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에 불과하던 시절이었다. 그런 때에 번듯한 기와집을 지어서 이사한 것이다. 그 당시 통미에서 기와집은 박영철 옹의 집과 그의 본가 외에 한 집만 더 있을 뿐이었다고 한다. 그는 목수 한 명을 고용하고 나무를 사다가 한 달간 집을 지었다. 물

론 그도 집을 짓는 데 함께 참여했다.

옛날에 잘 진다고 진 건데, 그때는 기와집이 몇 채 없었지. 두 집 밖에 없는데 우리가 저 가고 세 집 된 거야. 이게 목수 한 사람이 한 달을 졌나, 한 달. 그 사람이 아주 저 절만 지러 당기는 사람이야. 남대문 보수할 때 두 그 사람이 가서 하구. 민속촌 아흔아홉칸 할 때두 허구. 그 사람이 많이 졌지, 좋은 집털. 유명한 대목이야.



시부모님 댁에서 시누이·동서들과 함께
1950년대 중반에 촬영한 사진으로, 좌측 두 번째가 이명희 씨다. 27칸 규모였다는 가옥 규모에 걸맞게 사진 속의 대청도 상당히 넓었음을 알 수 있다.

5) 힘든 걸 몰랐잖어, 젊으니까

박영철 웅이 젊었던 시절에는 대부분의 주민이 먹고 살기조차 어려웠기에 많이 배운다는 것은 엄두도 내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나마 그는 집안이 부유한 편이어서 이 마을에서 나고 자란 또래보다는 좀 더 많이 배울 수 있었다. 그래서 주위에서 마을 일을 맡아서 하라는 소릴 많이 들었고, 실제로도 꽤 오랫동안 마을의 살림을 꾸리는 일에 적극 관여했다.

그가 마을 내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한 시기는 1950년대 후반부터 1969년까지이다. 그중에서 1950년대 후반은 전국적으로 이동조합(里洞組合)이 마을마다 생겨나던 시기였는데, 화산동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동조합이 매우 이른 시기에 결성되었다. 그 당시 화산동에서는 안녕리·황계리·송산리의 순으로 이동조합이 결성되었다고 하는데, 규모에서는 안녕리가 제일 컸다. 화산동의 이동조합이 워낙 초기에 결성되었기 때문에 전국에서 견학을 오는 일이 여러 차례 있었다.

그도 황계리 이동조합 설립에 적극 관여하며 조합의 상무이사를 역임했다. 이동조합의 공식 명칭은 황계리농업협동조합이었고, 조합 사무실은 현재 마을회관으로 들어가는 초입에 있는 황계미용실 자리에 있었다. 당시 황계리 이동조합은 시범조합으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기도 했다. 그는 1969년 10월에 당시 태안면에 있던 11개 이동조합이 합병하여 태안농업협동조합이 설립될 때까지 황계리 이동조합의 살림을 맡았고, 지금도

태안농협의 원로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당시 그가 이동조합에 관여하면서 주로 담당했던 일은 주민들에게 농자금을 융자해주고 그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걷는 금융업무, 비료 신청을 받고 배포하는 업무 등이었다. 또한 1962년 6월 10일에 단행된 긴급통화조치로 화폐의 단위가 환(圓)에서 원(圓)으로 바뀔 때 구권을 신권으로 교환해주는 일도 그가 했던 일 가운데 하나였다. 이처럼 마을 일을 주도적으로 이끌면서 매우 바쁜 나날을 보내면서도 그는 젊었던 시절이라 힘든 줄 모르며 일했다고 한다.

용자 죄 신청하면 다해줘, 건어서 또 줘. 비료 또 신청하면 비료 갖다 줘. 전부 그거 했 다구. 그래도 힘든 걸 몰랐잖어 젊으니까.

그러나 월급을 받으면서 한 것이 아니었기에 경제적으로 그가 느낀 부담은 매우 컸다. 더욱이 그 당시에는 조합 업무나 이장 업무를 보던 이들은 손님치레를 자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이들은 용자 규모를 늘리고 비료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 소위 '높은 사람'들을 접대해야 했는데, 그렇게 조합 업무나 이장 업무를 보면 '땅 팔기 십상'이었다.

그때 그런 일 해면은 땅 팔아서 뭐 높은 사람덜 오면 닭도 잡아주고 그레야지. 인제 술 먹구 그러면 논 몇 마지기씩 팔아먹는 거야……. (조합 하는 동안에 땅을) 너 마지기는 팔아먹었나 봐. 나뿐 아니구 딴 사람두 전부 다 그레. 이장 보구 뭐 조합 보구 헐 사람덜 다 땅들 팔구 그랬다구. 일 헐다구 돈을 주길 주나 뭐. 그때는 돈도 안주고 동네 일 시키면 허는거구.

그의 아내도 이 시절에 매우 활발하게 활동했다. 당시 이동조합에서는 구판장을 운영하였는데, 그녀는 이동조합 살림을 꾸리던 남편을 도와서 일하는 사람 한 명과 함께 구판장 운영을 담당했다. 구판장은 '협동조합가게'라고도 불렸는데, 그곳에서는 온갖 잡화를 다 팔았다. 주로 수원 영동시장에서 물품을 구매하였는데, 구매한 물품은 구판장에 술을 대던 수원 소재 양조장에서 실어다 주었다. 당시는 교통이 발달하지 못해서 황계리에는 군 트럭을 개조하여 8명 정도 탈 수 있게 만든 합승버스만 다녔다. 수원에 가려면 그 버스를 이용하거나 걸어서 다녀야 했기에 구입한 물품을 가져오는 일은 무척 힘겨운 일이었다. 그래서 양조장에서는 우마차에 술을 배달하면서 구판장에서 맡겨놓은 물품을 함께 실어서 배달해 주었다. 그 양조장에서 구입한 술은 막걸리와 소주였는데, 막걸리는 하루에 두 통씩 받아 항아리에 담아서 묻어두고 그것을 퍼서 팔았고, 소주는 병소주와 고리소주를 팔았다고 한다.



1970년대 새마을부녀회 체육대회(병점초교)

당시 황계리의 새마을부녀회는 부상으로 거울을 탔다.
맨 앞에 있는 사람이 부녀회장을 맡았던 이영희 씨다.

그녀는 이동조합의 구판장 운영 외에도 1970년대 들어서는 새마을운동의 시작과 함께 황계리 새마을부녀회를 꾸려서 회장을 맡았다. 그녀가 부녀회를 조직하기 전에도 부녀회가 있기는 했으나 오래 가지 못한 채 흐지부지 해체되어 다시 꾸리게 된 것이다. 당시 부녀회는 폐품 수집과 절미 운동, 구판장 운영 등 마을 내에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일을 했다고 한다. 그

러니 1960년대와 1970년대 이 마을의 살림살이를 이들 부부가 꾸렸다고 해도 결코 과언은 아닐 듯하다. 이처럼 부부가 자신의 농사를 제대로 돌볼 겨를도 없이 마을 일로 바쁘게 보냈지만, 그런 와중에도 농사는 어렵지 않게 지을 수 있었다. 너도나도 서로 돕고 살던 시절이었고, 부부가 마을 일로 바쁜 것을 아는 주민들이 적지 않게 농사를 도와주었기 때문이다.

6) 부동산중개업을 하며 황혼기를 보내다

박영철 웅은 자신이 꾸리며 정열적으로 일하던 이동조합이 태안농협에 합병되고, 마을 일에서도 한 걸음 물러난 뒤부터 부동산중개업을 시작하였다. 경작할 농토도 얼마 남지 않았기에 무엇을 할 것인가 고심하던 차에 동창과 지인으로부터 땅을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종종 받게 되면서 아예 부동산중개업에 뛰어든 것이다. 그 당시에는 부동산이 신고제였는데, 그의 사무실은 태안면에서 여섯 번째 신고업소였다고 한다.

조합 없어지고 합치고 뭐 하는 바람에 부동산 했지.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친구가, 친구들이 많잖아. 친구들 많으니까 돈 많은 친구들이 많아 가지고 땅을 사달라고 자꾸 와. “어디 좋은 데 없느냐.”고……. 수원 친군데 김○○이라고, 그 사람 때문에 부동산을 하게 된 거야. 부동산에 지식도 없고 뭐 했는데, 우리 땅 있는 거나 팔자고 뭐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샀다 팔았다 이레니까, 여러 번 그게 잦아지니까 부동산이 되는 거지.

그는 30세가 넘어서 배운 담배는 많이 피웠지만, 술은 그리 많이 먹지 않았고 좋아하는

편도 아니었다. 그러나 부동산중개업의 특성상 술을 먹지 않을 수 없는 노릇이었다. 산 사람이 한턱내고, 판 사람이 또 한턱내고, 속상해도 한잔 하고 기분 좋아도 한잔 하였으니 술을 먹는 날이 잦을 수밖에 없었다. 이영희 씨가 “(그 당시에) 술들 했지들, 아유 만 날 취해가지고.”라며 손사래를 친 데서도 당시 그의 일상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는 주로 황계리에 사무실을 두었고, 신고제 당시에 18년을, 그 다음에 허가제로 바뀌면서 허가 내고 다시 8년 정도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했다. 사반세기를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한 것이다. 주로 황계리과 인근 송산리 일대의 토지를 많이 거래했는데, 조금 과장해서 인근 토지 거래의 90%를 자신이 했다고 자신 있게 말한다. 그러나 부동산 중개로 큰돈을 벌지는 못했다. 돈을 못 번 것은 아니지만, 이윤을 많이 취하지 못하고 법정 수수료만 받았으니 큰돈을 만지지 못한 것이다. 그는 “우린 그냥 주는 대로, 안주면 그만이고, 우린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마음은 편해지. 지금두 찾아오잖아 손님들이.”라고 하면서 신용을 잃지 않았다는 사실에 긍지를 느낀다며, 부동산중개에서 신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를 잊지 않았다.

그런데 요즘처럼 조금이라도 더 생활의 편리를 찾으려는 시대에 부동산중개업은 노년층이 하기에는 적당치 않은 일이 되었다. 어느 부동산중개업소를 보더라도 70대 이상 노년층이 하는 경우를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게 되었다. 매수자든 매도자든 번듯한 사무실에 컴퓨터도 들여놓고, 차로 편하게 모시고 다녀주길 바란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레 그도 부동산중개업에서 손을 떼게 되었다.

그것도 지금 안 되는 것이 지방 전부 애들이 전부 해고, 전부 차들 가지고 있어. 차 있어야 해지 못해. 어디 가서 보재면 차를 갖다 대야 또 가고 뭐 해고 그러지. 자전거 타고 땀기면서 그전에 뭐 하고 그러면 여기서 정남면을 이십 리, 삼십 리 자전거 타구 가구. 전화나 있어. 이 사람한테 “너, 이거 팔어. 너, 만원에 팔어라.” 그러면 이쪽에 살 사람은 “그거 오천 원에 사줘.” 그러고, “오천 원에 산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 가서 또 물어 봐야 될 거 아니여. 또 자전거 타고 정남으로 또 가야 되는 거야. 전화도 없었잖아 그때. 지금은 전화로 앉아서 하구, 차 갖다 대구.

그는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면서 1988년에 막내를 끝으로 자녀들을 모두 출가시켰고, 모두 8명의 손자·손녀를 보았다. 그중 장손은 현재 호주에 연수를 가 있다. 이영희 씨는 장손이 학교에서 몇 명만 연수를 보내주는 데 뽑혔고, 가서도 할아버지·할머니에게 자주 안부전화를 한다며 손자 자랑하기를 잊지 않았다.

그는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동안 회갑을 맞았고, 인생의 황혼기를 대부분 그 일을 하면서 보냈다. 그러나 전혀 마을 일에 무관심했던 것은 아니다. 60대 초반에는 노인회 활동



장수회 회원들의 용문사 나들이

결성하여 총무를 맡았다. 장수회 회원들과는 여행도 자주 갔는데, 회갑여행도 그들과 함께 제주도로 갔었다.

도 열심히 하며, 황계2리 노인회 총무도 맡았다. 현재 황계2리 노인정도 그가 총무이던 시절에 부지를 구입하여 지은 것인데, 그전까지 노인정은 마을회관 내에 있었다고 한다. 또한 그는 친목회 활동도 활발하게 했는데, 회갑을 맞을 무렵에는 연배가 비슷한 이들과 함께 장수회라는 이름의 친목회를

7) 황혼기 삶을 알려주는 가계부

박영철 옹에게는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할 때부터 생긴 습관이 하나 있다. 그 습관은 그날그날 일어난 일을 가계부에 기록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의 가계부는 단순히 그날 구입한 물품이나 출납 내역만을 기록하는 일반적인 가계부가 아니다. 그의 일기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날그날의 일을 기록한 가계부를 쓰기 시작한 이유는 큰돈이 오가기 때문에 정확성을 요구하는 부동산중개업의 특성에서 비롯되었다.

이걸 왜 썼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몇 십만 원 있는데 거기서 썼단 말이야. 그런데 뭐에 쓴 줄 모르잖어. 돈 주머니에 많이 넣고 땡기면은 어디 써서, 몰러 우물쭈물하면. 이런데 해 놓으면은 다 알거든. 이거 보면 다 알거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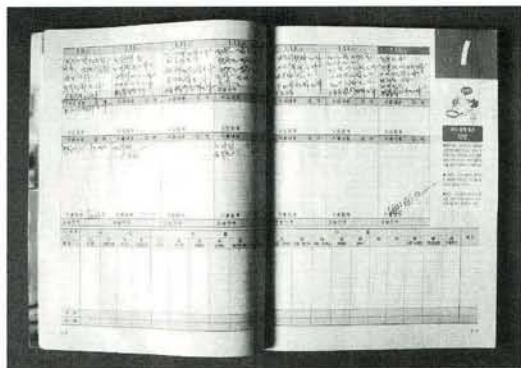
그의 가계부에는 매일의 수입·지출 내역과 함께 그날 그에게 일어났던 일이 짧은 단문으로 기록되어 있다. 예를 들면, 해당 날짜 밑에 ‘농협에 갔다’, ‘○○가 전화를 했다’, ‘목욕탕에 갔다’, ‘오늘 고추를 심었다’ 등처럼 짧게 그날의 일을 적고, 그날 자신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그 밑에 기록하는 식이다. 그는 자신의 가계부를 보여주면서 점점 기억력이 떨어지지만, 가계부만 보면 오늘 무엇을 했는지, 혹은 작년 이맘때 무엇을 했으니 오늘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있다며, 기록의 유용성을 누차 강조하였다.

가계부에 그날그날 일어난 일을 기록해두다 보니 이와 관련된 에피소드도 적지 않다. 꼼꼼히 적다보니 영수증 하나도 함부로 버리지 않고 소중히 보관하게 되어 그것들이 자신이 관여했던 일에 증거 자료가 되고, 금전 문제로 인해 주민 사이에서 발생한 다툼도

그의 가계부에 관련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해결한 일도 있었다. 다음도 그러한 에피소드 가운데 하나이다.

그때 고소해가지고 어쨌다 저편다. 돈을 받았으니 안 받았으니 그래가지고 고소 사건이 났어. 난 그런 걸 죄 적어놨거든. 그래 고소 사건 나서 내가 해명해 줬잖어. 이런 거 가지고 적어놓으니까 아무 때 이런 일이 있지 않았냐 이거야.

때로는 너무나 사소한 일까지도 적어 놓아 자녀들에게 웃음을 안겨준 일도 있다. 예를 들어 어느 해 인가 집에서 키우던 병아리가 한 마리 없어져 그것을 가계부에 적어 두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그는 아내가 “그러게 저 닭 한 마리 잃어버린 것도 썰대니까. 그때 내 한 번 병아리 길렀었는데, ‘닭 한 마리 없어졌다’고. 애들이 그거보고 우서 죽겠다.”라며 놀리자, “애들이 보고 송보는 거지, 그거야 뭐.”라며 다소 겸연쩍어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의 꼼꼼한 기록 습관에서 비롯된 이런 에피소드는 이외에도 많다. 그는 자신의 20여 년간 삶을 보여주는 가계부의 대부분을 버리지 않고 보관하고 있으니 자손들에게 물려주어도 손색이 없을 훌륭한 생활의 기록이다.



박영철 옹의 가계부

8) 집 앞 텃밭을 일구며 살아가다

박영철 옹은 1995년 6월 준공된, 송산동 소재 수원시 하수종말처리장의 부지에 마지막으로 소유하고 있던 논 600여 평이 수용되면서 논농사와는 인연을 끊게 되었다. 당시 수용된 부지는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진입도로에 편입되었다. 그는 마지막 남은 농토를 팔지 않으려고 버텼으나 팔지 않을 수가 없었다. 보상금으로는 그만큼의 농토를 사기 어려웠고, 부부가 이미 연로한 나이였기에 다시 농사짓기를 포기하였다. 현재 그는 대문 앞에 있는 약간의 텃밭에 집에서 먹을 채소류를 가꾸고 있을 뿐이다.

그는 논농사도 폐하고 부동산중개업도 하지 않게 되면서 주로 노인정에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화투를 치면서 시간을 보냈다. 안릉초등학교 동창모임에도 종종 참석했지만, 친한 동창이 하나둘씩 유명을 달리하면서 최근에서 모임이 잘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

그의 동기는 화산동에 2명이 거주하는데, 그들 하고도 소식을 잘 접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또 산악회와 같은 마을 외부 모임에도 참여했었다. 산악회는 병점산악회라는 이름으로 한 달에 한 두 번씩은 산행을 하던 모임이었는데, 전문적인 산행보다는 관광을 겸해서 다녔다.

요즘 그가 출타하는 경우는 주로 은행이나 농협에 업무를 볼 일이 있을 때, 혹은 식료품 등 물품을 구입할 필요가 있을 때다. 그는 물품을 구입할 때면 수원의 영동시장이나 안녕리에 있는 하나로마트 등을 이용한다. 수원 영동시장은 젊은 시절부터 계속 이용하던 곳이었고, 황계리 이동조합 구판장을 운영할 때에도 대부분의 물품을 그곳에서 구입했기 때문에 지금도 즐겨 찾는 편이다.



병점산악회 산행에서 친구와 함께

그는 먼 거리 출타를 잘 하지는 않지만, 노인회에서 1년에 한두 번씩 가는 관광여행에는 거의 빠지지 않고 참석한다. “소풍은 안간 데 없어. 한국 땅에 가보긴 거의 다 갔어.” 라고 할 만큼 많이 다녀보았다고 한다. 이외에는 음력 시월 보름에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 있는 밀양 박씨 중시조 박현의 시향에는 반드시 참여한다. 일가의 선산은 진안동에 있었으나 진안동 일대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개발이 진행되면서 용인시로 옮겼다. 그곳에 거주하던 친척도 뿔뿔이 흩어졌는데, 이는 그가 아쉽게 생각하는 일 가운데 하나이다.

우리 저기는 진안리에 있었는데, 이번에 진안리 전부 다 없어지구. 더군다나 아파트 들어가는 바람에 전부 다 헤어지구 어디가 사는지도 몰르겠어……. 집안네들 죄 흩어져가지구, 뭉쳐서 시골에 내려가 살면 모를까. 사는 게 그전만 못헌 거 같애.

그는 중요한 일이 아니면 가급적 외출을 하지 않는다. 그의 아내는 일요일이면 동네에 있는 교회를 가지만, 그는 교회도 다니지 않는다. 오른쪽 눈을 크게 다친 이후로는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날이 더 많아졌다. 2004년 2월에 눈을 다친 일은 최근 10여 년간 일어난 일 중에서 가장 큰 사건이었다. 부엌에 쓸 빨감에서 못을 빼려다 그만 못이 눈에 튀었던 것이다. 나쁜 일이 생기려고 그랬는지 굳이 그날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려다 발생한 사고였다. 그는 “그래서 (구급차를) 처음 한번 타봤어.”라며 아무렇지 않은 듯 말했지만, 아내를 비롯한 가족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음은 당연하였다. 다행히 그는

구급차를 타고 아주대학교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어 치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그 사고로 인해 한쪽 눈을 실명하였다.

이 일도 있고, 그의 아내가 2006년 2월에 정월 대보름 음식 장만을 위해 안녕리로 장 보러 가다가 넘어져 팔이 부러지는 일을 당한 일도 있어서 자녀들과 손자·손녀들은 그 전보다 더 자주 전화를 하여 두 사람의 안부를 확인한다. 더욱이 굳이 전화가 아니더라도 그의 자손들은 수시로 찾아온다. 그리고 여주에 사는 큰아들이 여주에 와서 함께 살 자고 하는데, 이들 노부부는 둘 중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는 이 집에서 살겠다고 한다.

큰애가 여주 아파트 사주께 오래. 안 갔어 싫다고 여기 편하다고. 저희 싫으면 따로 아파트 사줄 테니까 글로 오라 그러는데, (아직은 가기) 싫대……. 애들은 우리 애들 착해. 우리 며느리들도 착해. 자꾸만 같이 있으면 좋아해잖아. 살다가 누구 하나 어떻게 되면 그때 가서 저기 해지 뭐야. 저들도 편해고 나두 편해구.

이들 노부부는 “사람이 너무 오래 살어도 안 돼. 왜 그러냐면 애들이 나이가 먹었으니까 애들이 환갑 돌아오고 말야.”라고 말하면서도 자손들이 큰 어려움 없이 서로 우애 있게 사는 것을 보는 낙으로 산다고 한다. 그러면서 “아들·며느리가 다 효자야.”라는 말을 잊지 않았다. 자신이 적은 가계부를 가리키며 “이거 보면 아들딸들이 전화헌 것이 쭉 나와요. 어떤 놈은 전화 안했구나 하고.”라며 웃음 짓는 그의 모습에서 그들 가족의 화목함이 느껴진다.

3. 아내로, 며느리로, 엄마로 살아온 삶의 여정

김 세 영(상명대학교 강사)

지역사 연구에서는 기초자료의 확보에 있어서 현장 조사가 필수적이며, 특히 근·현대시기에 대한 연구에서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구술 자료는 그 지역민의 역사적 궤적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특정한 지역의 역사연구에서 각 개인의 구체적인 삶의 궤적은 그가 속한 마을공동체의 일정한 역사적 체험을 대변한다. 물론 개개인의 삶이 동일한 체험을 수반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공동체의 환경과 조건에 많은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 보편적인 인간의 삶이다. 따라서 마을 구성원들의 생애담은 그 마을에 대한 보다 넓은 이해의 폭을 제공하는 귀중한 연구 자료이다. 특히 역사서술에서 거의 배제되어온 여성의 이야기는 그 내용이 척박하기 그지없다. 때문에 기록에서 제외되거나 누락되어 미비한 여성에 관한 자료는 무엇보다 구술에서 보완되어야 한다.

이러한 구술사의 의미를 가지고 사전 조사 작업을 시작하였다. 한가한 농한기, 화산동 마을지 조사 작업을 다니기에 딱 적당한 시기로 여겨 농번기를 피해 가을걷이가 끝날 무렵부터 해당 마을의 노인정과 마을회관을 돌아다녔다. 사전 조사를 통하여 적합한 인물을 물색하고 지난날의 삶에 대한 생생한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기에, '현장에서 생생한 삶의 체험들' 이것이야말로 살아 숨쉬는 역동적인 역사추진력이기에 연세 지긋한 노인들을 찾아 나섰으나,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다. 농한기라 각 마을의 노인정이나 마을회관에는 늘 어르신들이 모여 놀이나 공동작업을 하고 계실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주로 주말 시간을 이용하여 조사를 나갔는데, 올해가 '쌍춘년' 이기에 집집마다 잔치 집 가느라고, 혹은 본격적인 김장철에 접어들자 노인정은 텅 비어 있어 몇 주를 허탕만 치기 일쑤였다. 안녕동으로, 송산동으로, 황계동으로 여러 차례의 걸음 끝에 드디어 몇몇 마을의 노인정에서 기초 조사가 이루어졌다. 마을 어르신들은 주로 점심식사를 기점으로 노인정에 모이셨는데, 주로 할머니들은 노인정에서 여러 분이 점심을 해서 함께 나눠드시느라고 일찍 모이시는 편이고, 할아버지들은 각자의 집에서 점심을 드시고 나

오시는 것이 대개의 추세였다. 그러니까 오후 1~2시가 되어야 최대 인원이 모이게 되는 것이고, 모여서 오후 여가를 주로 화투놀이나 의료치료가 체험이나 음식을 나누거나 음주, 소식 혹은 신변에 관한 잡담을 하신다. 어느 노인정을 막론하고 할머니들의 방과 할아버지들의 방이 엄격히 구분되어 있어 남녀구별의 전형적인 모습이 남아있다. 각 마을의 노인정에는 오후 시간이 되면 꽤 많은 수의 할머니·할아버지가 모이는 것을 확인하고 적당한 인물을 물색하여 본격적인 인터뷰는 대개 오후 시간을 선택하였다.

자연마을의 모습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황계리와 이미 도시화가 시작되어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고 있는 안녕리의 각 노인정 할머니방에서 이 지역의 여성이야기를 접하였다. 이 지역 여성들은 과거 대개 화성을 비롯한 인근 수원·용인·평택·송탄 등지에서 시집을 오신 분들이다. 몇 차례의 방문으로 초기에는 대략적인 이야기들을 집담면담의 형식으로 들어보았으며, 그 가운데 황계리에서는 최고연장자에 해당하는 영등포에서 17세에 시집오신 82세의 유씨 할머니를, 안녕리에서는 그 지역 토박이로 같은 동리에 시집을 간 72세의 최씨 할머니를 대상으로 이 지역에서 살아온 여성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추적하였다.¹⁾ 여러 할머니들의 제보와 이야기들이 있었으나, 앞의 두 할머니의 생애담이 주축이 되어 때로는 옆에서 자신들의 삶에 비추어 잊었던 기억들을 되살려주는 역할들을 두 마을의 노인정 할머니들께서 함께 해주셨다.

(1) 영등포에서 황계리로 시집온 유○○ 할머니의 이야기

유○○ 할머니(82세)은 1925년 경기도 가평에서 출생해서 9세에 영등포로 이사하여 17세 되던 해인 1941년에 황계2리로 시집왔다. 일제강점 말기 공출·징용과 같은 횡포를 피해서 흔히 있었던 조혼을 하게 된 경우이다.

1) 혼인과 시집살이

-서울에서 시집오셨어요?

=네. 열일곱에 영등포서 이리 시집왔어. 일본으로 공출보내는 거보다는 낫다고 갑자기 선 봐서 금방 시집왔어(하하하).

-시집오시기 전에 형제 관계는 어떻게 됐나요?

=우리 형제가 9남매에서 시방 다 죽고 나 하나 남았어. 9남매데, 육이오사변 때 끌려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고...

1) 두 할머니 모두 이름을 밝히는 것을 꺼리셔서 할머니들의 성씨만을 썼다.

-친정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서울토박이예요?

=아니, 가평. 원래가 가평이 고향이야. 가평에서 태어나서 아홉 살에 영등포로 이사 왔지.

-그러면 아버지는 뭐 하셨어요, 서울에서?

=아버지? 아버지 별거 아니지. 뭐냐면은 목상(木床) 장사했지. 상판. 가평서 하다가 영등포로 이사 왔지.

-시집은 어떻게, 누가 중매를 했어요?

=떠돌아다니는 사람, 땃돌 지고 다니는 사람이 여기는 모르는데, 땃돌 지고 품 팔러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이 같이 아버지하고 얘기해서 딸하고 여기 막내아들이 있어서 해자고 그래서 갑자기 선보고... 동짓달에 선보고, 그달 스무엿새 날 시집왔어. 할아버지가 5년 위야. 올해 돌아가셨어.

-할아버지께서요? 올해요? 장수하셨네요.

=어. 장수 하셨지. 근데 우리 신랑은 어려서 일찍 조실부모했어. 내가 시집왔을 때 시 큰아버지, 시큰어머니가 계셨지.

-멀리 시집오신 거네요. 시집오실 때 얘기좀 해주세요.

=혼사가 성사된 다음 기차 타고 내려왔지. 병점역에서 여기까지는 인력거 타고 들어와서 혼례를 올렸지.

-인력거 품삯이 비쌌어요?

=5월에 왔어. 비쌌어. 대절해서 나 혼자 타고 온 거지, 따라온 조카는 뒤쫓아 오고.

-어머니, 아버지는 안 오시고요?

=어머니, 아버지는 안 오시지, 그땐. 그때는 안 오지. 그때는 어디가 누가 쫓아 다녀.

-그럼 족두리나 혼례복은 어디서 구해서 입으셨어요? 여기 황계리에 있는 옷, 마을에 돌려 입는 예복인가요?

=마을에 있는 길로 족두리, 장옷 입었지. 예전엔 고무신도 없었어. 왜정 땐. 마른 신발 있었어, 마른 신발 하나 그날 사서 신고 왔더니 물에 젖으니깐 금방 절단 나서 썩신 신었지.

-할아버지는 선을 봤을 때 얼굴을 보긴 하셨어요?
=못 봤지, 그걸 어떻게 봐. 혼례하고 처갓집에 삼일 나들이 갔다 와도 얼굴을 못 봤는데, 어떻게 봐.

-처갓집 재행을 다녀오실 때까지 못 보셨어요?
=그럼, 어떻게 봐, 신랑 얼굴을.

-결혼하셔서 재행은 여기서 하룻밤 주무시고 가셨어요?
=아니지. 삼일날에, 여기서 이틀 밤 자고 가는 거지.

-그러면 친정에서 하루 자고 오셨나요?
=나는 안 갔지. 그때는 시집가면은 삼년 안에 못 갔어. 남편만 가서 이틀 저녁 자고 왔지.

-할머니 시집오셔서 큰집에서 시큰아버지, 시큰어머니와 같이 사셨어요?
=같이 살았어.

-할아버님(남편) 형제는 어떻게 되셨나요?
=없어. 여동생 하나 있었는데, 일곱 살에 죽고 없어.

-그러면은 큰어머님, 큰아버지가 건사하신 거구나. 큰집 형제는 어떻게 되셨는데요?
=많았어. 우리 큰어머니가 고생 많이 했어. 애미 없는 조카까지 키우느라고 고상 많이 했어. 지금도 흰 쌀밥하고 고깃국만 봐도 생각 많이 나. 시방도.(눈시울을 붉히신다)

-한 울타리에 사는 시집식구가 어떻게 있었어요, 시큰아버지, 시큰어머니하고...
=큰아버지, 큰어머니 계시고, 조카 있고, 조카 며느리, 우리 내외 살고.

-그러면 한 10명 정도 됐어요, 시집 가족이?
=열 명이 넘었을 거야.

-그러면 방은 몇 칸 썼어요?
=방 셋이지. 사랑방 하나하고.

-언제 분가를 하셨어요?

=이제 열일곱에 시집와서 스물하나에 분가했어.

-시집오셔서 일과는 어떠셨습니까? 아침에 해뜨기 전에 일어나시잖아요?

=그럼. 깜깜할 때 일어나지. 닭 우는 소리 듣고, 별 뜨는 거 보고. 방아 찌서 해먹고 도시락 싸 가져가고, 이제 어떻게 하다가 낮에 나물 같은 거 삶으려면 면에서 쫓아와서 야단을 치잖아. 뭐해네. 연기만 나면은 쫓아와, 그래서 노인네들 밥 퍼서 드리려고 했다가 퍼서는 다락에 감추고는... 뭐하러 불때냐구. 죄우지간 연기만 보면 쫓아오거든.

-쌀 공출하려구 감시하는구나.

=어. 그래서 뭐하느라구 불때냐구, 나물 좀 삶아 먹으려고 한다고. 걸리면 되게 혼나지, 왔다가 걸리면.

-할머니 아침에 일어나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부엌으로 들어가실 거 아니에요?

=그럼, 물 여다가 해 먹었지. 우물이 세 개 있었어. 죄 물 여다가 해 먹었어.

-그러면 마을회관, 새로 지은 마을회관에서 보자면 멀어요?

=여기 바로 가는데 어머니수퍼 있잖아, 그 수퍼 앞에 대동우물이었어요. 그 뒤에가 또 우물 하나 있고, 우리 앞애가 또 하나 있고... 신통미우물은.

-빨래터는 어디 있었어요?

=다 거기 가서 빨지.

-우물에서 했어요? 따로 빨래터가 없어요?

=넷가에 가 빨고 거가 빨지. 개울에서 빨지, 김치꺼리는 개울에 가 했지.

-할머니 농사는 마지기로 해서 얼마나 됐어요?

=한 섬지기 정도 되는데, 그러면 다 공출해 가는 거여.

-점심은 도시락 싸 가지고 가서서 밭일하시고, 논일하시고 빨래는 틈틈이...

=빨래 같은 건 밤이면 하지, 낮에 언제 해. 예전에 저녁이라도 잠을 못 자. 디딜방아 짚어야지. 까불러야지.

2) 출산과 자녀 양육

-할머니 첫 출산은 언제 하셨어요?

=에이, 큰아들 하나 낳은 거 스물한 살에 나아 가지고.

-아, 첫애 낳아서 분가하셨구나.

=육이오사변 때 아니, 윤4월 스무하룻날 나서 7월에 분가했어, 큰 아들은 죽고 시방 아들 둘에 딸이 삼형제야. 쉰한 살 먹은 게 큰아들이고, 마흔일곱 먹은 게 둘째 아들인데, 나는 지금 개하고 살아. 작은아들하고 같이 살아. 큰아들은 서울에서 살고, 제일 먼저 난 아이는 살았으면 예순둘이고 또 하나 죽은 아들은 육이오 사변 때 죽고...

-첫애 낳을 때 애는 누가 받아주셨어요?

=시큰어머니가 받아주셨지.

-둘째, 셋째도 그 할머니이 다 받아주셨어요?

=아니지, 첫 아이 낳고 분가했으니깐.

-그러면 누구 부르셨어요, 아이 낳 때 산파 없었어요?

=산파가 어딴어? 혼자 자연분만이지. 혼자 나면은 노인네(시큰어머니)가 밥 해다 주고...

-그러면 혼자 뒷마무리도 다 하셨어요?

=그렇지.

-출산하고 나면 미역국 같은 거는 그 할머니이 다 해다 주셨어요?

=아니, 큰집에서 낳은 첫애 때만 미역국도 얻어먹었지, 그냥 끓여 먹고 그랬지, 노인네가 끓여다 주기도 하고.

-그러면 금줄 같은 거는 누가 만드셨어요?

=해 달았겠지.

-누가 하셨는지는 모르고요?

=아유, 이제 기억이 나나. 애 아버가 했겠지.

-그 당시에도 금줄 같은 거는 다 했지만, 재도 뿌리고 그러잖아요?

=다 했지, 텃줄도 태워서 뿌리고 다 그랬지.

-만약에 애가 아프면 옛날에는 어떻게 하셨나요? 침이나...

=일이 생기면 수원으로 가고, 그냥 앓다가도 낫고 그랬지.

-황계리에는 할아버지 중에 침을 놔주거나 그런 분 없었어요?

=침 놔주는 할아버지가 있었어. 이 집에(한 할머니를 가리키며) 시아버지가 침 잘 놔
어. 체하고 그러면 마을사람들이 이 집을 가. 잘 낫고 그랬어.

-그 할아버지 성함이 뭐였어요, 누구네 할아버지라고 하셨어요?

=파평 윤씨네요. 따주면 나아, 체하고 어찌면.

-약방 같은 거는 있었어요?

=없었어.

-그러면 약 같은 거 구하려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수원까지 걸어가지. 참 우리네 살던 걸 생각해보면 기가 막히지. 그래도 이렇
게 오래 살잖우?

-할머니 첫째 출산하신 게 시집오셔서 한 4년만인데요, 그때 할아버지가 좋아하셨
어요?

=좋아하는 게 어딴어! 다 부모가 맺어준 거니깐 사는 거지. 좋아하고 나빠할 게 어디
있어. 그래도 두 내외가 서로 이랬냐 저랬냐 소리는 안 해보고 살다가 죽었어. 나보고
밥 먹으라는 소리도 '밥 잡쉬' 그러지, 뭐뭐 하라는 거는 없어.

-자녀분을 낳고 나서 생활은 어떠셨어요?

=언네 낳고 3일이면 일어나 나와야 해. 밥하고 쇠죽 끓이고... 애들은 내팽개치고 들
에 가서, 밭에 가서 저녁이나 오고... 참 애들 기르던 생각을 하면 불쌍해 죽겠어. 그냥
끓어 가며, 기어 댕겨 가며 그 기어 댕기다가 무르팍이 죄 헐어서... 그렇게 살았는데,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었어. (눈물을 흘리시며) 남의 밭에 그럼 품 팔러 다녔지, 품앗이 댕
기는 거지. 목화밭이고 뭐고 왜 저 품앗이 댕기잖어. 하루는 저 집 가고, 하루는 이 집 가
고 뭐 그러면 애들은 애들대로 정일 굶는 거지. 시방 애덜 키우는 거 보면은 정말 다르

지. (눈물을 흘리시며).

-할머니, 임신이나 출산과 관련해서 옛 어른들이 액막이 하는 비방들이 있잖아요.

=사혼날 그렇지 뭐, 인줄 매놓으면 그냥 그런 거지. 이들나면 고추 달고 숯 달고, 딸 나면 숯만 달고 술가지 달고...

-여기는 아이들이 아프면 병원은 어디로 다니셨어요?

=수원으로도 다니고, 병점·안녕리로 가고 그러는데, 그것도 옛날에는 병원이 어디 있어. 그렇게 웬만하면 죽게 아파도 가지를 못했다니깐. 병원이 어디라고 가 그때는. 그렇게 홍역하다 한 집에 둘씩, 셋씩 죽은 집이 많았어. 그래도 병원엘 못 갔어.

-할머니 자녀분은 여기서 자랄 때 학교를, 초등학교는 어디를 다녔어요?

=여기. 화산.

-화산초등학교 졸업하면 진학은 어떻게 해요?

=진학은 주로 안용중학교 땡기고... 난 없어서 공부도 많이들 못 시켰어. 둘째 아들만 고등학교 가르치고... 안양고등학교가... 저 수원, 서울 가는데, 여기 병점 가서 기차타고... 우리 막내딸은 수여고 다녔고... 못 가르쳤어요.

-자녀들 혼례는 누가 제일 먼저 치렀나요?

=큰딸부텨 갔어. 용인으로 시집가서 잘 살아.

-그러면 혼례식은 어디서 하셨어요?

=여기서 해 가지고 그리 갔지.

-혼수장만은 어떻게 하셨어요? 뭘 해 주셨어요?

=혼수 뭘 해줘, 그 전에는. 그저 치마저고리지. 이불이나 해주고 그만이지. 그걸 뭘 그렇게 많이 해줘, 예전에는.

-그런 혼수 장만은 어머니가 일일이 만드시고 하잖아요. 언제 마련하세요?

=남의 집 일들은 많이 했지만, 바느질만큼은 내가 다 해서 만들었지. 동네 혼수도 내가 다 했지. 시방은 해래도 못하지. 그때는 숨 뭘 이불이야 뭐야 함 속에 넣는 것도 내가 다 해주고 했는데...

-큰따님 시집보내실 때 함은 언제 받으셨어요?

=함? 뭐 치마저고리 받았지. 결혼하는 날, 그 날 받았지.

-할머니 자녀분들의 혼례는 다 중매혼 시키셨어요?

=어, 다 중매로.

-그러면 그런 중매쟁이는 주로 어떤 관계였어요? 대개 친지분이신가요?

=친지분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3) 고된 농사일과 황계리 사람으로 살아가기

-할머니 신랑이요, 당시에 농사 말고 뭘 하셨어요?

=여기서 농사짓고 열세 살 때부터 마차 끌었어. 왜정 때 토막나무 일본에 수출하는 거는 거의 다 끌었어.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날라요, 병점역까지? 수원역까지?

=병점이 아니라 저 먼 데까지 실어달라는 대로 다 다녔지.

-그러면 할아버지 소유의 마차가 있었어요?

=소마차 끌고 다녔어.

-할머니 댁에 소가 몇 마리 있었어요?

=마차 끄는 소 한 마리 있었지.

-농사짓는 소는 따로 없어요?

=농사짓는 데는 그 소 마차 안 끌러 가는 날 일하지. 그때 사람들이 비행기장에 보국대를 갔는데, 마차 끄는 사람은 안 나갔거든. 안 나갔는데, 우리 큰집 조카가 가서 며칠 있다가 자기 배고파서 못 살겠다고 아저씨는 배고파도 참으니까 아저씨가 대신 가라고 가서 살고 나니깐 마차 배급을 끊어. 보국단 들어갔다고 두 달 살고 지쳐서 못 견디겠다고...

-할아버지도 비행장 보국대에 갔어요?

=어, 가서 두 달 살았어. 마차 끄는 사람은 보국단에 안 가는 건데, 가서 그거 안 끌었

다고 또 그거 배급을 또 물고 나와야 돼. 그래서 두 달을 살았지.

-집안의 생계는 할아버지 마차 끄는 걸로 하셨어요? 농사도 또 따로 지으셨어요? 할머니 농사일 하셨지요?

=농사일 했지. 목화 심고그 했어. 목화 공출 보내는 거 있잖아, 농사지으면 쌀 못 먹어 봤어, 다 공출 나가고, 그저 추수하고 좀 주워 먹었지.

-여기 목화 많이 심었어요?

=많이 했어. 물레질하고 하면은, 밤이면은 실 좀 만들려고 물레질 하다가 일본인이 밤에 쫓아오면 물레 죄 때려 부수고 지랄들 했잖아. 그러니깐 물레 조금씩 해서 실 좀 만들어 쓰는 것도 못하게 하고...

-할머니 몇 세 때 해방이 됐어요?

=스물한 살에 팔일오 해방이 됐다니깐.

-할머니 시집오셔서 이제 왜정시대 말기를 보내시는 거잖아요, 그때 막 공출도 심하고 말하자면, 일본 사람들이 대동아전쟁이라고 전쟁 일으켜서 (조선)사람도 잡아가고 일도 부려먹고 그러던 시기잖아요?

=여기는 비행장 만드는 일 시켰지.

-일본 사람들이 황계리 사람들 비행장 일 많이 시켰어요, 비행장하고 가까워서?

=어. 일본 사람들이 점말 위에 많이 살았어.

-그 사람들은 뭐예요, 노무자예요?

=노무자도 있고 뭐 별거 다지 뭐. 아이고 많아.

-거기 동네 이름이 뭐예요, 일본 사람 모여 살던 곳, 뭐라고 불렀어요?

=점말, 1리, 황계1리.

-그 사람들 해방되면서 막 쫓겨갈 때 마을 사람들이 안 때렸어요?

=안 때렸어. 그냥 쫓겨 갔어, 여기서 살던 거 그냥 다 내던지고 그냥 쫓겨 갔어, 잘 살던 사람도 다 아무것도 못가지고 그냥 쫓겨 들어갔어.

-그러면 그 사람들 살던 거 그거 누가 다 가져갔어요?

=그거 여기 사람들이 지고 나는 사람이 갖는 거지 뭐. 여간한 사람들은 참견 못하지. 그거 좀 난 체 하는 사람들이 다 차지하는 거지. 자주 드나들면서 그 집이 일봐주고 하던 사람들이 가진 거지.

-장은 어디로 보러 다녔어요?

=수원장 아니면 오산장으로 가는 거지. 장이라고 뭐 저거 할 거 뭐 있수. 보리쌀이나 콩 한 말이고 두 말이고 머리에 이고 가서 팔아오는 거지. 걸어갔다 걸어오는 거지.

-주로 파는 거는 그런 보리쌀이나 콩 같은 곡물들이고, 주로 뭐 사와요?

=돈만 만들어 오는 거지. 뭐 크게 사오는 거 없어.

-남문시장 가시려면 아침에 출발해서 걸어가면 몇 시간이나 걸려요?

=뭐, 갔다 오면 해가 다 가는 거지.

-떨감 같은 건 누가 해왔어요? 어디서?

=해 오지. 그냥 여기 능에 가서 해오지, 그것도 일주일만끔씩, 열흘만끔씩 터줘. 시간을 주면 그 안에서 나무를 해오는 거지.

-한국전쟁 났을 때 피난 가셨어요?

=피난 갔었어. 조암으로 갔지. 우리 큰딸하고 큰아들 하나 낳아서 우리 큰집 식구하고 가서 방 한 칸에서 네 집 식구가 살았어요.

-아는 집이었어요? 피난 집이?

=그렇지, 친척집이지. 한 20일 만에 왔나, 한 달 만에 왔나.

-여기는 비행장 때문에 폭격이 심했다고 하던데...

=여기 오니까 나무도 펍 많이 해다 놓은 것도 없어지고, 울타리도 죄다 다 뜯어내고 피난민들이 와서... 서울서 내려와서. 울타리에 나무도 하나도 없고 또 기둥만 몇 개 있고,

-전쟁 끝나고 피난민들이 다 돌아갔어요?

=전쟁 끝나고 갔지. 그러니깐, (피난갔다가) 돌아오니겐 똥하고 재밖에 없더라니깐...

-할아버지는 전쟁 때 별 피해 없으셨어요, 어디 끌려가거나...

=어, 다들 갔는데, 우리 집 노인네는 안 갔어.

-여기 폭격은 어땠어요?

=많이 했지. 바깥에 나가는데, 그냥 비행기에서 여기 내려치고 지치고 난리가 났지. 밥 가지고 나가서 밥들도 못 먹고 논두렁으로 다 팽개치고 냇갈로 건너와서 움막살이 집에 들어앉아 있다가 폭격 끝나면 뿔뿔이 헤어졌지.

-폭격으로 죽은 사람도 있나요?

=동네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죽지는 않았어도... 저기야 이때나 그때나 인복은 있었는지, 육이오사변 때 피난 갔다오니깐, 빨갱이들이 살터라고, 우리 집에서 살어.

-인민군이 빈 집에 와서?

=그렇지, 사는데, 장정들이 밥해먹고 사는데, 그래도 어떻게 봤는지, 보국단(의용대) 갈 건데, 며칠을 지나고는 얘기를 해. 저 주인 양반 아버지는 나가면 큰 일 나니젠, 될 수 있으면 안 가게 할 수 있다고 지들끼리 그래. 어떻게 해서 안 가게 해주나 했는데, 보국단 나왔는데도, 저 대황교까지 갔는데, 저기야 안 가고 주인 아버지 못 가게 해라고 안 가게 해라고. 빨갱이들이 주인 아버지 내가 꺾어보니깐, 그렇게 맘씨 좋고, 나가면 죽으면, 이번에 가면 가는 거니깐, 뛰어나가서 데려오는데, 비행장에서 내려올 때, 대황교에서 내려오니젠, 비가 부실부실 왔어. 큰아들이 수건을 가지고 쭈그리고 앉아 있으니젠, 빨갱이들이 손뼉을 쳐가면서 아이고 세상에 주인 아버지는 이제 살았다고 그러면서 손뼉을 쳐.

-그 사람들은 할머니 댁에서 얼마나 같이 살았어요?

=한 20일 정도 돼. 냇갈 다리 밑창에서 살고, 밥만 우리 집에 와서 해 먹고, 남에 집에 와서 살지도 못했지, 그냥 다리 밑창에 있는 거지.

-할머니, 중공군도 보셨어요?

=중공군은 모르겠고, 인민군만 봤어.

-전쟁 끝나고 나서 많이 가난하고 어려웠잖아요, 그래도 이제는 우리가 먹고 살만하
다 한 게 새마을운동 하면서부터였나요?

=아이고, 아니여. 어려웠어. 우리는. 수수도 먹고 좁쌀 찌서 먹고 그랬어.

-할머니처럼 여기로 시집오시는 분들 고향이 대체로 어디 분이 많으세요?
=본토배기는 저 아줌마 하나고(79세의 신씨 성을 가진 할머니를 가리키며), 조암서도
오고 배미서도 오고.

-배미가 어디예요?
=우리 피난갔던데, 조암 쪽에.

-마을에 우물고사가 있나요?
=어이, 그거 고사 지냈는데, 시방은 안 해요. 대동우물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우물고
사는 안 지내고 산고사만 지내.

-산고사요? 그건 언제요?
=일년에 한 번씩, 음력 9월 그믐날에 지내요. 산에서.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제사비용 조금씩 걷어내요?
=다 걷고 소 잡아서...

-소도 잡았어요? 여기 산에 골프장이 생기고도 지내요?
=그럼. 노다지 지내는 거지. 지금도 지내요.

-지금까지요?
=그러মন요. 이번에도 했어요. 지내던 거 해예지.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황계2리의 동민들만이에요?
=예, 소 잡아 가지고.

-이 산고사 말고 또 마을 사람들이 함께하는 게 또 있어요? 마을총회 같은 거, 이장
수고했다고 1년에 보리쌀 한 말 뭐 이렇게 걷어서 하는 거요?
=어이. 그거 해요. 내일 한다나봐 아마. 1년에 한 번 하지. 그전에는 여름에는 보리쌀
하고 했는데, 지금은 쌀 한 말 하지.

-쌀 한 말, 그럼 이때 이장을 다시 뽑기도 하고 더 시키기도 하고 뭐 이런 거 얘기하죠?
=어이. 쌀 한 말씩 걷어 가지고 모인 김에 그런 거 하지.

-또 마을 사람들이 함께 노는 게 뭐 있었어요?

=뭐 그러고는 추석 때나 뭐 명일 때나 놀고 그러는 거지.

-예전에 할머니 젊은 시절에 농사지을 때 농악하고 놀던 사람들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제 안 해. 마을에 상쇠니 뭐니 있긴 있었어. 지금은 안 해.

-이 마을에도 사람 죽을 때 쓰는 상여 있었어요?

=있었는데, 시방은 없어. 시방은 장의차 데려다가 다 해.

-옛날에는 상여는 누가 메웠어요, 상여꾼을 어디서 사왔어요?

=그냥 동네 사람들이.

-마을 안에 무덤 쓰는 데가 있어요?

=없어, 옛날에는 있었는데, 시방은 다 화장을 하니깐 없어. 우리 노인네도 그냥 화장했어.

-음식 만들 때요, 옛날에는 제일 중요한 게 장 같은 거 1년 먹을 장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거 만들 때 누가 주로 하시나요?

=다 동네가 나서서 하지. 다들 모여서 한꺼번에 하는 거지.

-장은 언제 담그셨어요?

=정월. 된장 고추장 정월, 2월
그랬지 일찍 담구면 정월이고...

-가을장은 없었어요?

=없었어요. 시방도 장은 담귀요,
매주 주고, 장 담귀요.

-김장은?

=입동 지나면은 하지.

-김장은 몇 포기나 하셨어요?

=뭐, 옛날에는 배추가 지금처럼 잘 됐수. 그저 되는 대로 먹을 만치 하는 거지. 큰 독



황계동(황계2통) 신중순 할머니(79세)와 며느리가 함께 매주를 만들고 있다.

에다가 하는 거지. 지방처럼 김칫통에 뭐 묻기를 하나 뭘 하나 편하지 뭐.

-할머니, 할아버님하고 사시는 동안 별 다툼 없이 사셨다고 했는데, 사시면서 뭐가 제일 좋으셨어요?

=좋은 것도 뭐 그런 거 모르고 법으로 살았지, 어른이 맺어주셨으니까 법으로 살았지, 뭐 좋아서 살고 나빠서 안 살고 뭐 그런 거는 아니지. 법으로 살았어.

-할아버지가 제일 고마웠을 때는요?

=뭐 만날 그렇지 뭐. 욕만 안하고 씬만 안했다 뿐이지. 사는 게 뭐...

-그러면 시집살이도 하시고 이렇게 사시면서 가장 서러웠던 게 뭐예요?

=에이, 고생 많이 했지. 부모 없는 사람한테 시집와서 그래도 자식 키우고 부모 노릇 한다고는 했는데...

-할머니 이제 여기가 고향이나 다름없을 텐데요, 노인정에 나오시면 주로 어떻게 보내세요?

=노인정에 잘 나와. 내가 나이가 많아서 화투는 안해고, 여기 할머니들이 다 친구지 뭐. 옛날 얘기도 하고 음식도 먹고... 뭐 할게 있나 오며 가며 자주 와.

-여기 연장자 어른이시지만 건 강해 보이시는데요, 할머니님 마지막으로 소원이 있다면 뭐예요?

=소원? 오래 살았으니까... 그냥 오늘이래도 그저 편안하게 자식들 고생 안 시키고 가는 게 그게 이제 소원이지. 난 딴 거 없어. 그저 자식들 걱정 안 시키게 하는 게... 그 거지 뭐.



황계2동 노인정 할머니들께서 오후에 여가를 보내시며 조 사자의 질문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긴 시간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세요.

(2) 안녕리에서 동네 혼인한 최○○ 할머니의 이야기

최○○ 할머니(72세)은 1936년에 안녕리에서 태어나신 토박이이다. 아버지의 동네친구분이 시아버지가 된 경우로 16살 되던 해에 한국전쟁으로 혼란한 시기에 양가 어른들이 서둘러 중매쟁이도 없는 혼례를 올리게 되었다.

1) 시집오기 전의 유년시절

-우선 할머니 출생년도가 어떻게 되시나요?

=1936년생이지.

-여기가 태안읍 안녕동이죠?

=그렇지. 전 집은 돌고지에서 살았어. 더 예전에는 노인정(안녕동 삼거리에 있는 화산동노인정을 말함) 앞이 우리 집이었어. 그 위에서 시집가고, 고려병원 자리로.

-할머니 어린 시절에 부모님들은 생업이 농업이셨죠?

=그렇지. 우리 친정도 그렇고 시집도 그렇고 그땐 맨 천지가 다 농사지 뭐.

-아버님도 여기 출신이셨어요?

=네. 출생은 조암에서 하셨는데, 어려서 안녕리로 들어오셔서 여기서 살다가 돌아가셨지.

-그러면 할머니 아버지만 들어오신 거예요, 아님, 할머니 할아버지도 함께 오신 거예요?

=아니, 우리 아버지만 혼자 어려서 살기 어려우니깐, 이제 이 동네에서 엄마를 얻은 거지.

-아, 그럼 외가도 여기예요?

=예 원래 여기예요. 그리고 또 시집식구들하고 같이 자라면서 나는 동네 혼인 한 거예요. 시아버지가 우리 아버지하고 친구데, 늘 며느리 삼게 해달라고 그러는 바람에... 중매도 없이 그냥 한 거지. 이제 서로 같이 놀면서... 신랑하고도 어려서 같이 놀고, 시동생하고 욕하고 싸움하면서 그랬지. (하하하)

-할머니 친정 형제분은 어떻게 있으셨어요?

=7남매인데... 일곱에서 밑으로 둘이 있으니깐, 다섯째. 오빠가 셋, 언니가 하나. 근데 우리 오빠는 시방 서울에서 살아요. 육이오 때 실명했어. 다른 사람들은 죽고.

-아버지가 농사는 많이 지으셨어요?

=얼마 못 지셨어요. 그전에는 땅도 내 땅이 아니고 남의 땅 얻어서...

-동네에서 할머니집이 경제적으로 어떠셨어요?

=다 어렵기는 했지만, 나는 더 어려웠어. 오빠들이 없어지고, 나 열여섯에 시집오고 열일곱 살 먹던 해에 엄마, 아버지 다 돌아가셨으니깐.

-해방이라든가 한국전쟁이라든가 그런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지내신 이야기들을 좀 들으려고 하는데요, 먼저 해방 무렵에는 할머니가 1936년생이시니깐, 아마 10살 무렵이었을 것인데, 기억이 있으세요? 일제시대 때 워낙 어린 나이여서 기억되는 게 많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때 정황이 생각나는 게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그저는 해방되던 해에, 일본 놈들 여기서 살았거든. 노인정 위로 한 여섯 집 되나... 농사짓고, 그놈들도. 논농사는 아니고 밭농사. 그렇게 살았거든. 우리 친정아버지도 그 집에 일을 많이 도와줬어. 참외 같은 것 심고 토마토 심고 우리 아버지가 다니면서 도와 줘서 참외고 뭐고 얻어오고 그랬거든. 그랬는데 해방되던 해에 이놈들이 해방이 되니깐, 끌어내서 때리고 그러니까 뭐 도망가고...

-그 사람들 쫓겨 가고 나서 집이랑 땅이랑 세간살이 이런 거는 다 어떻게 했어요?

=나는 모르지, 어려서.

-일본인과 같이 놀지 않았나요?

=안 놀았지. 우리는 산에다가 반공 연습한다고 줄을 매고 거가 들어앉아있었고, 나무 밑에 가서 저기하고 있었고, 일본 기집애들이 열 서넛 되는 거 같아. 그 애들이 학교를 어디로 다녔냐면은 그전에 나 야학 배웠다는 데, 까치고개. 거기 일본학교가 쫓그맣게 있었다고. 그러면 우리들은 밤나무 밑에서 놀다가 그리로 가면은 우리들이 막 욕하고 개네들이 지랄하고 막 싸우고 그랬어.

-어린 마음에도 일본 사람이고 조선 사람이고 이게 있었나요?

=그렇지. 그때는 제사도 못 지내게 하고, 밤에 몰래, 새벽에 몰래 지내고, 촛불만 켜놓

고 얼른 제사 지내고,

-일본 사람들 때문에?

=그렇지. 뚫그릇도 다 뺏어 가고... 그리고 옛날에 저기 지금 존슨대통령 비 세운 데 거기에다 신사를 해놓고 거기 이제 저 다리에서 건너서 들어오면 거기서 꼭 인사하고 들어오고 그랬다구.

-할머니 뚜렷이 기억나는 게 한국전쟁일 텐데요. 1950년이니깐, 할머니가 열네 살, 열다섯 살 됐을 텐데... 할머니가 시집가기 바로 전에, 그때 전쟁이 났다는 것을 어떻게 아셨어요?

=뭐 막 총 쏘고, 폭격하는 소리 나고 다리 끊어지는 소리 나고 그러니깐 알지.

-여기는 비행장 때문에...

=어, 비행장 땀에 그랬지. 피난가고...

-비행장 때문에 피해가 많았을 텐데, 할머니 댁도 피난 가셨어요?

=갔었지. 여기서 조암 못 가서 발안 동오리라는 데가 있어. 그리로 피난을 갔다가... 그리 땡기고 왔다가 또 난리가 났어, 그래서 또 보통리로 갔다가 또 들어왔다가... 맨날 뒤집어 이고 다니고...

-그렇게 피난 가면 누구네 집 방 한 칸 빌려서 있는 거예요?

=다 집안네. 처음에 갔던 발안 쪽은 우리 친정 큰올케 친정언니네 집이, 또 보통리로 갈 때는 우리 아버지 친척 되는 조카며느리네고, 가면 뭐 시집식구들도 붙어 다니고 했다고. 같이 가고 같이 가고. 가면 앉아서 밤새고, 집이 좁으니깐.

-폭격으로 인명 피해도 많았어요?

=있었지. 그리고 한번은 우리 남동생하고 오니깐, 저기 앞집에가 우리 집 앞에 길이고 옆으로는 집이고, 또 옆으로 초가집이 있는데, 보니깐 비행기가 막 와. 그래서 그쪽에 화장실로 들어갔다가 똥지 떨어져서 나와서 보니깐, 초가집에 꽂혀서 막 연기가 나고...

-그렇게 마을에 폭격한 것도 많이 목격을 하셨겠네요.

=네. 집 탄 거 많이 봤어요.

-할머니네 집은 피해는 없었어요?

=왜 없었어. 담벼락이 무너지고, 우리 시집에도 고려병원 자리 팔아먹은 것도 저쪽 벽을 뚫고 이쪽 담벼락에 뒤흔들고 뚫고 바닥까지 뚫었어요. 그런데 또 밥하다가 부엌에 들어가 불을 때는데 비행기가 오잖아, 그래서 아궁이에다가 물을 끼얹어버리고 광에 들어가서 대가리만 감추고 있었다고, 그러고 나니깐, 조금 있다가 여 뒷집에서 총 맞아 가지고 사람이 왔어. 근데 그걸 누가 어떻게 해 그거를. 그래서 보따리 싸서 내빼니깐, 지금 시방 고려병원 위에 집이 집안넌데, 뭐 그때는 집안도 아니지. 내가 시집을 안 갔을 때니까, 근데 거기서 안에서 사람 살리라고 소리를 지르더라고, 그러는 걸 보고 그냥 내뺐지, 그걸 들여다 볼 새가 어딴.

-그러면은 집안네에 돌아가신 분도 있고 했어요?

=그럼 있었지. 마을 사람들.

-인민군이라든가 중공군이라든가 보셨어요?

=어. 처음 쳐들어와서. 겨울에 봤어.

2) 맵고 매운 시집살이

-할머니 결혼을 열여섯에 했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할아배(남편을 지칭)는 열여덟.

-그럼 결혼 하실 때 전통혼례 하셨죠?

=그렇지. 우리 집에 와서 결혼해 가지고 족두리 쓰고 가마타고 오고 우리 신랑은 걸어오고...

-할머니 혼례하는 날 혼례복은 어디 있었어요?

=여기 있었지, 안녕리에. 예전에 동네 상여도 있고 다 있었는데, 시방은 없지.

-혼례하고 바로 본가로 가셨어요?

=그때, 지금 경로당 위가 그때 저기가 산이었어. 미군부대도 있고 해서, 미군들도 와 가지고 혼인하는 거 보고, 색시가 이쁘다, 이쁘다 그랬다고.

-그때 신랑 다룬다고 하는 놀이 있었잖아요? 기억나세요?

=신랑 발바닥도 때리고, 재를 뿌리고 또 함진애비 얼굴에도 숯검댕이 발라주지. 그리고 집에 들어올 때는 양푼에다 물 하나 떠나놓고, 바가지 밟고 솔뚜껑 밟고 숟갈 잔뜩 쥐고 양푼에다가 와르르 쏟아요, 색시가. 잡귀 물러가라고 그러는 건지, 왜 그러는 건지. 그땐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첫날밤은 시집에서 치르셨어요?

=그렇지. 시집에서.

-폐백도 그날 바로 드렸어요? 어떤 분들...

=네. 시부모님, 큰집 식구, 시동생, 시누들. 집안네 있으면 또 하고...

-첫날밤 치르고 재행은, 처갓집이 가까워서...

=없었어요. 없고 그냥 함도...

-함은 언제 받으셨어요?

=결혼하는 날 가지고 오고, 미리 사주라고 함도 안 사고 보자기에 싸서 집안네 노인네가 들고 왔더라고.

-할머니 친정집하고 시집하고 거리가 멀었어요?

=아니, 가까웠어요. 동네 혼인은 원래 잘 안 해요. 잘 안 하는데, 하면 또 해. 와 가지고 시집살이 얼마나 독하게 했는지 몰라.

-아는 집으로 시집온 건대도요?

=그럼, 우리 시어머니가... 쪼그마한 노인네가. 쌀도 내주고 그러는데, 아이고 독해.

-남편의 형제네요?

=우리 시어머니가 11남매를 나셨어요. 남은 게 시방, 여기도 3형제 남았어. 결혼할 때는 동갑 시동생이랑 5남매가 있었어.

-그럼 할머니 시집갈 적에 신랑은 몇 째였어요?

=둘째. 둘째이긴 한데, 형이 일찍 죽어서 만이지. 형제들이 삼형제야. 나 시집가기 전에 어려서 다 죽었어요.

-시아버지, 시댁도 농사지으셨지요?

=네. 시아버님이 농사를 많이 지었어요. 스무 마지기. 한 섬지기지. 그리고 밭농사 좀 하고.

-시집오셔서 그럼 농사 할머니도 많이 하셨겠네요?

=그럼 열여섯부터 일만... 나는 또 애가 늦게 들어서서, 시집오기 전에 친정에서는 그런 거 안 해봤어.

-그러면 결혼해서 분가 안 하고 시부모님 · 시동생들과 같은 울타리 안에서 사셨어요?

=그렇지.

-그러면 그때 방은 어떻게 쓰셨어요?

=시아머이 쓰는 방 있고, 나 쓰는 방 있고, 시동생 방 있고, 시동생 방은 장가가면서 터를 하나 더 달아서 만든 방이지.

-분가는 그럼 언제 하셨어요?

=분가 안 했어요. 우리 할아배(남편)가 내가 된 일 때 돌아가셨으니깐, 21년. 돌아가신 지 21년이네. 그보다 3년 전에 우리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제사도 한 날이여. 우리 시어머니는 윤달 초파일에 돌아가시고 할아배는 본 달 초파일에 돌아가시고. 윤달이라 우리 영감하고 제삿날이 같아.

-그럼 시아버지는?

=우리 시아버지? 그렇지. 결혼한 지 아홉 해만에 첫째 낳은 거보고 선달에 돌아가시고 그 애는 다음해 3월 죽었으니깐. 우리 시아버지는 오래 됐지.

-그래서 홀시아머니 모시고 분가고 뭐고 없이 사신 거군요?

=그렇지.

-결혼해서 할머니 남편은 직업이 뭐였나요? 농사 지으셨어요?

=농사지 뭐.

-그럼 시아버지가 지으셨다는 20마지기 농사 같이 지으신 거예요?

=그렇지.

-시아버지 돌아가시고는 남편이 다 지으셨겠네요?

=그런 건데... 우리 시동생이 다 들어먹었어.

-시동생이 무슨 사업을 하셨나요?

=서울 가서 취직한다고 해 가지고 그 돈을 남의 걸 다 돌려주지도 못하고 다 써버려서 못가는 사람이 저기 해서 들어갔지 뭐여. 그래서 변호사를 사네 뭐를 사네 그러니 시골에 돈이 어딴수. 그러니 급히 (땅을) 내놓으니 더 싸게 해달라는 거지. 그래 논 20마지기를...

-그걸 한꺼번에 다 파셨어요?

=네. 20마지기가 넘었지. 그랬던 건데...

-그게 몇 년도쯤인데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큰아들이 지방 마흔하나 말띠인데... 큰아들 막 태어났을 때 들어가 있었으니까. 시동생이 노동청을 들어갔다고. 그래 노동청에 들어가면 벌이도 괜찮았다고... 좋은 직업이라 말이야. 그런데 그 사람들 서독가고 어디가고 월남가고 하는 걸 돈을 주고설랑 하러가고 그러는데, 이걸 돈만 받고설랑 나중에 이저 그 돈을 물어놔야 되는데, 그 돈을 흘랑 써버리고, 흥청망청 써버리고 그 사람들이 못 가게 되니깐 내 돈 내놔라 이거지.

-그래서 그거 때문에 뒤치다꺼리하시느라고 20마지기 넘는 논 다 파시고...

=다 팔고 이제 몇 마지기 남았나, 한 8마지기가 조금 넘나... 그런데, 다 팔아먹고 없는데, 우리 재 아버지도 이제 힘들어. 시아버지는 돌아가 없는데, 시동생이 나대니까... 논을 마저 팔았는데, 그걸 누가 또 빼대기를 쳐 가지고 다시 살라고 그러니깐, 같이 대니던 여자가 또 돈 계를 들면, 계를 들어서 몇 번을 줄 게 타라. 타면은 그러면은 4마지기 살 거 8마지기 산다 그래 가지고 꾀임에 빠져 가지고 했지 뭐야. 아, 그랬더니 그 이자가 어딴수, 시골에서. 이자 준다고, 준다고 그러더니 이자를 안 가져오지 뭐야. 이자를 안 가져오면 계돈을 어떻게 붓느냐 그랬더니 설랑 골 나 가지고 내가 그러면은 도로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가져온다고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또 돈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 시엄니가 이제 이왕 계든 돈, 재워 둔 돈 그냥 뒤라 그리고 담부턴 이자나 잘 가져 오나라 요 담부터는, 내 물 길러 간 사이에, 그 전에는 물 지어다 먹고 했잖아. 물 길러 간 사

이에 노인네가 신랑한테 돈을 도로 내줘버렸어요. 그랬더니 이내 안 주는 거여. 여태 못 받았어. 그때 돈 6만 원이여. 6만 원이면, 시방 마흔한 살 먹은 놈이 어려서인데, 6만 원이면 땅 한 평에, 논 한 평에 230원씩 했어.

-할머니 시집오셔서 일 많이 하셨잖아요? 집안일 말고도 농사일이며...

=그럼 많이 했지. 밥하고 툇치고, 물 길고, 배 타작하는 거, 배 비는 거 뭐 다 하는겨.

-그러면, 시집오셔서 초기에 신혼 생활하던 시절의 일상생활을 떠올려보세요,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는지부터?

=새벽이지, 시계가 없으니, 시방은 시계가 있어도 안 차고 다니지만, 그래 가지고 시동생이 나하고 동갑인데, 그때 중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우리 시어머니가 밥을... 시계도 없지. 그래서 이렇게 창문을 열고... 시방 경로당 옆에 고려병원이 있어요. 그제 우리 집터였어요. 예전에. 저기 산에서 보면 셋별이, 새벽 셋별이 뜬다고... 그제 산에서 요만큼 빠져나오면 그때 밥하면 툇 알맞거든. 문을 노상 열고 내다보고, 내다보고...

-그러면 가족 중에 제일 먼저 일어나셨겠네요?

=그렇지. 우리 시어머니가 '애 시간 넘은 거 같으다 밥 안하니?' 그러면 좋잖아. '밥 안하니!' 그러면서 쏘아 붙여. 그리고 맨날, 예전에는 담벼락에 유리창 달아놔잖아. 밤날 그리 내다보고 시집살이 시키고...

-그럼 아침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학교 가는 시동생 밥해주는 거네요.

=그렇지. 기차 통근차 타고 수원역에서 내려서 수원중학교라고... 그때는 기차 놓치면 못 갔어. 버스 같은 게 없으니까. 근데 반은 타고 반은 걸어가는 거여. 여기서 병점 나가야지, 또 역에 내려서 걸어가야지.

-그러면 식구들과 아침 드시고, 치우고...

=그렇지. 먹고 치우고 그러면 일가는 거지.

-일 가면은 시아버지, 남편, 시어머니 다 함께 나가시나요?

=우리 일할 때는 식구가 다 가고, 남에 일 품앗이 가면 각자 품앗이하러 가는 거지. 나는 나대로, 신랑은 신랑대로 가고 하는 거지.

-오전에는 농사일 거들다가 또 끼니 챙겨야 되잖아요?

=그렇지, 우리 집 일하는 날이면 나도 나가면 밥을 싸 가지고 가고, 또 특히 내가 안 갈 때는 밥을 해서 내가 들고 나가지. 그리고 저녁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빨래는 그럼 주로 언제 하세요?

=아침에 하고, 일 안 나가는 날에 해야 되고... 집에서 뜨거운 물, 군불 땀 거 밤에 비벼놔다가 아침에 가서 방죽에 가서, 겨울께는 저기 방죽 뒤로 돌아가고... 그렇지 아니면 저기 병점 가는 다리 있지. 거까정 이고 가서 다리 밑창 가서 여름에도 하고... 까치고 개서도 나오고...

-병점 다리 밑이 큰 빨래터인데 머니깐, 여기 방죽으로 다녔어요?

=어, 뒷방죽. 여기 현대아파트 넘어가면 거기 방죽 있고, 또 경로당이 방죽자리예요. 앞방죽. 농협이니 복지회관이니 다 방죽이었어.

-그러면은 여기서는 주로 그거가 빨래터였고... 또 우물, 물은 어디서 길어 드셨어요?

=시방 우리 경로당에서 고려병원 자리 옆에가 시방 가게 터가 집 있는 데고, 거기가 옛날에 밭이었어. 밭. 옛날에 고사지내던 우물이야. 우물고사 지내던 우물. 그제 셋이었어. 우리 먹는 우물하고, 또 시방 어디냐면은 경로당 앞에 길옆에 노래방도 있고 빵집 있는 데 거기 가운데 우물이 하나 있었고, 또 시방 이 아래 자전거 빵구 때우는 데 거기 집 안에 우물하나 있었거든. 이렇게 셋이지. 정월에 지냈는데 다 없어졌어. 9월달엔 산지사 지냈거든. 없어졌어.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부부싸움 많이 해보셨어요?

=하긴 하지. 사는데.

-주로 뭐 때문에 싸우셨어요?

=시어머니한테 시집살이를 하니깐, 내가 이제 골을 내고 하니깐.

-시어머니한테 잘못한다고 할아버지가 뭐라 그러시고 해서...

=그렇지. 다른 거 때문에... 다른 일로는 별로 안 싸워.

-할머니, 앞에서도 시어머니가 시집살이 고되게 시키셨다고 하셨는데, 그중에 가장 힘들었던 일이거나 기억에 남는 일 중에 가장 분하다거나 시어머니한테 그런 일 뭐가

있어요?

=억울한 소리를 하도 들었어요. 우리 시동생이 쌀 퍼낸 것도 내가 그랬다고 하고 그래 싸우고... 시동생이 그러는 걸 내가 몇 번 봤어. 이제 학교 갈 때 짹어지고 갈려고, 새벽에. 그리고 내가 퍼놓은 걸 숨겼다고. 내가 '도련님 아침에 그냥 갔어요.' 그랬더니 '왜 그래?' 그래서 저기 내가 들여놨다고 했더니 '가져가게 그냥 두지 용돈 쓰려고 그러는 걸 그걸 빼놔다'고 나를 막 나무라잖아. 그래서 내가 뺏어놓은 것도 잘못이냐구 그러면 맨날 없어졌다는데, 나보고 없었다고 그럴 텐데 그랬더니, 나중에 얘기하면 되지. 그러더라고 혼내면서...

-시어머니는 또 아들 편 드셨군요.

=그랬는데, 그걸 또 나가서 자랑을 했나봐. 가져 갈려고 한 거를 빼어놓고 그랬다고, 막 흥을 보면서 다녔나봐, 그래 금방 말 같지 않으니깐, 또 나한테 말해주는 거야. 그래서 아니, 시동생이 쌀 퍼낸 거 그것도 내가 잘못했다고 댕기면서, 그러니까... 그래서 누가 막 야단쳤대요, 시엄니 보고, 며느리가 얘기 안하고 몰랐으면 며느리만 나무랄 거 아니야. 그걸 자랑이라고 하고 다니냐구. 그래서 시동생 땀에 한번 싸우고 내가 속상하니깐, 한 집에서 사니깐 어떻게는 못하고 애를 좀 혼냈더니, 저년이 나를 저지 못하고 애만 갖고 그런다고 혼내고... 하이고, 옛날에 뒤주 옆에 파란 통이 있었어요. 군인들 탄환 담는 통 그게 뒤주 옆으로 네 개가 이렇게, 이렇게(충충이) 올라간다고 거기다 콩이고 팥이고 담아 두면은 그제 요만큼이라도 흔들려서 내려가면 줄었다고 누가 퍼내갔다는 거야.

3) 출산과 자녀양육

-그럼 큰아드님은 언제 낳으셨는데요?

=나는 시집은 일찍 갔는데, 아홉 해만에 낳어.

-아홉 해나요? 아이고 늦게 들어서서 구박도 많이 받으셨겠네요?

=구박은 뭐, 아무튼 약도 안 해주고 무당집만 시어매가 다니고, 약도 안 해주고 하는데, 친정 오라배이가, 앞도 못 보는 오빠가, 저저 사람을 사서 썩을 많이 베어다가 썩을 약해 먹고, 동아뱀(도마뱀의 방언) 해먹라고 해서 동아뱀 3마리 해먹고, 그래 그런지 저래 그런지 아홉 해만에 있어 가지고...

-어렵게 아이 가지셔서 아들 낳으시고요?

=첫애를 아들을 낳았는데, 우리 시아버지가 되게 좋아하셨는데, 선달에 돌아가시고, 애가 3월달에 죽었어요. 나는 딸은 나보지도 못하고 아들만 넷을 낳았는데, 하나는 죽고 셋이지. 근데, 둘째는 포항에 살지. 그 아들만 사는 게 낫고, 큰아들도 막내아들도 মানুষ 없이 애들만 여기 데려다 놓고... 그러니깐, 내가 손주들 셋하고 죽을 지경이지.

-할머니 첫 출산의 경험이 시집오셔서 9년 만이니깐 스물다섯 살인데요. 그때 아이를 잉태하면 어른들이 뭐 먹지 말고, 뭐 하지 말라고 조심하라는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런 어른들 무슨 걱정 들어보셨어요?

=그때는 그런 거 몰라. 그래서 약도 막 먹고 그랬어. 그리고 애 생겼다고 병원에도 안 가봤어.

-입덧 심하셨어요?

=아니. 나는 심하지 않았어요.

-그때 애는 집에서 낳잖아요? 할머니도 4형제를 나셨는데, 지금이야 병원에 가서 난 다지만, 그때 다 어디서 어떻게 출산하셨어요?

=다 집에서. 죽은 애도 시어머니가 받고, 둘째도 시어머니가 받고, 세 번째로 나온 포항에 사는 아들은... 큰애 죽고, 두 번째로 나온 아이도 시름시름 앓아. 그래, 지금 포항 사는 아들 낳을 때는 할매더러 보지 말래. 우리 할매가 만신집을 많이 쫓아 다녔거든. 거기서 할매는 보지 말라고 안 봐 가지고 지 아바이는 일 갔다가 피곤해서 들어왔는데... 보지 말래고 그래서 나 혼저 우리 시어머니가 지푸라기하고 전기 다마...

-그러니까 아무도 출산하는 거 보지 말라고?

=할매더러 보지 말라고. 그래 종이 같은 거 쪽 깔고 푸대 자루 깔고 지푸라기 갖다 주더라고 우리 시어매가 갖다 주더라고.

-혼자 낳으라고요?

=그래 보지 말라니깐, 아, 근데 밤에 3시 15분에 낳는데, 전기까지 그날따라 안 들어 오더라고 그래 촛불을 켜고 앉았는데, 배는 점점 더 아파죽겠는데, 고 자리에서 아이고, 아이고 소리도 크게 못 내고 그러고 있는데, 재 아바이는 피곤해서 자고 내일 또 일 나가야 하니깐, 3시 15분까지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앉았다 하는데, 아이 세상에 어찌나 힘이 드는지, 그래서 시어머니가 '애, 지금이라도 가서 의사 불러오래.' 그래.

-의사가 있었어요?

=시방 영생약방 시아버지가 그이가 부르면 오는데, 새벽에 가서 그런지 준비를 하느라고 얼른 안 오더라고, 그러고 있는데 불은 나가고, 그이가 이제 우리 시어머니가 먼저 오시고, 그 사람은 나중에 오는데, 대문 여는 소리 듣는데, 마루에 올라서니깐 애가 쑥 빠지잖아. 그래서 그냥 갔다고.

-의사가 들어오기 전에...

=어, 근데 애가 얼마나 큰 지. 내가 팔월 열이튿날 낳고 우리 시어머니 생신이 팔월 열닷새인데, 우리 큰시누이가 오더니, 아니 무슨 애가 이러냐고 깜짝 놀라. 우량아야, 애가 커. 시방도 살은 빠졌는데 버스 내릴 때 키가 커서 머리를 부딪쳐서 아프다고.. 그거 보던 어떤 사람이 우리 애보고 그거 아프겠수 그랬대.(하하하) 우리 막내도 키가 커.

-그때 출산 하면 금기시하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삼칠일 안에는 못 보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 좀 얘기해 주세요.

=맞아. 그때는 저저이 그런 거 가리고 하는데, 한 애가 부정이 끼니깐 자꾸만 부정이 끼어들더라고... 우리 시방 큰애... 죽은 애는 행여(상여) 나가고 나서 우리 시어머니가 발에 다리목 건너로다가 일을 나가셨는데, 첫애를 내가 유월 초이드레에 낳는데, 힘을 쓰면서도 양하고 쓰면서도 애가 쉽게 안 나오니까, 우리 시아버지는 논두렁에 꺾으러 나가시려고 해도 내가 자꾸만 끄꿍 대니깐, 안 나가시고 주춤주춤 하시더라고, 내가 혼자 힘을 쓰면서도... 내가 그날 기저귀감을 빨아서 널고 그러고 있는데 행여 소리가 나. 우리 시아버지가 가기 전에 우리 사촌 올케가 우리 윗집에 살았는데, 시방은 없지만, 그 올케가 내려오는데 내가 자꾸만 헛심을 주니까, 사돈마나님 어느 집 일 가셨냐고 불러 오라고 그래서 우리 시아버지가 쫓아가셔서 거기를 뛰어가셔서...

-그래서 시어머니를 모셔왔군요.

=네. 이쪽 독에서 저쪽 독에 너머 있는 시어머이를 불러 가지고, 행여 소리가 나는데, 행여를 안 보려고 그냥 막... 거기서 오게 되면 보일까봐, 뛰어오시다가 동네 길 앞에 들어오시다가 동네 집으로 들어가서 개가 짖으니깐, 행여가 지나갈 때 바라다가 행여가 지나가는 소리 듣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시방 경로당 옆이 방죽인데, 논 일하던 거 풀어 놓고 뛰어 들어오셔서 방에 밀가루 통... 빵아다 논 거 애 낳은 그런 거 거둬 치고, 그런 데 나는 꼭 똥꾸먹으로 애를 낳은 거 같애. 밀이 바쳐. 그렇게 낳는데, 우리 시어머니는 나보고 최서방이라 틀리대. 어머 소리도 앓고 애 낳았다고, 나는 그냥 아이구...

-소리도 안 지르고 낳으셨으니까...

=어. 둘째 아이도 그렇지만, 시방 포항 사는 아들도 내가 혼자서 낳아서 의사는 그냥 바깥에서 문 열고 가고, 혼자 탯줄 안으로 몰고 걸으로 해서 배꼽으로 몰아서 가세로, 실로 쫓매서 자르고 그렇게 해서 낳으니까, 손이 다 벌벌 떨리더라고...

-그럼 첫째, 죽은 아이도 뒤치다꺼리 시어머니가 다 해주셨어요?

=그렇지. 둘째 낳은 거는 또 동서가 해주고... 시동생이 결혼해서 한 집에서 살았으니까. 그래 가지고 낳는데, 한 집에서 살았어. 3년을 살다가 나갔는데...

-분가하셨어요, 시동생은 나중에?

=네. 서울로다가. 둘째 낳은 거를 작은집 애는 정월 열하루날 낳고, 나는 2월 초이튿날 낳고 시방 마흔다섯 살 먹은... 그래서 나는 일을 하면서도 줄면서도 저 세이레까지(삼칠일) 밥을 꼬박꼬박 다 해줬다고 그때 연탄불이었지. 그랬는데, 저는 며칠 하지도 못하고 밥을 숯껌뎁이를 만들어놓고 미역국은 재를 만들어놓고...(하하하)... 그랬더니 나중에는 염치가 없어서인지 안 하더라고 뭐 먹지도 못하고 나는.

-해산하시고, 미역국 같은 건 시어머니가 끓여주셨을 테고, 그때 미역은 누가 준비해주셨어요? 보통 친정어머니가 해주시는데...

=친정 오빠가. 앞을 못 보는 친정 오빠가. 그래서 그때 그거를 사서 보냈더라고 그래서 처음 좋은 거. 미역이 옛날에는 장각이 있어요. 장각이라고 좋은 미역인데, 그때 한번 좋은 미역 장각 한번 얻어먹고 시집에서 한 잎 사 먹어보곤 그 다음부터는 미역도 맛 없고... 맛있는 거만 사다 먹었지. 그리곤 시방 마흔다섯 살 먹은 아들 낳을 때는 미역이 싼 거는 구멍이 뽕뽕 뚫어진 게 있어. 미역이. 동서가 몇 번 끓여다줬는데, 개코같이 끓여다 줘서 맛대가리도 없어.

-동서가 할머니보다 많이 어렸어요?

=아니요. 시동생보다 두 살 어렸으니까, 지금 예순아홉이지.

-그러면 출산하시고 금줄 같은 거 치셨어요?

=했지. 고추하고 숯하고. 시아버지가 만드셨지. 우리 시아버지가 처음에 아홉 해 동안 애를 못 낳으니까 맨날 술만 취하시면은 아무개 아바이라고 한다고, 아무개 할아버지 소리를 못 듣는다고... 지금 고려병원 뒤에 싹밥 집이라고 있어요. 그 집에 있는 이가 앞에 집에 사는데, 아무개 엄마야, 아무개 엄마야 이 답에 우리 며느리하고 싸우지 말고

니 자식이 잘 났니, 내 자식이 잘 났니 해지 말고 싸우지 말고 살라고 하고, 나보고도 할 아배이라고 그러라고 하고... 미리 할아배이라고 하라고...

-미리 그렇게 불러야 빨리 생긴다고 그러신 거예요?

=네, 그러다가 아홉 해만에 낳는데, 우리 시아버지가 인줄을 바깥에다가, 유월달에 낳았거든. 그러니 덩잖아. 그런데 인줄을 매고는 문 앞에 앉았어. 그래서 누가 지나가면은 '어머나, 손주 보셨나봐' 그러면은 '네, 손주 봤어요.' 그리고. 내가 방에서 혼자 웃었어. 누가 암말도 않고 지나가면은 '나 손주 봤어요.' 누가 그냥 모르고 지나가면은 '나 손주 봤어요.' 그러시더라고...(하하하) 그러더니 섣달에 돌아가시고 나니깐 애가 3월달에 가더라고. 우리 시동생 사주 해놓고 결혼 날짜 잡았는데, 애가 죽었어. 그래 가지고 잔치를 물리고 나중에 결혼했어. 우리 시동생은.

-여기 할머니처럼 당시 여자들이 대부분 출산을 하면 대개 시어머니나, 시집의 여자들이 뒤치다꺼리나 산바라지를 해주잖아요, 지금은 친정 가서 해산하거나 산후조리를 하잖아요. 그때는 그런 경우는 드물었죠?

=그때는 없지. 지금은 딸네도 친정엄마가 가서 하고 하지만, 그때는 그냥 시집 안에서, 혼자 하거나 그렇지 뭐.

-그때 유명했던 산파나, 안녕리 주변 마을에 다니는 유명한 산파가 있었어요?

=그때 나 있을 때는, 시방 그이가 병점으로 갔는데, 영감도 죽고 마누라도 죽었다는데, 나는 몰라.

-그러면 그분한테 안녕리에 임산부들이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네, 있긴 있었어요. 애도 그렇게 남한테 많이 안 받았어요, 대부분. 지금은 병원에 가서 배도 가르고 낳고 하지만,

-이분이 약방을 같이 한다거나 그런 분은 아니고, 산파가?

=네. 마누라가 했고, 남편이 옛날엔 순경이었을 거예요. 본토배기는 아니고, 들어와서 살다가 시방 병점으로 이사 가서 영감도 죽고 마누라도 죽고 다 죽었어요.

-그럼 그분은 할머니보다 연세가 높았어요?

=그렇지. 나이가 많지. 죽었을 거예요. 내가 마흔한 살 먹은 아들 낳을 때는 혼자 그렇게 낳고, 또 막내는 그때 이제 우리 시어머니가 어디를 갔어. 갔는데, 막내를 낳았거든.

먼점 피가 빨갛게 묻었어. 궁둥이에. 그때도 이제 우물을, 냉수를, 그때도 깊은 우물로 물을 이고 올리고 하는데, 내일 모레면 날 텐데, 오늘인가 용주사 저쪽으로 밭을 매러 갔는데, 밭을 매고 오는데, 얼마나 비탈진 산꼭대기로 올라오는데 다리는 아픈데, 밭 매는 관리하는 사람이 등 뒤에 따라오고 나는 이제 앞에 부단히 가는데, 그이를 이제 안 비켜날려고 기를 쓰고 와 가지고... 그 이튿날 애를 낳는데, 물을 냉수를 길러 갔는데, 아 이고 누구 엄마 치마 뒤에 뭐가 묻었어, 그래. 그래서 그래유. 집에 와서 보니깐, 증말 뭐가 묻었어. 그날 배가 이상하게 아프고 하니깐 무서워서 그이를 불렀어.

-산파를요?

=네. 불렀는데, 그때는 저저여 문을 꼭 잡고 엎드려서 개는 낳는데, 산파가 나보고 반듯이 드러누우라고 그러더라고 여기 붙잡고 힘을 주라고 그러는데 우리 막내를 낳는데, 또 달렸어. 그러니 내리 죽은 애까지 넷이지. 아들만 내리 넷을 난 거지. 아이고 힘들어서 낳더니 또 달렸네, 그랬더니 산파가 아니 남은 달리지 않아서 걱정인데, 달려도 걱정 이냐고...(하하하) 그래 개는 칠월칠석날 낳어.

-할머니가 자식들 키울 때 아프고 그러면...

=그때 수원으로 댕겼지.

-동네마다 위급 시에 침을 놓는 어른들이 있기 마련인데 여기서는 누가 그런 일을 주로 하셨어요?

=안녕리에서 침 놓는 분이 있었어. 그 양반도 옛날에 돌아가셨어. 또 황계리에도 한 분 또 있었어.

-영생약방은 뭐예요? 의사가 있었다고...

=그 양반은 육이오 때 피난 나온 노인네인데, 안녕리에서 눌러앉았지. 시방도 여기서 살아.

-한의(韓醫)예요? 약도 지어주고 그랬어요? 침도 놔주고?

=약은 지었는데, 침은 안 놓고 주사 놔어. 우리 애들은 거기 가서 맞으면 낫고 했어.

-자녀분들은 학교를 어떻게 보내셨어요? 여기 초등학교는 어디로 보내셨어요?

=초등학교는 요기. 화산초등학교. 그리고 나서 안용중학교. 우리 시누도 시동생도 다 거기 다녔지. 초등학교는. 안녕리, 돌고지 또 황계, 송산 모두 이리 와요.

-그러면은 할머니 자녀들 어렸을 때 초등학교 보내시고 학업 뒷바라지 하러 다니시거나 한 거...

=못했어. 학교에서 소풍가도 나는 처음에는 쫓아도 못 갔어. 우리 시어머니가 따라 다녀서 나는 못 갔어. 우리 시어머니가 좋아서 그러셔서. 나는 제대로 가보지도 못하고 일만 했지. 그리고 중학교는 여기 안용중학교 다 다녔지. 우리 큰애는 안용중학교 졸업하고는 그만 두고, 시방 막내하고 포항 사는 아들은 하나는 수원농고 나오고, 막내는 수원공고 나오고.

-할머니 자녀들 놀이는 어떻게 하고 놀았어요, 지금처럼 장난감이 많던 시절이 아닌데...

=딱지치기, 다마치기 뭐 그런 거 하고 놀았지. 제기차기, 연 날리고 그런 거지 뭐.

-자녀분들은 삼형제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둘째 포항에 사는 아드님만 중매결혼하시고 두 아드님은 연애혼인 하시고, 그러면 둘째 아드님 중매는 누가...

=저기 언니 친구가, 며느리 언니 친구가...

-부모님들이 아는 중매쟁이가 아니고, 혼인 당사자끼리 아는 중매였군요. 그러면 아드님들 혼례식은 다 어디서 하셨어요?

=여성회관.

-세 분 다?

=아니, 하나는 대구에서 예식하고, 포항에 사는 아들은 처갓집이 거기라서 대구에서 하고, 먼저 한 아들 둘은, 둘째 보다 먼저하고. 여성회관에서.

-혼담 오고 가고 그럴 때 지금은 아들 가진 집도 신혼집 해 줘야 하고 그러는데 그때는 어떻게 혼수장만 하셨어요?

=뭐, 없지. 내가 없는데 뭐.

-데리고 살 수는 없잖아요?

=큰아들은 같이 살았었고, 막내아들은 안녕리에 방 하나 얻어서 나가 살고...

-그러면 혼례비용은 어떻게 다 마련했어요?

=언어 가지고 장가보내고 들어온 걸로 다 갚고, 제자리걸음 한 거지.

4) 마을이야기와 연중행사

-마을 큰 행사에도 함께 참여하고, 여기도 농촌사회였으니까, 대동제가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아까 산신제 지내는 거랑, 우물고사 지내는 거랑 또 마을 큰 행사는...

=농악대 있었고, 이제 그런 사람들 죽고 나니깐, 이제 없어, 근데 여기 노인복지회관이 생기고 가르치는 게 있긴 하지. 시방 거기서 농악 하던 거 장구치고 뭐하고 하는데, 이어 온 거는 아니지.

-마을 대동제 중에 산신제를 하면 당골도 참여해요?

=아니, 깨끗한 사람. 마을 사람들 중에 깨끗한 사람 골라서.

-제관 정해 가지고...

=그렇지, 그거 하면 며칠 전부터 타동(他洞) 사람 들어오지 말라고 하고 깨끗한 사람만 가서 제사지내고...

-그럼 산신제 할 때 집집마다 제수비용으로 돈이든 뭐든 조금씩 내잖아요. 외지 사람들한테도 받았어요?

=아니, 본토배기만. 저녁에 같이 사람들 술들 마시고...

-마을에서 산신제는 언제까지 지내셨어요?

=몰라. 골프장 생기고부터는 안 했어.

-그 골프장이 언제 생겼어요? 1990년대? 1980년대?

=십 년 더 됐지. 한 20년 넘었을 거야. (성황산에 자리 잡은 골프장은 1985년에 생겼다).

-우물고사는 여기 집에 한데우물이었잖아요, 말하자면 집집마다 울타리 안에 우물이든 펌프든 생기면서 한데우물은 메워지잖아요. 그게 언제인 거 같아요?

=우물을 뚫으니깐, 집안에다가 동서 얻고 나서인가. 얻고 나서 뚫어, 우리 집 우물.

-그러면 마을 우물고사는 언제 없어졌어요?

=아마 한 15년 전에 없어진 거 같아. 아니 한 20년은 된 거 같네.

-마을 대동제 · 산신제 · 우물고사 말고 가을 되면 마을총회 하고, 이장을 새로 선출

한다든가, 연임시키든가 하잖아요?

=이장세로 쌀 한 말씩 건어서 줘. 이장세 가져가면 술덜 먹고 그랬는데, 시방은 돈으로 주고 말아.

-여기 안녕리에도 마을 상여 있었어요?

=예. 저리 가면은 방앗간 있던 자리 있지요, 고 위에 산에 이렇게 해놔있어요.

-그러면 상여는 마을에 누가 돌아가시면, 상여는 누가 뗏어요?

=동네 사람들이. 서로 품앗이 한 거지.

-그러면 할머니 시아버지나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무덤은 다 어디다 쓰셨어요? 화장 하셨어요?

=시아버지는 먼저 내 밭에 썼다가 거기 팔리는 바람에 중외제약으로 거기다가 따로 산이 있어 가지고 거기다가 썼는데, 그것도 나중에 또 중외제약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화장을 했어요. 몇 년 있다가. 우리 시어머니는 저기 병점에 공동묘지 있는데, 거기 갔다했는데, 이번에 거기 또 없어지는 바람에 화장하고.

-상여는 언제쯤 없어진 거 같아요? 할머니님 자녀분들 한창 키울 때는 있었지요?

=네, 상여가 없어진 거는 아마 30년, 20~30년 된 거 같은데...

-아까 시어머니가 만신집에 많이 가셨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만신집이 어디에 많았어요?

=그 전엔 여기 당골이, 시방 팔십이 넘었어, 죽었어. 그이도. 안 해요. 시방은 딴 사람이 하나봐. 거기서 하는지 어찌는지는 모르고.

-어디서요?

=그 전에는 경로당 뒤 골목으로 올라가서 있었거든. 자식도 없이 살다가 영감 또 얻어서 살다가 영감도 죽고 그이도 죽고.

-여기서 유명한 만신은?

=없어요.

-그러면 시어머니는 그 당골네에 자주 가서서 보시고... 그러면 할머니 여기 친정이

나, 외가나, 시집이나 뭐 안녕리를 둘러봐서 당시의 종교생활은, 지금처럼 교회를 가거나 절에 가는 것처럼, 여기는 이제 용주사가 큰 절이 있어서 거기에 많이 갔어요?

=네, 거기하고, 세마대하고. 나는 우리 시어머니가 아주 만신을 좋아해서... 지금 심정은 그래, 자식을 열하나를 나아서 다섯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서 그럴 수밖에.

-시어머니는 만신집을 많이 다니시고, 절에 다니면 용주사로 다니고...

=용주사 앞에 새터리라고 주말농장 지나서 거기에도 절이 있고. 거기 쭉 들어가서.

-의복같은 거는 예전에 다 어떻게 마련했어요?

=다 꼬매 입고, 옛날 옷은 내가 다 만들어 입었지. 시방은 뚫어진 거나 꼬매는데, 눈이 안 비져서 어렵지. 더러우면 빨아서 헤지면 꼬매고, 숨 더 넣어서 꼬매고 해서 입는 거지. 지금은 애들도 맞춰줘야 되고, 옷 뜯어지면 꼬매야 되고...

-옛날에 배냇저고리 뭐 이런 거 다 만들어서 입히셨어요?

=그렇지. 우리 애들은 다 용으로 꼬매 입히기도 하고 대려 입히고...

-예전엔 시어머니랑 장 담아야 하고 음식 마련하는 게 연중행사로 쉽지 않았을 텐데요.

=그렇지. 메주를 썬서 장 담그고, 2월 달에 봄에. 그래 시골 사람들은 봄에 장 담그고, 가을엔 메주 쏘고, 봄에 장 담그고, 가을엔 김장하고 지붕 잇는 거지 뭐.

-김장은 한번 하실 때, 예전엔 대가족이라 많이 하셨을 거 같은데,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글쎄, 한 100포기 가량은 되지. 죽도 썰먹고, 가난하니깐 김치로 죽 썰먹고 만두도 해 먹고 그러려고 많이들 했지. 지금이야 짜금씩 하지.

-예전엔 다 묻었잖아요?

=그럼 마당에 독을 다 묻었지.

-그럼 그때도 이웃 간에 김장 품앗이 돌아가면서 하고 그러셨나요?

=그렇지. 그때는 방죽이 깨끗했거든. 거기다 마차에 배추를 실어가서 씻고 그랬다고, 집에서 절여 가지고 씻으러 갔지.

-할머니, 집에 시집오시기 전이든지 시집오셔서든지 여기에는 전기가 언제 들어왔

어요?

=나 어려서부터 있었어요. 밤에 10시 넘으면 싸이렌 울리면서 끊고...

-전기는 다른 마을보다는 일찍 들어왔네요, 그러면 라디오 뭐 스피커 이런 건 일찍 들으셨겠네요.

=그렇지. 스피커 이렇게 뚱그런 거 이 집에서 한 달 달고, 저 집에서 한 달 달고 이러면서 번갈아 서로 달아 듣고 했지. 그거 없어지고 나서 라디오 집집마다 생기고 그리고 나서 텔레비전이 생겼지.

-그러면 여기서 장은 어디로 보러 가셨어요?

=수월에. 걸어갔지. 어떤 때는 황계동서 오는 완행버스, 황계동 다리로 넘어가는 버스타기도 하고.

-그러면 여기는 따로 장도 없었고, 이 근처에 작은 장도 없었고.

=난리 나고 나서 지방 요기 들어오는 데... 복덕방 있는 데, 거기서 난리 나고 난 후에 호박도 따다 놓고 팔고, 뭐 조금씩 집에서 가져나오고, 피난민들 있고...

-장날은 어땠어요, 5일장이고...

=남문장은 4일, 9일. 오산장은 3일, 8일. 남문장이 컸지. 근데 오산장은 여기서 가려면 한번 차를 갈아타야 되고, 남문은 여기서 한번에 가고.

-주로 뭐 사오셨어요?

=뭐 반찬거리 같은 거. 또 옷.

-그러면 끼니는 어떻게 때우세요?

=별로 안 사먹고 다녔어. 어려우니까.

-이 마을로 시집오는 사람들은 어디 출신지가 제일 많았어요?

=남양서도 오고 그제, 조암 쪽에서도 오고, 발안, 서정리에서도 오고... 뭐 산지사방에서 오지.

-할머니 여태껏 사시면서 구경 중에 뭐가 제일 재미있었어요?

=마을사람들 모두... 존슨 미국 대통령 왔잖아. 여기, 안용중학교 거기.

-그러면 할머니 30대 초반이겠네요. 존슨 대통령 여기 왔을 때 구경하셨어요, 1966년도에?

=네, 바깥은 안 갔어도, 뱅기가, 잠자리뱅기가 와 가지고 먼지 나고 바람 불고 그 건너에서 봤지. 사람들은 발 디딜 수가 없는데...

-사람들이 많이 나왔죠?

=그럼. 그때 그 무렵에 인동 토지 정리하고 개발해 가지고.

-존슨 가고 난 다음에?

=네. 몇 마지기, 너 마지기면 너 마지기 딱딱 잘라서 주고...

-존슨 오는 바람에, 그러면 일종의 마을 사건이네요. 존슨 대통령이 여기 와 가지고 이 마을이 한 단계 발전하는... 1960년대 중반서부터 마을이 달라지는...

=처음에 여기 안용중학교 생길 때가 우리 시누 내년이면 환갑이야, 환갑인데, 거기 중학교 들어가서 그때는 천막치고 땡겼어요. 학교도 건물이 없어서 나중에 흙벽돌 찍어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존슨 대통령 오고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시방도 기억이 나는 게 그 학교가 차학근이, 그 사람이 그 학교 세운 거야.²⁾

-할머니 여기 야학 있었어요? 야학 어디서 하셨어요?

=그전엔 거기 저... 지금은 헐었어요. 이 동네에서 조금 해다가 거 가서 했는데, 밤에 거 동네, 거 가서 했는데...

-그 동네 이름이 뭔데요?

=까치고개. 지금은 송산3리라고 그러냐? 엔젤악기 좀 너머로 지금은 거기가 다 집이 됐어. 시집온 다음에. 나중에는 동네에도 있었어.

-그러면 야학을 두 군데 다니신 거네요?

=그렇지, 핵교는 가보지도 못하고... 핵교는 저기다 옛날에 일제 때 세기리. 세기리라고 양산 지나서 잔다리라고 거기 2학년 올라가다가 그만 뒀나 봐.

-다니시기는 하셨어요? 이게 간이학교예요? 학교이름이 생각나세요?

=모르겠어. 2학년 올라가면서 그만 뒀서.

2) 현재의 안용중학교는 송산리에 1955년 안용성인 학교로 개설되었다가 1963년 차학근(설립자)에 의하여 안용고등공민학교로 인가 받았고, 1969년에는 안용중학교로 인가 받아 초대교장으로 차학근이 부임하였다. 증언자의 시누이는 1956년생으로 증언 내용은 시누이가 1963년 안용고등공민학교에 입학하던 당시를 이야기하며, 1966년 존슨 방한 시에 이곳 안용고등공민학교 운동장에 전용 헬기가 착륙하였다. 수원에서 화산동으로 진입하는 입구에 당시를 기념하는 존슨동산과 비가 있으며, 1999년 화성시민들이 현충탑을 그곳에 세워 공원을 조성하였다.

-그러면 야학을 처음 다니신 게 결혼한 다음에 다니셨다고 했잖아요. 그게 열일곱, 열여덟 이때였어요?

=엄마,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후니깐, 그때쯤인 거 같은데...

-그쪽이 야학이 컸어요?

=아니, 일본 애들 학교 다녔던 데야. 그때는 제법 많았어. 안녕리에서도 아마 일곱, 여덟 명 땡기고, 여기(안녕리) 다닐 때도 동네 부인네들 더러 다니고...

-그러면 처음 다니신 야학, 까치고개에 있다는 야학은 얼마나 다니셨어요?

=한 1년 땡겼나, 1년 못 땡겼나...

-야학 선생님은 뭐 하던 사람인지 아세요?

=한 사람은 학교 다니던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저거야.

-이 동네에서 하던 야학은 언제 하셨어요?

=생각 안 나는데, 기억 안 나.

-그러면 여기 동네 야학은 학생이 얼마나, 몇 분이나 되셨어요?

=한 20명 땡어요.

-대부분 부녀자만이에요? 아저씨들도 있고?

=부녀만. 여자들만.

-가르치는 선생님이 누구였어요?

=그이도 이 동네 유지였는데, 마나님도 그전에 뭐야 단오날 같은 때 애들 무용도 가르쳐주고 그랬어요.

5) 서글픈 친정집과 고되고 고된 노년기

-아는 집으로 시집가신 건데, 시집살이가 호되서 친정 부모님 생각 많이 났겠어요?

=일찍 돌아가셔서... 나 결혼하고 바로 돌아가셨어. 앞 못 보는 오빠가 부모 노릇했지.

-그럼 아까 육이오 때 전쟁 때문에 실명하셨다는 오빠는 그때 전쟁에 의용군으로 나

간 거예요?

=네. 제2군병(제2국민병을 말한다). 나가서 파편 맞아서 눈이 양쪽 다 못 봐. 싸우러 내보냈는데, 이북에 포로가 됐대. 그래 가지고 이북에서도 또 내보내는 거지. 또 내보냈는데, 폭격하는 바람에 그냥 다 뒤집어 쓴 거지. 지금도 여기가 파편이 박혀있다고 하는데... 피는 쏟아지고 앞은 안 보이고 죽으려고 이렇게(가슴을 겨냥하며) 쏘려고 하는데, 죽으려고 하는데. 누가 말린 거지. 미군이더라. 그래 가지고 미군이 부산으로 데리고 나가 가지고 거기서 고치면서... 나는 책을 엮어도 몇 권이 되요, (한숨) 그런데 거기서 이제 눈을 다 닦고, 우리 오빠는 아버지도 있고 하니깐 수원으로 간다니깐 보낸 거야.

-그땐 결혼도 안 하셨을 때예요?

=그렇지, 그런데 안녕리에 지서가 있었어. 원 지서는 아닌데, 임시로 보는 지서가 있었는데, 거기를 왔다고 우리 친정 큰어매가 오시더니, 나보고 '이거 봐!' 조카딸이라도 예전에는 이랬니 저랬니 안 그래요. '이거봐', '왜요?' 그러니깐 '저기 봉학이 오빠가 왔대.' '어디예요?' '저 지서에 있대.' 왔으면은 이 동네로 들어왔을 텐데 어째 지서에 와있다나 하고서는 방문 앞에 나가는데 우리 큰어매가 '근데 오빠가 다쳤나봐. 병원에 있다가 왔대.' 그래 이상하다 그래 같이 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니깐, 동생이 왔는데도 몰라. 보이지 않으니깐, 그래 내가 막 통곡을 하고 울었어. 그랬더니 순경들이 저 우는 여자는 누구냐고 동생이라고 그러니깐 그때서야 손을 내밀고 더듬어... 엄마, 아버지 다 돌아가고 나 시집가고 다음해에 돌아가셨으니깐, 그래 와 가지고 방 하나 찌그만 거에 있다가 동생이 다 나를 쳐다보지. 그러니깐 안마시술소 그거 배워 가지고 동생들 거둔다고 그걸 배운다고 서울로 갔지.

-그럼 앞 못 보는 오빠가 어린 친정 동생들 거두셨어요?

=그렇지. 데리고 갔는데 방 하나 얻어서, 문간방.

-서울에서 사셨어요?

=문간방에서 살고 이 안에 거른 방에서 사는데, 남동생, 여동생이 그때 열한 살인가 열두 살인가 뭐 이랬어. 동생들 돌본다고 안마를 배우고 침술도 배우고, 또 피리도 불고, 안마 다니면서... 남동생을 데리고 다니는데 어리니깐, 그런데 (동생이) 골이 나면 안 간다고 하고... 여동생은 이게 자면은 밤늦게 벌고 오면은 문간방에서 일일이 문을 열어 줄 수도 없잖아. 그래 문을 잠그면 잠들면 아나 모르지. 그래 전화줄을 손목에다가 묶어 가지고 줄을 잡아 땡기고 그게 또 잠이 깊이 들면 얼른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러니 확 잡아땡겨서 손목이 빨갛게 되다시피하고... 아이고 그렇게 살았어. 별다가 점점 더 나이지

고, 처음에는 또 오빠가 모아둔 돈 70만 원인가를 교회전도사가 그거를 주면 100만 원을 준다 그래서 줬는데, 먹고 떨어진 거야. 그래서 한참 속상해서 교회도 안 나가고 그랬는데, 그래도 또 내가 하나님 때문에 살아났는데 하면서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차차 돈을 벌어서 침도 놓고 해서... 목소리만 들으면 그 사람이 똥똥한 것도 알고, 날씬한 것도 알고, 날카로운 것도 알고 다 알아서 돈 무척 많이 벌었어. 돈 벌어서 남한테 띠기도 많이 띠고... 큰아들은 미국 가서 박사 된다고 공부하고 거기서 유학 온 애 만나서 애 낳고 잘 살고, 또 딸은 선생 만들고, 막내아들은 의사됐고...



안녕!통 노인정의 할머니들께서는 놀이와 의료기 체험 등을 하시며 여가를 보내신다.

-그래도 그 오빠가 이것저것 친정부모 노릇하느라고 신경 많이 쓰셨나 봐요.

=엄마, 아버지 없지. 오빠 그렇게 됐지. 여동생, 남동생 남에 집으로 갔지. 시집가서도 나도 시집살이 호되게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지. (눈물을 흘리시며) 그러니까 누구 말마따나 바람 불어 낙엽 날리는 소리만 들려도 눈물 나고 기차소리만 나도 눈물이 나...(우시며) 내가 지금도 노인정에 나가도 맘이 편하지 않아요. 몸도 아프지만, 애들 데리고 밥해먹고 하느라고... 노인정 나가서 청소하고 뭐하면 3만원 주거든, 애들 하고 살고 하니께 하는데...

-할머니 손주들이 몇이나 되는 거지요?

=여기 셋, 거기(포항) 둘.

-손자 넷, 손녀딸 하나?

=그렇지. 손녀딸은 하나지.

-그러면 손주 셋을 지금 할머니가 다 건사하시는 거고요? 큰아드님, 막내아드님 자식들...

=그렇지.

-홀로 되셔서 자식들 건사하시느라고 힘드셨을 텐데, 또 손주들까지 다 건사하시니...

=그 고생이 끝나질 않아. 이 발은(한쪽 다리를 짚으며) 한 20년 됐고, 이 발은 7월에,

7월 14일에 문 앞 나가다가 넘어지고 설랑 병원에 땡기느라고 주사 맞고 다니느라고 몰랐는데 갈비가 또 나갔다고, 여기는 기부스도 못하고 이거 치료 받느라고 한 달 열흘을 하루 건너 다녔는데, 노인네니 기부스도 못하고 그러니 한 두 달, 석 달 가요. 그러는데, 그때부터 이쪽 다리가 말도 못하게 아프고, 여기도 전세로, 포항아들이 전세로 돈 보태서 해주고 또 다리가 아프니깐 식탁도 현 거라도 사서 부쳐주고, (방안을 둘러보며) 이런 장도 몇 번 이사하니깐 다 부서지고 그래서 며느리가 새로 다 장만해주고... 그러니 그것만 있지. 여기는 마누라들이 없으니. 시동생도 없고 아주버니도 없고 하니 그게 다 해주고, 그 지네집도 10년이 돼서 짐수리한다고 돈 팔백이 든다고 그런데 내 다리 수술해 준다고 아들이 그러니 지들도 싸우고... 아들 둘이 다 마누라들이 없어. 큰아들하고 막내하고 다. 그래서 내가 이 나이에 거기서 나온 손주들 셋 데리고 밥 해먹이며 키우고 이 고생을 하우. 그저 내 이제 소원은 이렇게 살다 죽으면 그뿐이요.

-할머니, 여생을 쪽 들어봤는데요, 하실 말씀 많으실 테지만, 마지막으로 일생을 두고 잊혀지지 않는 일이라든가 서운한 일이라든가 한이 되는 일이 한 가지 있다면 어떤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내가 제일 가슴 아프고 그랬던 일은, 죽어서도 잊지 못할 일은 우리 친정오빠... 내가 지금도 이혼한 두 자식의 새끼들도 건사하는 고생을 하지만, 난 무엇보다 가슴에 맺히는 건 우리 오빠 일이야. 지금도 안 잊어버리는 게 그때는 우리 시아버지도 시어머니도 살아계실 때인데... 우리 오빠가 남동생하고 둘이 밤에 여기를 왔어요. 저녁 때 왔어요. 여기가 살던 고향이고 하니깐, 여기 친구도 있고 사촌도 있고 그러니깐. 사촌하고 사촌올케 사는 데 거길 와 있는데, 우리 시어머니가 저녁마실을 가면서 나보고 '니 오빠 오 걸랑 정월달에는 사람 재우는 거 아니라고, 그러니깐 들어오지 말라고 해라.' 그러고는 마실을 가서. 그래서 나도 오빠 있는 데로 가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밤에 어떡해요?', 하니깐, 저기 친구네 갔더니 사랑방에 불을 안 지펴서 찬 방이야. 그래 재 아버지도 집에 오고 잘라고 집에 왔는데, 빈 방에 낭구를 못 때게 해요. 밤에 시어매가 안 들어왔네, 근데 오빠가 내려왔네, '거른 방에 불을 안 땠는데...' 하니깐 (오빠가) '그냥 냉방에 가서 자지.' 그러는 거야. 그러니 어떡해? 얘기를 해야지. 식구들 많아서, 오빠 이러저러해서 정월달에 사람 재는 거 아니라고 시어매가 그러고 나갔다고.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않고 서있어. 그러더니 남동생을 잡고 다시 그 냉방 친구네로 가는 거여. 손을 끌고 가니 아이고... (계속 우시면서) 가슴에 맺혀. 그래서 그 이튿날 아침에 큰집에서 밥을 먹었는지, 아침에 내가 걸레를 빨고 있는데, 조카가 '고모, 고모 오빠 가신데요.' 그러는 거야. '그래 네 가세요', 내다도 안 보고... 내다볼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우리 오빠를...

-아이고... 얼마나 한이 되세요. 그러니 그 오빠는 또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겠어요?
=내가 가슴에 맺혀 앞도 못 보는 오빠인데... 그래도 내가 우리 친정오빠 덕보고 살았
어요. 집도 사주고...

-할머니, 가슴 아픈 얘기를 끝으로 들어서 저도 맘이... 아무튼 긴 시간 말씀 감사하
고요. 건강하게 지내세요.

4. 잃어버린 세월에 대한 노년의 기억들

김 세 영(상명대학교 강사)

각성받이의 마을. 공교롭게도 이번 마을 조사 대상인 화산동에 속한 자연마을들은 모두 뚜렷한 성씨 집단이 없는 각성받이 마을이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마을 구성에서 보자면, 농촌사회에서는 흔하지 않은 자연마을의 형성이라고 할 수 있다. 몇몇의 대표적 성씨의 씨족집단이 없는 마을 구성은 과거 우리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혈연(血緣)을 바탕으로 한 마을공동체와는 다른 특징을 보일 수 있다. 이와 같은 마을구성은 혈연을 바탕으로 한 구성원 간의 유대감과 결속력이 느슨하기 때문에 오히려 학연(學緣)·지연(地緣)에 의한 결속력이 강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화산동 마을의 경우는 안릉초등학교(한국전쟁 이전)·화산초등학교·안용중학교를 매개로 동문으로서 선·후배 혹은 학부모 관계를 형성하며 지역민의 유대감과 결속력을 강화해 왔다.

화산동 역시 도시화의 길목에 들어서 이미 자연마을의 모습이 많이 해체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곳에서 나고 자라서 그 자리에서 삶의 터를 일궈온 토박이들 역시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 학연과 지연을 바탕으로 삶의 터를 일궈온 노년의 토박이 어르신들이 들려주는 지난날의 마을이야기와 잊지 못할 경험, 그리고 지역 사회에 대한 역할을 통하여 그들의 삶 속에서 화산동의 과거에 대한 향수와 내일에 대한 기대를 바라본다.

(1) 송산1통(원송산) 노인정 토박이 어르신들의 지난 세월과 노년기

이 지역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마을의 과거를 생동감 있게 재현하고 그 안에서 자칫 잃어버리기 쉬운 지역 사회의 소중한 가치와 의미를 되새겨보는 것이 이 지역에 대한 보다 넓은 이해와 각박한 도시화를 지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송산동 송산1통 노인회의 할아버지들께서 참여해 주셨는데, 이들 에게는 송산1통은 여전히 원송산이라는 자연마을의 지명이 익숙하다. 자연마을 원송산 출신인 토박이 어르신들이 주축이 되어 지난날을 되짚으며, 잃어버린 세월에 대한 기억을 생생히 떠올리며 진한 추억과 함께 지금도 여전히 그 터를 지키며 베풀고 가꾸는 노

년기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장윤국(1928년생, 삼일학교 졸업, 토박이 중 가장 연장자)

한규복(1933년생, 장지리 출신, 1943년 비행장 건립 때 송산리로 이주)

인기홍(1935년생, 현 송산1통 노인회 회장)

강창원(1935년생)

김응환(1935년생)

나순교(1935년생)

윤만복(1938년생)



앞줄 오른쪽부터 김응환·강창원 씨는 1935년생으로 초등 학교 동창이다.



오른쪽부터 한규복·인기홍(앞), 장윤국 씨(오른쪽 뒤)가 원 송산 토박이이다.

이상의 토박이 어르신들 외에도 5~6명의 마을 어르신들이 함께 지난날의 이야기에 동참해주셨다. 원송산 마을 어르신들의 집단 면담 이전에 따로 인기홍 노인회 회장의 생애담을 먼저 들으며 마을에 대한 기초조사가 이루어졌다. 이 글에서는 집단 면담과 개인 면담의 내용을 시간의 흐름과 사건에 맞춰 재구성하였으며, 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내려고 노력하였다.

1) 유년시절의 추억

이들에게는 유년시절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역시 '왜정시대'라는 단어이다. 당시는 우리 민족에게 어려운 시기였으나, 그 안에서 아이들로서 성장하던 이들에게는 나름대로 추억들이 있다. 아이들만이 즐길 수 있는 '놀이'와 구경.

인기홍 : 여기 애 창원이하고, 김응환, 나, 이렇게는 동창이에요, 동갑내기 친구. 그때 나무를 깎아 가지고 일본말로 헤이다이고우꼬(へいだいごっこ)라고 병정놀이가 있었는데, 나무를 길게 검처럼 깎았는데, 이 세 놈이 놀았던 말이야. 근데 그게 소나무인지 뭔지 모르고, 오줌을 누고 났는데, 그게 옷나무여. 이게(바지 지퍼를 가리키며) 이만해(하하하) 옷이 오른 거야. 그게 옷나무였던 거지(하하하) 아주 혼났지. 지금도 가끔 그 얘기하면 우습지.(하하하)

인기홍 : 어렸을 때는 우리 아버지 어렸을 때, 성황산에서 호랑이가 살았대요. 아버지 말씀으로 그랬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여기서 본 게 여우, 노루 뭐... 여우도 우리 집에서 키웠다고. 아주 이빠요. 여우 어미가 우리 집을 밤새도록 뱅뱅 돌아요, 새끼 때문에, 그래서 그냥 놔줬지. 또 어려서 거북이 놀이, 어려서 추석 때 수수로 치마도 만들고 모자도 만들어서 뒤집어쓰고 명석에 들어가요. 명석이 거북이 등이 되요, 추석 때 집집마다 그렇게 하고 다니면서 떡도 얻어먹고 했어요.

인기홍 : 비행장이 참 신기했어요. 자주 놀러갔는데, 어려서 비행장에 놀러 가면은, 비행사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도 보고... 옛날 트럭 앞에 이렇게 시동 거는 거(팔을 돌리며), 비행기도 그렇게 시동을 걸더군. B-29 비행기도 봤고, 또 B-29 비행기가 뜨면 방공호로 들어가라는 일본말로 방송이 나와요. 지금 그 일본말은 잊어버렸는데,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말고 반공호로 뛰어 들어가고, 비행기가 지나가고 나면 시키면 연기 같은 게 있었던 게 생각나고... 비행기, 비행기가 제일 신기하고, 일본 군인들, 군복입고 동네에도 내려오고 했는데...

인기홍 : 비행장이 생기면서 장지리에서 오신 분이 이 분이세요.

한규복 : 열한 살 때 거기서 나왔어요. 거기 비행장 생기면서 나왔어요.

(보상 받고 나오셨어요?) 나는 어렸을 때라 잘 모르겠는데, 땅 있는 사람은 뭘 좀 받고 나왔지만, 땅 없는 사람은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냥 강제로 소개 돼서 나온 거지.

(안녕리로 이사오셨어요?) 아니, 송산리. 대개는 곡반정동으로 갔지. 농사짓던 땅은 뺏기고 일본 땅을 다시 준 거지. 해방되고 일본 땅 불하받았지. 9마지기 아니면 12마지기. 동척 땅 해방되고 받았지.

놀이와 구경에 마냥 신나고 즐거운 유년시절만은 아니었다. 바로 학교. 학교에 가면 일단 우리말을 쓰면 따르는 체벌 때문에 무서운 일본인 선생님 앞에서 긴장을 하던 시

1) 1924년에 개교한 안룡국민학교는 일제가 태평양 전쟁을 위하여 만든 비행장 안에 있었는데, 1945년 3월에 연합군의 폭격에 대비한 학생소개령으로 용주사로 소개되었다. 그후 1950년 한국전쟁으로 미군에 의하여 학교가 강제 점령되면서 폐교의 위기에 처해져 황계리 야산과 용주사에서 수업을 하였다. 이후 1951년 10월 안룡면 곡반정리로 이전하였고, 1962년 수원시로 편입되었다. (『수원의 동족마을』, 『곡반정동 반남박씨』, 수원시, 2006, 363~367쪽).

절이었다. 이 지역의 토박이들은 안용면의 유일한 초등교육기관이었던 안용공립국민학교를 같이 나와 유년기부터 함께 놀던 학교 친구이자 동네 친구들이다.¹⁾ 당시 학교 다니던 때의 통지표·상장·교과서 등을 인기홍 씨가 가지고 와서 함께 둘러보며 학교에 관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한참 나누면서 옛 기억들을 떠올렸다.

윤만복 : 학교 땡길 때에 일본말 안하고 조선말 하면 카드 뺏겨서 좋아리 무지 맞고...

강창원 : 그 누구냐 이제 죽었는데, 떡보가 아주 좋아리 많이 맞았어.(하하하)

한규복 : 나도 안용 다녔지. 그때는 대항교 있는 데 있었어. 비행장 때문에 곡반정동으로 옮겨갔지.

인기홍 : 또 그때 고학년은 검도를... 우리는 저학년이라 안했지만, 고학년들은 검도 같은 걸 했어요. 월요일에는 '진자산빠이' 라고 해서, 일본말인데, 신사참배를 전 교생 전부 다. 학교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존슨동산에 있었는데, 신사가 거기에 있었는데, 비행장 가운데에서 거기까지 걸어가서 참배하고... (학교 선생님은 일본인이셨어요?) 교장은 일본사람이고, 일본 선생님 몇 분하고 조선인 선생님도 있었어요. (한 학년에 한 학급 정도인가요?) 두 반이요, 남자반, 여자반. (학교는 6년제로 졸업하신 거죠?) 네. 6년제요



인기홍 씨가 일제강점기 초등학교 다닐 때 보았던 교과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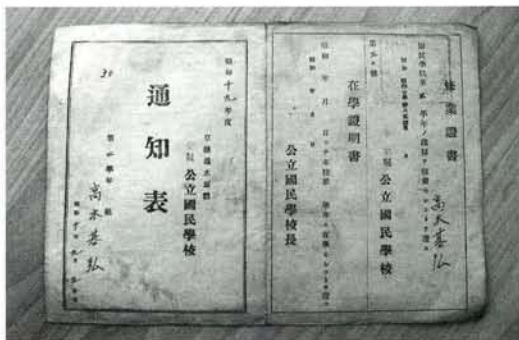
나순교 : 그 전에 선생님들이 동전 안 가져오면 막 때렸다고, 동전에 가운데 구멍난 거. 그

거 이렇게 실에 꿰어서... 5원짜리도 있고 1원짜리도 있고. 그거 안 가져오면 매일은 아니라도 막 혼내고 그랬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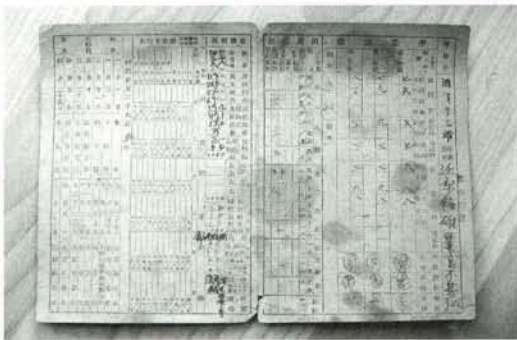
인기홍 : 여기 통지표를 보면 안용공립국민학교라고 돼 있다고... 이걸 다 왜정시대 거야. 해방된 다음 것도 있고... 이거는 다 왜정시대의 교과서야. 여기 3학년 교과서도 있고...

윤만복 : 그때 비행장 폭격해 가지고 우리는 피난 갔단 말이여. 일본 사람들이 내보내서, 용주사에 와서 공부했던 말이여. (남자학생들만 왔죠?) 아니 다 와서 여자도 다 와서.

이들에게 학교는 안용학교에 앞서 용주사에서 운영하던 소위 '절학교' 라고 부르던 학교가 있었다. 절학교는 정식학교는 아니고, 일종의 강습소였으며, 이 학교에 다녔던 장윤국 씨의 증언을 들어보면,



1944년(소화 19) 통지표 전면(前面)이다.



통지표 안에 학업성적·출결상황·신체상황 등의 기록이 보인다.

(용주사에서 운영하던 학교인가요?) = 예, 절에 들어가서 오른쪽에, 절학교라고 했지.

(용주사 강습소라고 했어요?) = 아니, 화산강습소.

(선생님이 누구였어요?) = 최용한

(선생님은 원래 안녕리 사람이예요?) = 강원도에서 오셨어.

(뭘 가르치셨어요?) = 조선어.

(해방되기 전인데 조선어를 가르쳤어요?) = 조선어하고 한문 이런 거 가르쳤어.

(몇 년 다니셨어요?) = 4년 다녔지. 그리고 삼일학교 다녔지.

(수원 삼일학교 다니셨어요?) = 네. 매향동에 있는... 매향여자고등학교 있는 데...

(6년제였어요?) = 네.

(몇 살에 졸업하셨어요?) = 열다섯 살에.

(삼일학교 걸어 다니셨어요?) = 한 달에 기차를 타고 다니는데, 30원 했었어. 병점에서.

수원역에서 남문까지 가는 차가 또 있는데, 5원인데, 많이 걸어 다녔어. 병점역에서 7시에 차가 있어.

인기홍 씨에 따르면, 이 절학교의 정식 명칭은 소화 18년(1943) 이전엔 '화산학술강습소' 였으며, 그 이후에는 '경기도지사 인정 화산학교' 라고 하였다고 한다. 그곳에서는 당시 조선어와 한문 등을 배웠으며, 최용한이라는 선생님의 성함이 생각난다고 한다. 이 지역의 문맹자들은 이곳 강습소에서 많이들 글을 깨우쳤다고 한다.

그 시절의 마을 환경과 경제적 형편 그리고 일본인과 일제에 대한 기억들을 떠올리며 용주사와 소나무, 그리고 일본사람과 그에게서 받은 피해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일제강점기에 찍은 용주사 전경으로 사진 아래부분에 인기홍 씨의 아버지와 인기홍 씨 등이 보인다.

인기홍 : 왜정시대 때 우리 아버지가 용주사 건물을 짓고 하는 목수를 하셨거든. 용주사 할 때 그때 사진도 있어요, 왜정시대 때 용주사에서 아버지랑 찍은 사진이 있어요. 이게 우리 아버지고 내가 너댓살 정도 된 거 같은데, 용주사 정면이 아니고 높은 데서 찍은 거야. (아버지가 그때 지으신 건물이 용주사에 지금도 남아 있나요?) 없어요, 육이오때 타 가지고 다시 지어서 없지요.

강창원 : 우리 아버지가 산판이었는데, 송충목이라고 해방 된 후에 막 베 내고, 솔나무가 송충이 먹은 나무를 벌목하고 하셨지. 나무는 파는 게 아니고 동네에 노파 주고 베는 품값을 받는 거야. 큰 나무는 일본사람이나 베고, 조선 사람은 벌레 먹은 나무만... 일본놈들이 나무를 비어다가 전부다 실어갔다고 부산으로... 송목을 병점역까지 날라서 그놈들 전쟁하는 데 배 만드는 걸로 여기서 이만한 걸로 베 가. 좋은 나무로.

윤만복 : 여기 사는 사람들 그전에 보면, 큰 절구, 그거 집집마다 보통 다 있어.

나순교 : 우리나라에 암만 뭐해도 그런 나무가 없어. 그렇게 크고 좋은 나무가... 절구 여기 절구통이 이만큼(팔을 한 아름 벌리며)이야. 여기 소나무가 뽕뽕했다고...

김응환 : 그래 송원웅이라고 그분이 그런 좋은 나무로 절 문 만들고 그런 거 아니여.

(여기는 자작농보다 소작농이 많다고 하던데요?) = 다 동척 땅이지. 국유지. 여기는 자작농이 거의 없었지. 여긴 다 동척 땅, 일본 땅 소작한 거야. 여기는 대농이 없어. 용주사 땅도 일본인이 소작 부쳐주고 그런 거야. 그래서 여기 일본 사람이 많았어.

(여기 사는 일본 사람들은 주로 생업이 무엇이었나요?) = 주로 농사짓는데, 농사, 양계

또 방앗간.

(이 사람들이 정미소도 했어요?) = 네.

(그럼 이 정미소는 누가 이용하나요?) = 안녕리 사람들도 이용하고, 송산리 사람들도 이용하고 했죠.

(일인들이 얼마나 많이 사셨어요?) = 많았죠,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고, 이 산 이 뒤에 있는 산, 일본군인들이 성황산에 주둔하고 있었어요. 확실히는 모르는데, 어려서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고, 비행장 때문이지 뭐,

(적산가옥이 많았을 텐데...그 사람들 해방 시에 쫓겨갈 때 기억이 나세요? 안녕리 쪽은 일본사람들 때렸다고 하던데...) = 안녕리에서 그랬지, 우리는 뭐...

(그럼 그런 적산은 어떻게 처리됐나요?) = 뭐 먼저 갖는 사람이 임하지.

(그때 건물 남아있는 거 있나요?) = 없지.

(일제시대 때 징용에 끌려갔던 사람이 집안 내에 있었나요?) = 우리 작은아버지 두 분이 남양군도까지 가셨대요, 싱가포르까지 가셨다가 돌아오셨어요. 나라에서 저번에 조사하는 거 신청했어요.

(공출이나 부역에 대한 것은요?) = 손가락 가져가는 거는 봤어요. 공출하는 거. 비행장 만들 때 어른들은 부역도 많이 했지. 보국대이라고 해서 뭐 여기만(비행장을 가리키며) 간 게 아니고 인근에 부역 많이 다니셨지. (=인기홍 씨와의 대화)

윤만복 : 여기 좋았던 건 일본사람들이 많이 살아서 전기가 빨리 들어왔다는 거야.

(시간제로 들어왔죠?) 밤에도 들어왔는데,

나순교 : 밤에 들렀다가 아침이면 그냥 꺼졌어. (수원전기회사에서 오는 거죠?) 오목내로 해서 이리로 들어오는 거죠.

윤만복 : 여기 사람들은 애 날 때 다 전기다마는 봤대. 애 날 때 다마를 보고 낫대.(하하하) 그리고 한 가지 우체국이 있었고... 이 지역이 그런 건 빨랐지.

마을 지명과도 관련 있는 소나무와 마을과는 깊은 유대관계가 있는 용주사에 대한 이야기 끝에 자연스럽게 일제에 대한 잔상을 떠올렸다. 왕릉 탓으로 국유지가 유난히 많았던 송산리를 비롯한 화산동은 일제강점기에 그 땅이 다 동척(동양척식주식회사)의 소유가 되었다. 따라서 이 지역의 농민들은 대개 동척의 땅을 경작하거나, 용주사의 사찰 땅을 소작하는 소작농들이었다. 또한 동척 소유의 대토지로 인하여 농업이주민 자격의 일본인들이 많았다고 한다. 일본인들과의 관계는 어린 마음에도 조선인이 당하는 피해를 보고 자라서인지 특별히 좋은 기억이 없다. 다만 그들에게 당한 공출이나 징용·부역 등에 관한 기억이 있을 뿐이다.

그토록 바라던 해방이 되면서 이곳도 역시 좌·우익의 홍역을 여실히 앓았던 대표적인 곳이다. 이들이 대개 초등학교 시절이라 이것에 대한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아직도 그 상흔이 남아 실명을 거론하기를 꺼려했다. 다만, '육이오사변'이라는 한국전쟁에 대한 기억을 더듬어본다.

육이오사변 전에 여기 안녕리에서 빨갱이들이 와서 막 싸우고, 퇴끼부리 거기서. 내가 어려서이긴 하지만, 그 자리가 대한전선 자리인데. 그때 거기서 보다 저 건너 사람들이 많이 죽었지. 양산리. 미군이 폭격을 많이 했지. 거기가 빨갱이 사상이 강했거든.

육이오사변 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겨우 열댓 살 먹은 거라, 잘 몰라. 1947년도인가 1948년도인가 그랬던 거야.

좌익이니 우익이니 사상이 뭔지 알고들 했나, 그냥 이게 들어오면 그거에 따라가고 다음에 그게 오면 물리고... 다 그렇다고는 볼 수 없지만... 여기도 좌·우익의 피해가 있었죠. 육이오 때도 성황산에는 미군이 있었고, 인민군들이 진격을 해요. 여기 뒷산을 용난굴이라고 해요, 용이 승천한 굴이 있다고,.. 용주사하고 관련 되서 용자가 붙었는지는 몰라. 그래, 여기 뒷산에서 싸움이 붙어 가지고는 아침이 되니깐 밥해달라고 해서 먹고 양산으로 가서 포를 쏘니깐, 양산에 떨어지는 거야. 집들이 많이 파괴되고 죽고 했지.

한국전쟁 시 비행장을 장악하고 이 마을 뒷산에 주둔했던 미군과 오산 북쪽(양산)에서 진지를 틀고 있던 인민군의 치열했던 전투의 길목이 이곳 송산리와 안녕리였다. 비행장이라는 전략적 요충지로서 이 지역의 폭격 피해는 대단했다고 한다.

인기홍 : 우리 집도 폭격 맞았지. 사람은 안 죽었는데... 여기 비행장 때문에 폭격피해가 많았어. 여기 용난굴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저쪽 넘어 양산 쪽에 인민군이 있어서 밤에 애네들이 이리로 습격하는 거야. 그러면 개네 인민군 애들이 아침에 그리 다시 가면 여기 미군에서는 포를 쏘는 거야. 멀리. 아주 대단했었어, 윤만복 : 피난 내려가는 길이라서 안녕리는 피난민이 많았었는데, 여기 송산리는 별로 없었어.

(피난민이 정착한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요)

김응환 : 아리랑집이라고 개풍 출신 할머니인데, 거기서 술 많이 마셨어. 그때는 소주가 아니라 막걸리였어, 그 주인 할머니가 이제는 돌아가셨는데, 아주 좋았어.

강창원 : 산부인과에 해당하는 이세검 씨가 있었고, 영생약방하던 조신희 씨 그 사람은

의전장교라나 북에서 군에 있을 때 의무관 그런 거였다고... 이 양반들이 다 뭐 그때 내려와서 산 거지.

실제 수원비행장은 한국전쟁에서 국군·유엔군과 인민군·중공군 등 양쪽 모두에게 핵심적인 전략기지로서의 뺏고 빼앗기는 격전지였다. 한국전쟁이 개전된 3일 만에 인민군에 의해서 서울이 점령되자 6월 28일 육군본부가 수원 농업시험장으로 이전하여 국군작전지휘부가 되었으며, 이어 미 극동사령관인 맥아더가 수원비행장에 내려 전선을 시찰하기도 했다. 이에 다음날인 29일 인민공군기의 대대적인 수원비행장 공습이 있었으며, 7월 4일 인민군이 수원을 점령한 후 수원비행장도 인민군의 차지가 되었다. 이후 9·18 수복으로 유엔군은 9월 21일에 수원을 다시 탈환하며, 22일에 가서야 2개월 17일 만에 수원비행장을 다시 장악할 수 있었다. 수원비행장은 미군에 의해서 10월 1일까지 보수공사를 완료하며, 유엔군 수송과 보급기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1951년 1·4후퇴 시 유엔군은 수원비행장이 적에게 이용될 것을 예비하기 위하여 파괴하였고, 이어 1월 7일 중공군에 의하여 수원 지역이 점령되자 다시 공산군에 의하여 수원비행장도 장악되었다. 이후 3월 18일 유엔군이 서울을 재탈환 시기에 와서 수원비행장 역시 유엔군의 차지가 될 수 있었다.²⁾ 이처럼 수원비행장은 양쪽 모두에게 핵심적 전략기지로 그 중요성이 대단했기에 그에 인접한 지역의 피해 역시 컸다.

그 가운데 특히 9·18수복으로 유엔군의 수원 재탈환 후 수원비행장을 서로 점령하려는 미군과 인민군의 전투는 아주 치열하였으며, 그 전장의 가운데가 바로 송산리·안녕리 지역이었다. 따라서 수원비행장에 인접된 화산동은 이로 인하여 한국전쟁 개전 이래로 폭격의 피해가 심각하였다.

2) 외지인의 유입과 마을의 변화

격동의 근현대사를 거치며 이 마을에도 서서히 외지인들이 유입되면서 마을의 변화가 생겨나게 되었다. 외지인의 유입이라면 일제강점기의 이주농민으로서의 일본사람들이 그 시작이라 할 수 있으나, 마을의 기존 질서와 가시적인 면에서의 변화는 역시 1960년대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개척농장이 생기면서... 외지인이 좀 들어오기 시작했지. 군사혁명 이후 장교들 뭐 제대군인들에게...(이쪽에 연고가 있는 제대군인들에게 불하한 거예요?) 아니, 연고 없이 그냥... 있잖아, 5·16혁명 나고 장교들 상사들 군인들 막 제대 시켰거든. 그때 국유지를 불하해서 생기는 게 개척농장인... 여기 국유지가 많았잖아. 그래서 여기 안녕리 넓은 땅

2) 한국전쟁 시 수원비행장에 대하여는 「수원시사상」, 「제2편 수원의 역사-한국전쟁과 수원」(수원시, 1996)을 참고하였다.

을 얼마씩 제대 군인들한테 떼어준 거야. 혁명정부 시절이니깐 군인들한테 그런 거지.

여기 근데 그게 산이 많고 그래서 개간해려니 힘들고 해서 나간 사람도 많고 그제 원래 산이었어. 그래서 여기 사람들하고 싸움 많이 했거든. 땅을 거저 뺏어갈려고 하지 뭐야. 쌈을 여기서 닛 들고 싸워 가지고 그 사람들 대토를 쫓아,

그제 나라땅을 그냥 해 먹던 거여. 그런데 군인들한테 불하를 해서 내쫓으려고 하니 켜, 원래 그 땅을 다 개간하고 해던... 따비로 다 개간했던 사람들하고 개척농장 사람들하고 갈등이 많았어. 그래서 매 싸우고, 그래서 대토를 남산에 쫓았어. 그러니깐, 권리금처럼 그 사람들에게(작인들) 땅값을 3원씩인가 얼마를 줬어요, 그래서 대토를 저기 남산에 한 거지.

(개척농장 불하받은 사람들은 여기서 그 땅에서 농사지었어요?) 아니 짓는 사람도 있긴 해도 팔고 나갔지, 거의 상사 이상이야. 여기 온 사람들 계급이... 농사짓던 사람들이 아니니깐 뭐 그 사람들이 흙벽돌집을 조그맣게 진거야. 그래도 해 먹을 게 없으니, 떠나고, 떠나고 해서 이제 얼마 없어.

지금은 거기 아파트 생기고 해서 끝까지 남은 사람은 돈 좀 벌었을 거야.

여기 도로는 요 근래지, 여기가 바뀐 거 있잖아, 박정희 시대 때 새마을사업한다고 뭐 지붕개량 농토개량 뭐 또 도로확장말이야, 이런 게 박정희 시대부터 한 거란 말이야. 새마을사업. 그래서 포장되고 된 거야.

여기 있잖아 평토 정리한 게 있어. 시범적으로 딴 데보다 우선권으로 여기를 정리했거든, 그래서 존슨 대통령 보여줄려고 왔잖아. 병점역 이쪽부터 여기 안녕리 일대 넓은 터에 다. 농토가 다 반듯반듯 하게 한 거야.

(존슨 대통령 왔을 때 구경가셨어요?) 그럼 뭐 다 가지. 대통령이 오니깐 다 구경갔지. (농민대표 있었잖아요?) 어 있어. 그때 노인네가 존슨 대통령하고 헬리콥터 타고 다 했어. (그분이 최시중 할아버지요?) 그 노인이 헬리콥터 타고 여기 돌고 했던 말이야.³⁾ 그래서 저기 이름도 존슨동산이야. 잘해놨더라고... 안용중학교 옆에... 그때 진짜 사람 많이 왔는데, 그제 가지고 저기 집 개와장도 날아 갔어요. 헬리콥터 바람 때문에... (하하) 여기 사람이 하얗게 모였어.

근데 3리 앞은 경지정리를 존슨이 왔다 가고 한 거야. 송산3리는.

송산리의 노인들이 느끼는 마을의 변화는 역시 우리나라 어느 농촌사회에서와 마찬가지로 1960~1970년대의 새마을운동에서부터이다. 특히 이 지역은 1960년대 군사정부시절에 제대군인에게 불하한 개척농장으로 인한 외지인의 유입과 지역민의 갈등, 그리고 존슨 대통령 방한 시 시찰 대상인 경지정리사업 시범지구로서 이른 시기에 농촌사

3) 존슨 대통령 방한 시 안용면 농민대표가 최시중(1901~1991)씨였으며, 그는 이때 농민대표로서 존슨에게 선물을 증정하고 마을주민들이 마련한 신랑복을 차려 입은 존슨 대통령과 기념촬영도 하였다. 또한 존슨의 요청으로 헬기를 타고 수원 상공을 순회하는 동안 미국방문 초청에 대한 의사 여부를 묻는 존슨에게 흔쾌히 승낙하였고, 이에 존슨 대통령이 불펜과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칼을 선물로 주었다고 한다. 존슨 대통령이 돌아가고 난 뒤 최시중은 몇 차례의 방송출연을 하는 등 당시 유명 인사가 되었다. 그러나 미국 초청은 최시중이 연로한 관계로 무산되었다고 한다. 『수원의 동족마을』, 『영통동 신나무실 탐진최씨』, 수원시, 2006, 297~298쪽.

회의 변화를 맞은 곳이다.

이후 이곳 노인들이 느끼는 마을의 변화는 1970년대의 새마을운동으로 농촌사회였던 이곳에도 점차 도시화의 물결로 외지인의 유입이 증가하면서 인구증대와 공장시설의 유입과 확대로 전형적인 농촌의 모습을 탈피해 갔다는 것이다. 또한 근래에는 특히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과 대단위 아파트 단지 조성으로 인한 외지인의 인구급증으로 전통적인 자연마을의 모습이 점차 해체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3) 노인회와 노년기의 사회

송산동의 노인정은 송산1리 마을회관 2층에 마련되어 있다. 이 마을의 노인들이 자연스럽게 드나드는 노인정이 곧 옛날 사랑방의 역할을 하는 곳이다. 이제는 토박이 노인들뿐 아니라 외지에서 유입한 노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모임터로 애용되는 곳이 노인정이다.

인기홍 : 요 아래 안녕리 노인정이 제일 오래된 거예요. 옛날에는 학구단위로 노인정을 만들었거든. (그러면 송산리 분들도 이리로 다니신 거예요?) 네, 황계리고 송산리고 안녕리고 다 그리 가고... (한 면에 하나씩 만들어진 건가요?) 아니, 학교단위... 학구단위, 화산초등학교 학구단위 노인회가 있었어. 여기 송산·안녕·황계는 화산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노인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자연부락 단위의 노인회가 조직된 거죠. 여기 노인회 서류가 있는데, 1978년이예요, 화산학구단위 노인회라고 안용1리 노인회가 그거야. 처음에.

김응환 : 초대 회장이 이은성 씨 아니야?

강창원 : 그래 이은성 씨지.

노인정에 오면 뭐 옛날 얘기도 하고 장기도 두고, 바둑도 두고... 화투도 치고 술도 하고 그렇지. 일이 있든 없든 오며 가며 드나드는 거지 뭐.

노인회에서 바닷가도 가고 어디어디 놀러도 갈 때도 있고, 이제 늙어서... 친구도 늙고 나도 늙고 옛날 얘기나 하는 거지, 뭐...

화산동 지역의 노인회 중 가장 먼저 만들어진 것은 안녕1리 노인회로, 현재 화산동사무소가 소재한 농협 좌측의 화산동노인정이 이 지역 최초의 노인회 경로당이였다. 노인회에 보관된 서류에 의하면, 이후 1979년부터 대한노인회 화성군지회 화산노인회가 발

죽되었으며, 오늘날과 같은 송산1리 노인회가 만들어진 것은 1991년의 일이다. 지금은 송산동 안에 이곳 외에도 7개의 노인정이 더 있다.

송산1통 노인회에 현재 회원은 남녀 모두 37명으로 되어 있는데, 대개 오후가 되어야 방안 가득히 모이게 된다. 주로 장기·바둑·화투 같은 놀이로 시간을 보내시기도 하며, 한쪽에서는 지난 시절의 이야기와 신변잡담이나 마을 소식을 전하기도 하며 가끔은 약주 한 잔에 가는 세월을 탓해 보기도 하신다고 한다.



송산1통 노인회 회장으로 원송산 토박이인 인기홍 씨이다.

살기는 박정희 때가 좋았어.

그럼 그때가 낫지. 그때가 좋았어. 사람이 활기차잖아.

그때는 뭐 한다고 농촌도 다들 활기찼지. 우리가 젊기도 했지만...

마을이 변화되고 발전되는 게 좋지만, 한편으로는 발전되면 좋겠고, 옛날의 향수들이 없어지는 게 아쉽고, 옛 전통으로 이어지던 게 미신이라고 하면서 멀리하고... 여기도 산이 있어서 산제를 지냈는데, 신을 믿고, 제사 음식을 해서 산고사도 지내고 복도 기원하면서 마을사람들이 함께 음식도 나누고 하는 게... 이제는 산업화가 되면서 외지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미신이라면서 이게 유지가 안돼요. 미신이라는 건 좀 그래요. 우리는 그냥 선대로부터 쪽 이어져오는 거니깐, 하는 건데, 이거를 외지사람들이 더 많아지니깐 힘들어져서 없어졌어요.

아쉬움이 있지요, 우리 주변 사람들이 가끔 얘기를 해요, 내가 태어나고 우리 아버지가 태어나고 내 할아버지가 태어난 고향인데도, 현재는 여기가 '내 고향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내가 그리는 고향은 내 마음속에 고향이 따로 있다는 거지. 주위 사람들이 마음 속에 그리는 고향이 지금의 여기 모습과는 많이 다르다는 거지.

자신들이 태어나 유년기를 보내고 성장하여 가정을 이뤄 삶을 일궈나간 자리가 점차 과거와는 많이 달라지는 모습이 사뭇 낯설기도 하고 못내 아쉽기도 한 것이 노년의 토박이들이 느끼는 정서이다.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는 길도 뚫리고 편의시설은 더 좋아지는 것 같아도 이웃 간에 정을 나누며 살던 마을의 기존 질서들이 허물어져가는 것은 안타까울 뿐이다. 그러나 이제는 마을의 구성원도 외지인의 수가 훨씬 많아진 형편이고, 그들을 이웃하여 살아가며 마을공동체를 유지해 가야 하는 것이 현실임을 안다. 그래서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인구가 늘어나며 점차 도시화되어 가는 마을이 한편으로 활기찬 모습이기를 바라면서도 한편으로는 과거에 대한 향수와 정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며 노년기를 보내는 원송산 토박이 어르신들의 모습이다.

(2) 지역사회 교육의 중심인 안용중학교와 설립자의 잊지 못할 경험

차학근(車鶴根) 씨는 1934년에 송산리에서 출생하여 73년째 거주하며, 한 번도 외지로 떠나본 적이 없는 토박이이다. 게다가 지역 사회에 손꼽히는 교육기관인 안용중학교의 설립자이자 현재 교장으로 재임하며 평생을 고향 지역의 교육에 힘써온 교육자이다.

황계리·송산리·안녕리뿐 아니라 정남·봉담 등 동부권 화성지역에서 꽤 오래도록 이 지역의 중등교육은 이곳 안용중학교에서 이루어졌다. 이 지역의 남성들은 대개 화산 초등학교를 나와 안용중학교로의 진학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지역의 학연(學緣)이 자연스레 형성되는 곳이기도 하다.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유대관계를 한층 강화하는 안용중학교는 지역의 거의 유일한 중등교육기관으로 오랜 시간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안용중학교의 설립자인 차학근 씨에게 그가 50여



안용중학교를 설립한 차학근 교장은 원송산(송산1통)이 출생지인 이 지역 토박이이다.

년이 넘게 이 지역 사회에 쏟은 교육에 대한 열정과 애착에 대한 남다른 감회, 그리고 고향에 뿌리를 내린 토박이로서의 생애담과 특별한 경험을 들으며, 지역 사회를 여전히 지탱하는 노년의 토박이 모습을 조망하고자 한다.⁴⁾

4) 차학근 씨와의 면담은 안용중학교 교장실에서 있었으며, 이날 건립 초기 관계자로 안용성인학교에서부터 교사로 재직했던 인기홍 씨(1935년생, 송산리 출생)도 동참하였다. 이 글에서는 면담 내용을 시간의 흐름과 사건에 맞춰 원고 진행에 따라 재구성하였다.

1) 출생과 유년시절

—선생님께서도 여기서 태생하신 건가요?

=네, 송산리. 원송산이요.

—송산에서 몇 년도에 태어나신 건가요?

=1934년 7월 25일이요.

-몇 대째 살고 계신 거예요?

=아마 이리 이사온 거는 우리 아버지가 3대째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나도 그걸 찾아 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 없는데, 우정면 호곡리가 있거든요. 거기가 바닷가 아닙니까? 그래서 연안 쪽에서 그리 이사온 게 아닌가 찾아보려고 해도 알도리가 없어, 다 돌아가셔서, 거기가 조상님 산소가 있어요.

-묘들을 보면... 호곡리 선산에 윗대 할아버님 묘는 어디에 계세요?

=거기에 증조, 고조가 다 계세요. 거기도 마을이 있죠. 바닷가 근처 지금은 밭이에요.

-송산리에 들어오신 게 그럼 아버지대인지, 할아버지대인지 모르시는 거네요?

=저희 할아버지대인거 같아요.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나는 얼굴도 모르는 데...

-차씨 집안은 원래 이 동네에 있었나요?

=그렇죠. 몇 집 있었죠.

-아, 그럼 남산 밑 차씨들하고는 다른 거고요?

=먼 친척이 되겠죠. 연안 차씨니깐.

-원송산에도 원래 차씨들이 많이 살았어요?

=아니요, 거기는 우리 집이 있고, 여기 송산2리에 우리 사촌들이 좀 살고...

-그러면 차범근 씨하고는 몇 촌이세요?

=6촌. 아버지하고 사촌이니깐.

-여기 근방에 연안 차씨 가호(家戶)가 많았나요?

=범근이 아버지가 4형제인가 그렇고, 우리는 우리 집 하나고,

-어느 댁이 큰댁인데요?

=우리가 큰집이고...

-차범근 씨도 여기 출신이예요?

=여기 출신이지.

-선생님 형제는 어떻게 되세요?

=삼형제, 4남매예요. 막내고요. 형님들 두 분 돌아가시고 누님...

-형님들은 어디 사셨어요?

=송산리에 한 분 사셨다 돌아가시고, 의왕시에 한 분 사셨었고, 의왕 사시던 분은 참 전 장교로 국립묘지에 10년 전에 묻히셨어요.

-왜정시대에 학교 다니셨잖아요?

=네, 안릉초등학교(당시 정식 교명은 안용공립국민학교) 나왔어요.

-몇 년에 졸업하셨죠?

=21회니깐, 해방된 해에 졸업했어요.

-그러면 1945년, 그때는 6년제였죠?

=네, 6년제로 졸업했어요.

-상급학교 진학은 어디로 하셨나요?

=제가 중고등학교는 중대부중·중대부고 나왔어요.

-서울로 다니셨어요? 여기서 통학하셨어요?

=네, 여기서 통학했죠.

-그게 그럼 학교가 어디에 있었죠?

=흑석동이요. 여기 송산리에서 막 뛰어나가면 오산서 기적 소리가 나요, 그럼 막 역까지 뛰어 들어가서 타고, 그때는 천안부터 다니는 통근기차가 있었는데, 그게 병점역에 들어오면 그걸 뛰어가서 타고... 그래서 지금까지 건강한가 봐요, 그때 하도 뛰어 서...(하하하). 여기서 뛰지, 또 노량진에서 학교까지 걸어가지, 매일.

-그러면 노량진에서는 만년고개 넘어 가는 거죠?

=그렇죠, 만년고개로 걸어가지.

-선생님 대학은 어디로 진학하셨어요?

=저는 건국대학이요.

-전공은?

=전공은... 그 당시 법학과, 행정 뭐 그런...

-중학교 · 고등학교 다닐 때 한국전쟁이 난 건데...

=고등학교 1학년 때예요.

-그때 전쟁에 안 나갔어요?

=안 나갔는데, 그때 기억이 나는데, 학교에 갔다가 막 돌아가라고 해서 영등포역까지 걸어와 가지고 영등포 지하철도로 내려갔는데 폭격 소리가 막 나고 그러던 생각이 지금도 나는데, 굴 속에 숨으면 뭘해요, 위에 떨어지면 그만인데, (하하하) 그래 막 나와 가지고 시흥 어디까지 화물차 타고 와서 집에 걸어오던 생각이 나요.

-17살 정도면 그때 동네 돌아가는 상황은 좀 아셨겠네요?

=그때도 세력 다툼이 있기는 했지. 세력다툼이 좌익 · 우익으로 갈라서 가지고 누가 옳으냐 했는데, 많이 희생됐지요.

-해방되는 시기에 이 동네에 분위기는...

=여기 동척 땅이 많아서 일본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해방되고 대단했거든요. 일본 사람이 몇이... 이토 히로부미 사촌인가 하는 동생이 여기 화산초등학교(당시 교명은 화산공립국민학교) 교장으로 있었는데...

-죽었다는 말이 있던데요, 그게 사실이에요?

=네. 죽었다고 해요. 그 당시 어렸을 때지만, 초등학교 다닐 땐데 제가 요기 병점온천 있는데 바로 그 아래 살았거든요. 요기가 왜놈들 촌이 있었는데...

-몇 가구나 살았어요, 일본인들이?

=일곱 여덟 가구 됐죠.

-생각나는 성씨 있으세요?

=다 알지. 다이코(たいこ), 야마우에(山上), 다나까(田中), 그 뒤가 구보(久保), 노기(乃木) 그 당시 해방될 때 청년들이 몽둥이 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 당시 저보다 나이 조금 위인데, 열일곱, 여덟쯤 됐을 거예요, 그 여자가 우리 집으로 피신을 와 가지고, 이름은 '유리코(ゆりこ)' 라고 우리 아버지가 이름을 댄어주고 그랬어요. 재작년인가 일본

에 가서... 고가와(小川)가 있는데, 고가와가 얼마 전에 여기 와서 나를 찾았다고 해요. 여기(안용중학교)에 있는 줄은 모르고, 그래 동경에 가 가지고 저녁에 전화를 하니까, 고가와 동생이 유리꼬인데, 사진도 교환하고 그랬는데...

-연배가 비슷하신가요, 두 분이?

=아니요, 여든 셋인가 그 분이. 병점역에 다니셨거든요, 그 분이. 그래서 아주 반가워 하면서 자기 집으로 오라고 하는데, 갈 수는 없었지만, 그 내용을 다 기억하고 있더군요. 기억해 편지에 그걸 다 썼는데, 그때 이불로 덮어준 거, 그런 거 다 기억해요.

-화산학교 일본인 교장이 그때 죽은 거는 확실한건가요?

=그 당시에 죽은 거지요, 누가 죽인 걸로 알지요. 누가 죽였는지는 모르지만...

-어디서 죽였는지는 모르고요?

=집안에서 죽었다고...⁵⁾

-교장이 이름이 이토예요?

=이토 히로부미하고 사촌이라고도 하고, 이토 나가라고 했어요.⁶⁾

=(인기홍) 그 집에서 습자지·교지 뭐 이런 것도 팔았거든요.

-문방구 같은?

=그렇죠, 문방구처럼. 그래서 나도 사고 그랬는데,

-송산리에 살면서?

=그렇죠. 엔젤악기 바로 밑에서.

-용주사 땅이 많았나요?

=맞죠, 여기는 거의 용주사 땅이지. 강대련 땅.

-강대련 씨 땅요? 절 땅 말고 강대련 씨 땅이 있었어요?

=아니, 용주사 땅. 강대련 씨가 주지였으니까.

-누가 소작을 했나요?

=하던 사람도 있기는 한데, 지금은 안 하지. 절에 학교가 있었던 거는 아세요?

5) 장윤국(1925년 송산리 출생, 현 송산1통 거주) 씨의 증언으로는 당시 죽은 사람은 화산학교 교장이 아니라, 그 집에서 다른 일본인 부부가 살해된 것이라고 한다. 일본인의 살해도 해방시기 조선인들이 일본인에게 가졌던 울분에 의한 사건보다는 단순 강도사건이라고 알고 있다고 한다.

6) 인기홍 씨의 추후 제보에 의하면, 당시 화산국민학교를 다녔던 마을 사람의 증언에 따르면 교장은 일본군 하사로 출전하게 되어 이토 나가가 초대 교장으로 부임하게 되었다고 한다.

-언제요, 육이오 때요? 육이오 전예요?

=아니, 육이오 전에. 지금 들어가자면 오른쪽에.

-예, 오른쪽예요. 그게 육이오 전이에요?

=제가 거기를 다녔는데요, 그때 거기를 다니면서 누구냐 거 강대련 씨가 지나가면 절 하라고 그랬는데,

-해방 전이네요?

=그렇죠.

-그 정확히 이름이 뭐였어요?

=(인기홍) 경기도 관인 화산강습소.

-송산강습소가 아니예요?

=(인기홍) 아니요, 화산강습소. 분명 화산이 들어가요.

-강대련 씨가 1942년에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다니신 건가요?

=그렇지, 유치원.

-초등학교 전에 유치원으로 1년 다니신 건가요?

=네. '옥희' 라고 날 업고 땡겼으니까, 동네사람인데 옛날에는 귀여워서 업고 다녔어요.

-그때도 다니셨어요, 유치원을?

=네.

-그럼 그때 누가 가르치셨어요, 스님들도 가르치셨어요?

=네. 스님들이.⁷⁾

-이름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금강산에서 왔다는 스님. 강원도에서 왔다는 마찌.

=(인기홍) 그 당시에 다닌 사람들이 강창원도 다녔는데... 강창원이라고 우리 친구인데.

=지금 중앙교회 김장환 목사 개도 같이 다녔어요.

7) 이 강습소 교사에 대하여는 송산1통 노인정의 토박이 어르신들 증언으로 스님들이 아니었다고 한다.

351

화 산 동 지

-김장환 목사님도 여기 다니셨어요?

=초등학교는 나하고 같이 다녔어요. 안용.

-절 학교도 같이 다녔어요?

=절 학교도 다닌 거 같은데, 개네 집이 장지리였거든. 안릉초등학교를 같이 다녀서 가끔 만나요. 나만 보면 '교회 나와라, 교회 나와라' 해요. (하하하) 4학년 때까진가, 5학년 때까진가 다니다가 세류학교로 갔어요.

-그때 절 학교에서 배우신 게 뭐였어요?

=전혀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한글 가르쳤을 거예요.

=(인기홍) 그런데, 일본어도 가르쳤어요. 우리 누님이 거기 다니셨는데, 그 책이 있어요.

=육이오 때는 대웅전에서 학교 했어요.

-대웅전이에요, 천보루예요?

=천보루.

-육이오 때 안용학교 아이들이 여기서...

=(인기홍) 육이오 때가 아니고 해방되면서 아닌가요? 그래 가지고 누가 어머니라고 썼는데,

-한글로요?

=(인기홍) 어머니라고 썼는데, 가와베 선생님이 막 혼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해방되기 전인데...

=아니 육이오 때 아니에요?

=(인기홍) 해방되기 전이에요.

-두 분이 다 맞아요. 여기서 왜정 말기에 B-29 폭격 있을 때 소개할 때 거기로 갔었고, 또 육이오 때 또 거기로 가서 공부했어요.

=아무튼, 가와베 선생님한테 되게 맞았던 게 생각나.

-용주사 쪽 하면 놀았던 기억이나, 거기에 큰 재 같은 게 들어와서 구경 갔거나 한 기억은 없으세요?

=석가모니탄신일에 연극하고 그랬어요.

-연극은 누가, 어디서 했어요?

=스님들이 했어요.

-무대는 어디고요? 무대를 만들었어요, 야외에?

=아니, 대웅전 앞에 뜰이 있어서, 거기서. 지금 생각하니깐 생로병사에 관한 내용이 있어.

-절 학교 다닐 때 학생은 몇 명이었나요?

=아마 70~80명 정도 됐어요.

=(인기홍) 여기가 학생 범위가 정남면 · 안용면 · 봉담면 이랬어요.

-이 학교는 그럼 취학 이전을 대상으로 했어요?

=아니요, 저 같은 경우는 할아버지가 업어다가도 주시고 아까 얘기한 옥희 누나가...
연령엔 상관없었어요.

=(인기홍) 기억이 나는데, 나는 다닌 거는 아니고 놀러갔었는데...

=교실이 하나 아니에요?

=(인기홍) 하나였어요, 마루에 그냥 앉는데, 화로를 여기서부터 돌리는 거예요. 그 기억이 나요.

-선생님 댁은 농사 지으셨어요?

=네, 농사지었어요.

-대개 소작을 하신 거지요?

=안녕리 사람들이 소작을 많이 했지.

=(인기홍) 여기도 왜정시대에는 소작이 많았지. 자작농은 별로 없었죠, 해방되고 나서 개간을 해서 불하를 받았어요. 그래서 자작농이 생겼죠.

2) 안용중학교의 설립 -심훈의 『상록수』를 보고...

-처음 성인학교 만들 때부터 관여를 하셨나요?

=처음에는 아니죠. 여기 지서에 경위로 재직 중인 한정혁 씨라고, 자유당 정권, 이승

만 대통령 있을 때인데, 여기 지서에 와 가지고... 저는 그때 20대 때인데, (그분이) 봉급을 타서 돼지나 닭을 마을에 못사는 사람들에게 주고서 그거를 키워서 부락을 부유하게 한다 그런 걸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농업협동조합이 우리나라 최초로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안용농협이. 거기 이익을 마을에 돌리고 도서관도 만들고, 그 당시에 여름에는 명석을 펴놓고 마을사람들을 불러다가 계몽운동도 하고, 또 한글도 가르치고 야외에다 걸어놓고 제가 그걸 봤어요. 여기서 근무했으니깐, 인근에 초등학교, 지금 화산초등학교, 여름에 정자 아래 장소 빌려서... 뭐 거의 강제죠. '너도 나와라' 그러면서 했죠.



안용성인학교를 처음 시작한 한정혁 씨를 기념하는 비가 학교 진입 초입에 있다.

-야학처럼요?

=네. 그분이 쪽 하는데 잡으라는 도둑놈은 안 잡고 다른 일에 힘쓰니깐, 이 양반이 좌천이 됐어요, 좌천이 돼 가지고 팔탄지서로 가서서, 팔탄으로 가고, 저 개인은 군인을 갔는데, 돌아와 보니깐, 군대에서 제대하고 돌아와 보니깐, 팔탄에 가서 과로로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거기 가서도 그걸 시작했다가...

-그때가, 제대하신 연도가 어떻게 되세요?

=1960년도요. 그분이 시작한 거는 아마 1957년인가 그래요.

-동네사람들도 같이 한 거는 아니었나요? 도움을 주신 분들은 없으셨어요?

=동네분들은 글썽 그거는 잘 모르지만, 협동조합 서창식, 이은성 씨 이분들이... 서창식 씨는 마을협동조합의 상무를 봤어요. 이은성 씨는 조합장이셨고.

-성인학교가 한 경위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거의 유명무실해지고 난 다음에...

=그래서 그때 그분이 계몽사업을 하다가 결국은 돌아가셨다는 거에 쇼크를 받았지요. 돌아가시고 보니깐, 그게 없어지고, 시작을 다시 한 번 해보자. 안녕리 화산철물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우체국이었는데, 적산가옥으로 비어 있었어요. 처음에 그게 크게 목표를 해서 한 거는 아닌데, 애들이 너무 노는 애들도 많고, 글을 모르는 애들도 많고 모아 보니깐,

=(인기홍) 그때 범위가 양산이 오산 아니에요? 봉담·정남·안용면 이렇게 4개 면을 대상으로 양산·수기리·병점·황계리까지 다지 뭐.

-그 당시에 몇 명 정도 됐어요?

=그때 모으다 보니깐, 그때 야간으로 했는데, 100여 명 가까이 됐어요, 그래서 분류를 했어요. 초등반·중등반으로 나뉘서 인선생님이(인기홍 씨를 가리키며) 초등반을 맡고, 중등반을 내가 맡았는데, 혼자 힘드니깐 중등반 수학을 인선생님이 더 맡아주고, 나머지는 내가 가르치며, 지금 권선중학교 정년퇴임한 홍교장이라고...

-홍?

=홍병성이라고. 교장선생님으로 퇴임했는데. 또 이두현 씨라고 그분이 처음에 조금 도와주고.

-대학 졸업하고 군대를 가신 건가요?

=네. 내가 한정혁 그분을 안 거는 대학교 2학년 때예요.

-아까 성인학교 처음 하셨던 우체국은 해방 후 계속 비어있었나요? 1961년에 선생님께서 성인학교를 다시 시작하는 거니깐, 그때까지?

=네, 비어 있었어요.

-그럼 우체국은요?

=병점으로, 해방되고 병점으로 갔어요.

=(인기홍) 우체국 터가 모자라 가지고 그 뒤에다가 천막을 쳐 가지고 했어요.

-안녕리 방죽 옆에 큰 건물이 있었죠?

=안녕지서예요.

-천막교사로 지내다가 여기 부지로(현 안용중학교 부지) 오게 된 것은 여기 일단 사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누가 임대를 해준 건가요?

=그 당시는 여기가 국유지였었는데, 먼저 갈아먹으면서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일부는 반은 산이고 반은 밭이고... 심훈의 『상록수』를 보고서 감명을 받아 가지고 그 당시 여건으로 내가 해야겠다. 밭을 가진 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산 거는 중학교 인가를 받고 산 거예요.

-1969년에 학교법인이 설립된 후에 사신 거네요?

=네. 그렇죠. 여기를 사는 데도 애로가 많았어요. 왜냐면은 이미 기득권을 가진 분들이 양해를 하지 않는 분들도 있고...

-초기 세 분이 주축이 돼서 학교 운영하실 때, 아무리 그래도 학교를 운영하려면 최소한의 운영비가 있어야 할 텐데, 어떻게 하셨나요?

=그 당시는 무보수로 하니깐, 가을엔 쌀 한 말이라고는 하는데, 가져오면 받고 그렇지 않으면 안 받는 거지.

-처음 성인학교를 하실 때 그런 뜻을 보이고 동지를 구하러 다니셨을 텐데, 아까 계획위원을 잠깐 언급하셨는데, 어떻게 구성하셨어요?

=유지들하고 우리보다 윗분들, 연배가 높으신 분들을 규합해 가지고 그분들을 세워 가지고 이러이러한 뜻을 가지고 우리가 하려고 한다, 뭐 그랬지.

-당시 계획위원은 누구였나요?

=박승용 씨, 윤호순 씨 전부 거기(용주사) 스님들이셨을 거예요. 또 박용근 씨, 이은성 씨 뭐 그래요.

-이은성 씨는 어떤?

=마을협동조합 일을 보셨고 비교적 선진적인 생각을 많이 하셨어요.

-이분들이 처음에 기부금이나 뭐 이런 도움을 주셨나요?

=(인기홍) 아니요. 그런 거는 없고, 이은성 씨는 목수예요, 원래. 그래서 학교 건축에 도움을 좀 주셨지.

=그리고 김학성 씨가 많이 도움을 주셨고요. 그분이 재주가 많아서 건물 뭐 이런 거 학교에 오래 신경썼어요.

-선생님보다 연배가 많으셨나요?

=네, 지금 종근당 이종근 회장 처남인데...

-김학성 씨가요?

=네, 그래 거기 오래도 안 가고 여기서 이것만 하고... 그런 분 없어요.

-이분도 송산리 분이세요?

=네, 초등학교 5년 선배가 그래요.

-학교 초기와 관련해서 또 생각나시는 분은요?

=최한용 씨. 그분이 초대 육성회 회장이셨어요.

-수원에서 사진관 하셨잖아요?

=여기서도 했어요, 한영사진관이요. 그분 아들이 여기 다녀서...

-이분 아버지가 수원에서 최초로 사진관을 내셨거든요.

=아, 그렇구나, 아버지 때부터이구나.

-초대 육성회장이시면 도움을 많이 주셨나요?

=뭐, 정신적인 도움을 많이 주셨지. 다 어려운 때니깐.

-그러면 (학생)모집은 하러 어떻게 다니셨어요?

=안녕리 마을에 엠프 시설이 있어서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어디어디로 모여라 그러고 서...

-시작하신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세요?

=1961년 10월 5일.

-초등부와 중등부로 구분하셨다고 했는데,

=초등부는 인선생님이 전담하시고, 중등부의 수학도 가르치시고... 이분이(인기홍 씨를 가리키며) 초등학교에서 퇴임하셨어요.

-그때 학교 정식 명칭이?

=안용성인학교.

-교명은?

=(인기홍) 여기가 안용면이니깐, 그때 여기가 수원군 안용면이었다가 그래서 그때 교명 가지고 말이 있었어요, 송산리에 있으니깐 송산이라 해야 한다 뭐, 그때는 면 이름이 안용면이니깐.

-1961년에는 정식으로 인가를 받은 거는 아니고요.

=네, 그리고 이리로(현 송산리 97번지) 옮겨왔어요.

=(인기홍) 5·16 군사혁명이 났어요. 그 당시에 안용공립초등학교 학교선생님으로 계시다가 군인 가 가지고 장교되신 분이 있어요. 윤재학 선생님이라고, 그 양반이 그 당시에 중령인가, 대령인가 그랬는데, 재건본부에 계시는데, 문맹퇴치한다고 하니 해태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줬어요. 그래 가지고 안용성인학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국유지에다가 학교를 짓고... 1963년인가 안용고등공민학교로 인가를 받은 거예요.⁸⁾

-1963년도에 고등공민학교로 인가를 받으면서 설립자, 이사장으로 취임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오. 교장으로, 법인체로 구성이 안 된 때니까. 그때는 뭔지도 모르고 했어.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관리 관청에서 고등공민학교 해라 해서 했지.

-그럼 어디다 신고하신 건가요?

=화성교육청이요, 경기도지사 인가일 거예요.

-교사, 선생님들은 그때도 처음 하셨던 선생님들이 쪽...

=같이 하셨죠. 중학교 인가 날 때까지는 인선생님도 같이 하셨죠.

-그때도 야간이었나요?

=아니, 주간. 여기 와서도 야간을 좀 했고, 천막교사에 촛불 켜놓고 가마니 깔고 사과 박스... 나무 박스에 시작을 했지.

-주간은 못 했고요, 그럼 흙벽돌집 지으시고 주간으로 하신 거예요?

=네. 여기 와서 한참 있다가...

-공사하는 데, 천막교사에서 흙벽돌교사 지을 때까지 얼마나 걸리셨어요?

=몇 달 걸렸죠. 비오면 무너지고 그러니까, 그래 가지고 야단도 많이 맞았어요. 설계도 없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고...

-관에서요?

=네, 교육장이 1회 졸업식에 축하하러 와 가지고 오히려 위험한 데라고 그러면서 이게 학교냐, 여기 나와서 뭘 하느냐 이래 가지고...

8) 1961년 12월에 해태공업
주식회사와 자매결연을
맺었다. (『화성시사 Ⅲ』,
화성시, 2005, 710쪽).
안용중학교 졸업생인 홍
창선(1949년 서작현(송산
2리) 출생, 현 송산2리 거
주)의 증언에 의하면, 해
태제과공업주식회사와의
자매결연으로 1960년대
당시 안용중학교 졸업생
들의 해태제과 취업이 많
았다고 한다.

-1회 졸업생을 몇 년도에 배출하신 거예요?

=1962년인가, 1963년인가 그래요.

-1회 졸업식 때 몇 명이나 졸업했어요?

=33명요. 울고 안 간다고 정이 들어서...

-1회 졸업생이 제일 기억에 많이 나고 그러실 텐데, 지금도 연락들 하고 하나요?

=더러는 하고 그렇지.

-다음 2·3회에도 학생 수가 늘거나 뭐 줄거나 하는 변동이 없었나요?

=줄진 않고... 5·16 이후에 군사정부가 생기고, 도지사가 박창원 씨인데, 그분이 여기 와서 여러 가지 얘기도 듣고 했는데, 뭐 도와줄 거 없느냐, 처음엔 얘기를 많이 듣고 왔는데, 여기는 야간이니깐, 주간에는 수원시 공립학교로 발령을 내줄 테니, 농고나 수여고에 가서 하고, 야간에 애들을 와서 가르치면 되니깐, 언제까지 무보수로 할 수 있느냐. 만약에 간다면은 이 학생들 유지를 못한다, 그냥 해야겠다. 어떻게 도와주어야겠냐?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권선중학교 교장으로 있었다던 홍명성 그 선생님 여기 있다가, 아무래도 여기는 신분도 없고 힘들잖아요?



1969년 설립 인가된 안용중학교 교사

한이 없지. 보수도 없이... 그래서 공립학교 교사로 갔어요. 연천의 중학교로 갔는데, 그분을 (이쪽으로) 그 이튿날 바로 발령을 냈어요. 말 한마디에 바로 뒷날.

-1963년도 학교 인가를 받을 때도 그런 도움이 있었나요, 도지사의?

=아니오,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런 거를 계기가 되서 학교가 많이 알려졌어요. 그리고 존슨이 오면서 또 많이 알려졌지요.

=(인기홍) 존슨대통령이 오고 난 다음에 중학교로 인가를 받아요. 교장선생님께서 고생 많이 했어요. 나라에서 주는 상록수상도 받고 그랬지요. 안용중학교 축구부가 유명하데, 박지성이 거기 출신이잖아.

-상록수상은 언제 받은 건가요?

=1966년 3월에 받았어요. 당시 문공부에서 지역사회개척에 대한 공로로 하는데, 아마 한 도에 1명씩 받는 걸로 아는데...

-아, 지역사회에 대한 공로에 대해서...

=네, 상록회 모임이 있어요. 지금도 그 모임이 있어.

-그러면 안용중학교가 된 시기는?

=1969년 1월에 학교법인을 인가받고 2월에 3학급으로 안용중학교가 생긴 거죠, 이제 초등부는 없어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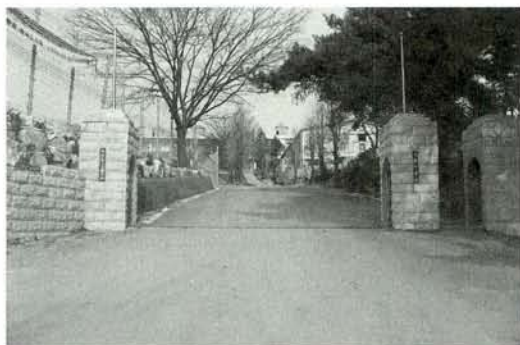
-그게 1969년이군요.

=네, 여기 중학교가 이제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지역은 다 안용중학교 다니고...

3) 교장 재직 중 두 대통령을 만나다.

-1966년도에 존슨 대통령이 여기 오잖아요, 당시의 정황이나 학교 역할 뭐 이런 등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해주세요. 특별한 환경미화랄지...

=뭐 당시 특별한 환경미화라는 건... 그때 당시 1회 졸업생들 때인데, 여주로 수학여행을 갔다 왔거든요. 수학여행 갔다 왔는데, 학교 사택에 살 때인데, 헬리콥터가 내렸어요, 그래서 보니까 난리야.



안용중학교 교문

-수업시간에 내렸어요?

=아니오, 수학여행 갔다가 하루 쉬는 날. 올라와서 얘기를 하는데, 백악관 보좌관이래, 미군. 이거는 비밀로 해 달라 대통령이 여기를 온다. 비밀로 하겠다, 우리가 그 당시에 대통령한테 선물한 게 족자 하나.

-어떤 족자요?

=사인. 아이들 이름 쓴 거 그거를 족자로 만들어 가지고...

-영어로 쓴 거예요?

=아니, 영어는 못하고 한글로 각자 이름을 쓴 거.

-백악관 보좌관이 온 게 존슨 대통령이 방문하기 얼마 전인가요?

=한 한 달 전. 수학여행을 10월에 갔는데, 존슨은 11월 1일에 온 걸로 기억돼요.⁹⁾

-인파도 대단하고 그랬죠?

=대단했었죠, 이 일대가 사람들로 가득 쌓여 가지고... 옆에서 지켜보니깐, 그분이 인간적인 게 사실이더라고요, (그분이) 흥분이 되니깐, 관중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데 경호원들이 다 절절 매더라고 막 뛰어 들어가니깐. 그리고 그 뒤에 박정희 대통령이 여기 왔었다고.

-몇 년도예요?

=그게 그 이듬해에. 근데 저는 전혀 끝이 안 들었거든요, 혼자 있는데 저기 동산에서 대통령이 기다린다는 거야. 전혀 뭐 대통령이 온다는 연락도 없었고 약속도 없었는데,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안 가고 있는데, 그때가 아마 존슨 대통령이 다녀가고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에 한번 다녀온 그 이후인데, 자꾸 빨리 가자고, 빨리 가라고 그러는데, 안 갔어요. 여기도 올 리도 없고... 막 여기를(팔을) 잡아끌더라고...

-누가요?

=읍에 면서기가. 올라가니깐, 경호원도 없이 앉아있었는데, 앞에 가니깐, 아주 진짜 가까이 갔지. 카키색 옷 입고 남방입고... '당신이 교장이요?' 그러니깐, '네' 소리가 더듬더듬 나와 긴장이 돼서...(하하하) 그러는데 그분한테서 그때 애국적인 면을 많이 느꼈어요.

-주로 나눴던 얘기가 뭐예요?

=주로 했던 얘기는, 이 부락을 위해서 학교가 있는 건데, 부락을 위해서 협업을 하기 위해서, 축산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 학교에서 안 되면 수원에 축산하는 고등학교에 연락을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고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한참 있다가 싸이렌 소리가 울리더니 경호원이 딱 에워싸고 그러더라고... 그게 어떻게 돼서 그런가 했더니, 지지대고개 넘어서 식목하다가 별안간에 막걸리 한 잔 하시고 이리로 오신 거야. 그러니깐, 경호원들이고 뭐고 모른 거지.

9) 존슨 대통령의 방한은 당시 안용중학교 재학생이었던 홍창선(1949년 서작현(송산2리) 출생, 현 송산2리 거주)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다. 당시 재학생이었던 홍창선은 학교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환영했던 장면을 회상하며, 특히 존슨 대통령이 선출한 TV에 대한 인상 깊은 기억을 고집어냈다. 당시 귀하고 귀한 TV는 외양선이나 타는 집에만 있을 법한, 동네에서도 한두 대밖에 없던 것으로, 그것도 12인치나 14인치 같은 작은 것이었다고 한다. 그 시절 어느 동네에서나 흔한 풍경처럼 온 동네 사람들이 동네에 하나둘 있는 작은 TV 앞에 모여 앉아 연속극이나 레슬링을 함께 시청하였다고 한다. 그런 시절에 존슨이 안용면에 선출한 그 TV는 면사무소에 기증되었으며, 그곳에서 그 TV로 레슬링 같은 걸 보면서 아주 재미있어 했다고 한다. 흔하지 않은 큰 화면의 TV가 어찌나 크던지 영화관에 온 거 같았다고 회상한다. 사실 이때 존슨 대통령이 기증한 TV는 RCA사의 24인치였다.

-경호원들은 나중에 따라온 거예요?

=글쎄, 아무도 없었어요. 면서기하고 나밖에. 그냥 앉아서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경호원들이 싹 에워싼 거지. 그래서 그런 얘기하다가 한참 학교 키우는 얘기하다가 농민 키우는 얘기하고 어떻게 해서든 학교 키우고 농민 키워서 잘 살아봐야겠는데, 농지도 개간하고 정리해야 하는데, 하면서 말씀하시다가 가시더라고요.

-그렇게 얘기 나누신 게 시간상 얼마쯤 되세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한 15분 정도.

-선생님은 당대에 미국 대통령도 만나시고, 한국 대통령도 만나시고 양국의 원수를 다 만나보시는 재미있는 경험을 하셨는데요. 막상 만나서 본 존슨 대통령에 대한 느낌은 어땠던가요?

=키가 크고, 키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압도적인 거 같아요. 자기가 사범학교 나와서 선생을 했다던가 그러면서 처음에 전기도 없고 물 시설도 없고 그런 데라서 큰 걱정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걱정을 해줘요.

-존슨 동산이라고 이름 지었잖아요, 그건 그때 당시에 관에서 지은 거지요?

=네, 그 당시에.

-존슨 대통령이 방한하기 한 달 전에 알고 계셨잖아요?

=그때 저 참 좋았어요. 부자연스러웠지만, 어디 땡길 때 경호원이 다 따라붙어. 한달 동안에 내가 그걸 느꼈으니깐, 서울에 출장을 가면 쫓아다니고 집에 오면 집으로 오고...

-선생님 모르세요?

=내가 느꼈어요, 비밀로 경호를 하는 거를. 서울로 출장을 가거나 어디를 가면 에워싸는 거를 느꼈어요.

-아무한테 진짜 얘기 안하셨어요, 한달 동안?

=그거를 누구한테 뭐하러 얘기해.

-가까이서 대면하셨으니, 박대통령에 대한 느낌은 어떠셨나요?

=그때 그분은 농촌 살리는 것에 골몰하던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박정희 대통령 다녀가시고, 계획에 없는 방문이었지만, 학교 들어올 때 복도에 보니
간, 콜 사령관도 다녀가고 하는 게 있던데...

=그게 어떻게 된 건고 하면, 존슨 대통령이 걱정을 하고 가셨던 거예요, 존슨 대통령
이 미공군에게 명령을 하셨는지. 시멘트 500포대를 주더라고...

-그게 1966년도 (존슨) 가자마자?

=네.

-미군에게 그걸 받으셔서 어떻게 사용하셨나요?

=흙벽돌 교사 헐고 학교 건물 다시 지을 때 썼어요. 그래서 콜 사령관이 기념하러 온
거고...

차학근 교장은 꿈 많던 청년시절 심훈의 『상록수』를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아 고향의 열
악한 교육환경을 개선시키는 일에 뛰어들게 되었다고 한다. 젊은 패기와 열정으로 동지
를 구하고 비인가 교육기관인 안용성인학교를 다시 일으켜 세우며 농촌사회의 계몽과
교육을 이끌어 나갔다. 안용성인학교에서 안용고등공민학교로의 인가, 그리고 뒤이어
안용중학교로의 발전은 그의 꿈과 노력이 바탕이 된 것이다. 이러한 공로로 인간 상록
수상 등 많은 표창을 받아왔지만, 무엇보다도 자신의 고향에 배움의 터를 마련할 수 있
었던, 처음 가졌던 그 작은 소박한 꿈의 실현이 더욱 값진 보람일 터이다.